

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경기수원

이주여성·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상담 및 생활정보 제공
13개 언어로 서비스 됩니다.

☎ 031-257-1841

제164호 2020년 01월 01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031-8001-0211, 328-0211 수원사무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3층(영화동)
인쇄인 장용호 부천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춘의테크노파크 2차 209호 danews1@daum.net 후원계좌 110-408-662725 신한은행 <2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심 없는 노력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제도 마련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를 억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법무부는 2020년 6월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고, 이들이 더 나은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해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단기방문(C3, 90일) 단수 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내 안전을 위해 재입국 비자 신청 시 본국의 범죄경력,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을 검증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계획이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규 유입을 막기 위해 단속된 외국인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고용주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임신이나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추방을 유예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20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국적·범정부적 단속 체계를 구축해 자진신고업체 집중관리, 정부합동단속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3월 이후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자진 신고자에게도 범칙금을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이런 계획을 세운 이유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2016년 21만명에서 2019년 10월말 현재 38만명으로 급증하면서 건설현장 등 취약계층 국민의 일 자리를 잠식하고 불법고용업체 증가로 고용허가제 등 합법인력제도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19년 12월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40만여 명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현재의 단속 자진출국 위주의 대책만으로는 신규 유입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기존 자진출국제도가 범칙금 면제, 입국금지기간 완화 등 자진출국 유도에만 그치고 자진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자진출국하기를 꺼리는 사례도 발생하여

출입국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부과가 그 처리절차로 인해 신속한 강제퇴거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장기보호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있어 준범의식 해이 및 불법체류 유입 및 전략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가 아세안 국가 국민인 현실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내 자진출국 시 재입국 기회 부여 등 실효적인 정책적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아세안 국가와의 인적교류의 선순환 유도 및 환경을 조성하여 새로운 자진출국제도에 대한 신뢰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지은 기자

지자체별
지면 안내

언어별
지면 안내

섹션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고양 3~7 안산 8~15 시흥 16~21 부천 22~27 오산 28~29 파주 30~32 군포 33~35 광명 35~37 김포 38~40 과천 41 안양 42~43 화성 44~48

중국어(Chinese) 中文 13, 16, 24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13, 26, 45, 48 일본어(Japanese) 日本語 5, 33 영어(English) 25, 43, 47
네팔어(Nepali) नेपाल 46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10, 12, 15 미얀마(Myanmar) 14

정책 Policy 2, 7 교육 Education 14, 19, 22, 44 생활정보 Information 10, 16, 24, 33, 35, 37, 45, 46 기획 Project 5, 31 행사 Event 4, 18, 23, 38 한국어
Korean 32 육아 Child Care 12, 18, 21, 25, 29, 35, 48 법률상담 Legal advice 13 도서관 Library 28 나의 학습 Study 5, 6, 15, 26 체류 visa 1, 20 인권
Human Rights 9, 11, 12 보건 Health 39, 40 여행 travel 43 취업정보 Job <경기다문화뉴스 앱 Mi Gnews>

2020년 새에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도민 ‘삶의 질’ 개선에 집중

경기도 외국인통역서포터즈, 청소년교통비 등 다문화가족에도 도움 되는 사업



지난 1년 반 동안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골격을 세운 민선 7기 경기도가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1,360만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제도와 정책을 마련했다. 이 중에는 다문화가족들이 알아두면 좋은 다양한 복지 생활 정보들이 있어 소개한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확대 운영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상을 확대한다. 도는 지원 규모를 2,000명에서 9,000명으로 4.5배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의 저축의지와 근로의욕을 높일 계획이다.

■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주소득자의 사망, 중대 질병, 실직 등 위기를 맞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이 확대 운영된다. 먼저, 대상자 기준이 중위소득 80%에서 90%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일반재산 기준이 대도시 1억5,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9,500만 원 이하에서 시 지역 2억4,200만 원, 군 지역 1억5,200만 원 등으로 완화된다. 금융재산 기준도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변경돼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금

액도 1인 가구 기준 44만1,900원에서 45만4,900원으로, 4인 가구 기준 119만4,900원에서 123만 원으로 상향된다.

■ 아동돌봄정책 확대

경기도는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가정 등을 위한 아동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우선 돌봄 틈새인 저녁, 방학 등 긴급 돌봄에 대응하고, 다양한 돌봄시설의 운영체계화 도모 및 통합관리를 위한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4곳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 지역단위의 촘촘하고 안정적인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충(105개소)하는 것은 물론 돌봄 인력추가지원(49명), 종사자 처우개선(월15~20만 원), 프로그램 지원(59개소)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 고등학교까지 신입생 교복 확대 지원 및 대안교육 기관 급식비 지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복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에까지 확대된다. 경기도는 도내 중고교 1학년생 25만9,000여 명에게 30만 원 상당의 교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거주자로서 대안교육기관 중학교 신입생에게 지원되던 교복구입비를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최대 30만원) 지원한다. 또 118개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8,000여명에게 1인 평균 4,330원의 급식비 지원도 추진된다.

■ 경기도 외국인 통역 서포터즈 운영

의사소통이 어려워 공공기관, 병원, 은행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외국인들을 위한 ‘경기도 외국인 통역 서포터즈’ 사업이 추진된다. 한국어 능력이 가능한 결혼이민자 등을 통역 서포터즈로 채용, 현장방문을 통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들의 불편을 해소

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시범사업 추진

임신 후부터 출산 이유기까지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 공급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부천시에서 시범 실시된다.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연 48만 원(자부담 9만6,000원)이 지원된다.

■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자 교통비 실사용액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경기도내 만 13세 이상 23세 이하 버스이용객이 대상으로 연 1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할 계획이다.

■ 취약계층 악기 대여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악기를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이 내년 처음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이용기관인 도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45개소의 기관을 선정해 개소당 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북한이탈주민 제3국 출생자녀 우리말 학습 지원

북한이탈주민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말 학습’이 지원된다. 출생 30개월부터 15세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4만 원 상당의 연령별·주기별 맞춤형 한글·국어 학습지가 제공된다. 송하성 기자

“도민을 위한 체감도 높은 의정활동으로 사회발전에 기여”

박옥분 의원, 2019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올해의 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수원2,

더민주) 위원장은 지난 19일(목), 2019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인연합회와 뉴데이 뉴스 신문사가 주관한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정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19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의정 대상’은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등 사회 및 공직 분야에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도민을 위한 체감도 높은 의정활동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하고 있다.

박옥분 위원장은 평소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지역봉사에 앞장서왔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

족평생교육위 위원장으로서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및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등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여 이에 대한 공로를 높이 인정받았다. 박옥분 위원장은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수상은 앞으로 도민들과 더욱 더 마주보고, 한 걸음 가까이에서 눈 맞추하며 소통하라는 뜻으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민 분들이 현장 속에서 주시는 많은 의견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현장에 먼저 문 두드리는 의정활동을 펼쳐내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송하성 기자



한국어교육 수료는 생활의 보람이자 성취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실 수료식'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유진)는 지난 12월 10일 일산동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한국어교실 수료식'을 개최했다.

결혼이민자 90명과 수강생 가족, 직원 및 강사 등 모두 120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한국어교실 수강생들의 수료를 축하하고 다문화가족의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두 317명의 수강생 중 115명의 다문화가족이 수료했다. 이 중 12명이 개근상을 받았으며 7명은 표창장을 받았다. 한국마사회 일산지사가 간식을 지원하고 고양 ROTC봉사단이 기념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기관들의 적극적인 후원은 다문화가족들에게 큰 힘이 됐다.

임유진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외국에 여행을 가보

면 간단한 말도 생각이 바로 안 날 때가 많다. 센터에 오셔서 한국어로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며 "낮선 한국 땅에 와서 적응하기 힘들고 어려울 텐데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수료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임 센터장은 1년 동안 다문화가족의 한국어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한 강사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의 축하공연은 다사랑난타클럽이 맡았으며 올해 한국어교실 활동 동영상상을 시청하며 추억에 잠기도 했다. 다문화가족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일을 도맡아하며 또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어교육 수료가 큰 보람으로 다가왔다.

송하성 기자

다문화가족 초청 송년자선음악회 개최 눈길

고양문화교류협회, 보훈가족 등 참석자 위로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내 보훈가족, 다문화가족, 독거어르신 등을 초청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작은음악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고양문화교류협회는 지난 22일 고양시청 문화회관에서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송년자선음악회'를 열고 국가유공자 등 참석자들을 위로했다.

송년음악회는 지난 9월 설립한 협회가 2020년 광복 75주년, 6·25전쟁 70주년을 앞두고 국가유공자와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보훈 가족, 탈북민, 다문화가족, 독거어르신들에게 음악을 통한 사랑나눔의

축제로 기획됐다. 행사에는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해 김종민 고양시의원,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특히 김상욱 고양문화교류협회 홍보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음악회에는 구창모, 닐로, 이준호 등 인기가수와 대한가수협회 고양시지부 소속 향토가수 10명이 재능기부로 참가해 시민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초청 가수와 참석자들은 손에 손을 잡고 한마음으로 '나의 살던 고향은'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며 작은 음악회를 마무리했다.

이재준 시장은 "보훈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등 지역내 많은 시민을 초청해 의미있는 송년음악회를 개최한 고양문화교류협회 박용섭 회장과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용섭 고양문화교류협회장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음악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내년 5월 가정의 달에 고양시에서 열리는 경기도체전에도 뜻깊은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 27일부터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

고양시 일산동구는 12월 27일부터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외국에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국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개인 비용을 들여 번역·공증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이 발급되는 영문증명서는 별도의 번역 공증절차가 필요 없으며, 기존 5종의 국문증명서를 단순히 영문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사용 시 꼭 필요한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종류의 증명서로 그동안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전망이다.

가족관계 영문증명서는 가까운 가족관계등록관서,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무료발급도 가능하다.

안종봉 일산동구 시민봉사과장은 "가족관계 영문 증명서 발급으로 해당서류가 필요한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모집 고양시, 신규단체 우선지원

고양시가 오는 1월 6일부터 14일까지, 2020년도 고양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공개모집한다.

2020년 성평등기금은 일반사업과 신규 소규모사업으로 나눠 접수 받으며, 총 사업비는 9천만 원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소재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법인(단체)별 1건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 사업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여성의 권익 증진 사업 ▲가족관계 증진 사업 ▲여성경제활동 촉진 사업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 ▲취약계층 여성의 역량강화 사업 ▲기타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총 7개 분야이다.

지원규모는 사업비의 90%로 사업 규모와 성격에 따라 일반사업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신규 소규모사업은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신규 소규모사업의 경우 성평등기금(구 여성발전기금)을 처음 신청하는 법인(단체)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http://www.goyang.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제출서류와 함께 2020년 1월 14일 오후 6시까지 고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75-3343)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2020년 2월, 고양시 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지은 기자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심없는 노력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18일 사업보고 및 감사송년회, 내외빈과 다문화가족 등 400여명 참석해 성황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유진)는 지난 12월 18일 소메르부페에서 2019년 사업보고 및 감사송년회 '함께여서 감사합니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명재성 고양시청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해 정무성 해피월드복지재단 이사장,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김현아 국회의원,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 박경희 밝은미래 경기도지부 대표, 김세영 고양이민자통합센터장, 이재준 고양시장 부인 문미영 여사 등 내외빈과 다문화가족, 고양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임유진 센터장은 “한 해 동안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오늘 행사를 갖게 됐다”며 “고양시 다문화사회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성 이사장은 “이 세상 어디를 봐도 섞여야 아름답고 강하다”며 “한국이 더 아름답고 강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재단 차원에서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명재성 국장은 “고양시의 다문화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재준 시장님

의 관심도 크다”며 “앞으로 내국인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 전체 아우르는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승 의장은 “한 해 동안 센터 운영과 사업에 참여한 직원, 자원봉사자, 활동가 등 모든 분에게 감사한다”며 “다문화가족과 우리의 언어와 문화가 다른 것 인정해야 한다. 공존하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국회의원 “고양시의 남녀의식과 성평등이 높은 수준인 것 같아 놀랐다”며 “다문화 지원정책의 문제점은

현장에서 찾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한 고양장학회와 김지연 비엔에스에프앤비 대표 등 공로자에게 고양시장의 표창장이 수여됐다.

이정아, 장흥, 순환에 씨 등에게는 해피월드복지재단 이사장 표창이 수여됐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8년 4월에 개소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돕고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多文化家族就職情報,
外國人住民のための
企業面接方法案内

面接とは企業が志願者と仕事の適合性を把握するためのものです。

多くの志願者のうち、企業および該当職務に適合する人材を、短い時間で把握するのは容易くありません。このような問題を解消するために、多くの企業が多様な面接方式を導入(PT、討論、状況など)して、面接官は多様な質問を通じて志願者の資質を試験します。

1. 職務適合性

志願者が會社に入社してから行う仕事とは職務です。職務を円滑に遂行することができる能力に関する検証は必須です。専攻の一致性(關聯知識習得有無)、資格證取得および教育修了などを判断し、職務遂行に対する準備状況を評價します。

2. 適性

業種および部署ごとに雰囲気と環境は違ってきます。事務従事者と營業従事者はチームの雰囲気、業務スタイルが違ってくるので、業務特性にあう適性かを総合的に評價します。

3. 長期勤續適合性

企業は採用過程で多くの投資を行います。新入社員入社後の教育などの時間まで含むと、會社が社員採用のために使う費用と時間は一層増えます。

このように採用から教育まで行った新入社員が退社する場合、會社はまた採用、入社後教育などを繰り返さねばならないので、効率的ではありません。

したがって面接時に、職務遂行中に問題があった場合に関する質問、覺悟を確認する質問、長期ビジョンを持っているかなど、質問を通じて長期的に會社に寄與できる志願者であるかを見分け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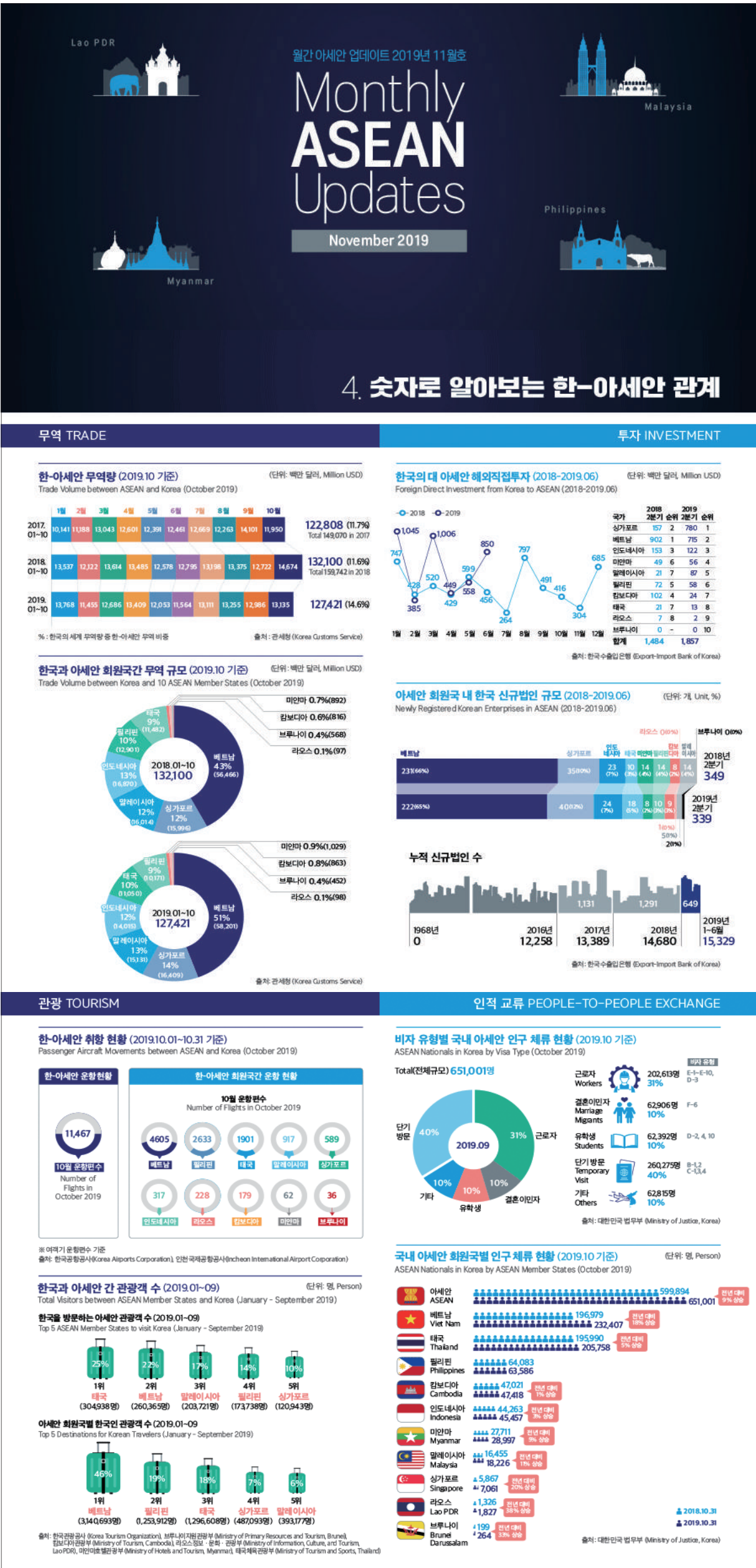
4. 面接の手順

面接官との最初の出会いは、面接日程を決めるための連絡から始まります。礼儀を守るよう気をつけましょう。

面接の当日、志願者は面接場に入場し、軽く黙礼、決められた場所に行ってから深く腰を曲げてお辞儀をしましょう。まず面接官は簡単に自己紹介、どんな業務職員を選ぶのかを説明するはずで

す。面接官は履歴書、自己紹介書を検討後、志願者の力量把握のための質問をします。面接者は質問の意圖を把握して、自分の力量を最大限アピールできるように、具體的な經驗を例にあげて答えます。志願者は面接前に多様な豫想質問を考え、具體的な答えを準備しておきます。

最後に伝えたいこと、あるいは志願者の質問に対する答えを行って、面接が終了します。面接官は今後の日程、結果通報時期などを伝え、面接受験への感謝を述べます。最後まで評價要素となるので留意し、‘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という挨拶と、腰を曲げてのお辞儀を忘れずに面接場を退出します。<한글 기사 6면> 아키오 객원기자



“자신이 해야 할 일 파악에 예상 질문 꼼꼼히 연습해야”

다문화가족 취업정보, 외국인주민을 위한 기업 면접방법 안내 더 나은 일자리 위한 노력 필요

경기다문화뉴스는 다문화가족 취업정보의 일환으로 지난호에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작성방법을 3개 국어로 번역 게재한 데 이어 이번 호에는 회사 면접요령을 소개합니다. 더 나은 일자리를 꿈꾸는 다문화가족 여러분은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면접은 기업이 지원자와 일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많은 지원자 중 기업 및 해당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면접방식을 도입(PT, 토론, 상황 등)하고 면접관들은 다양한 질문을 통해 지원자들의 자질을 시험합니다. 물론 식당이나 공장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면접이 훨씬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일자리를 원한다면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1. 직무 적합성

지원자가 회사에 들어오면 하게 될 일이 바로 직무입니다.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검증은 필수입니다. 전공의 일치성(관련 지식 습득 여부), 자격증 취득 및 교육 수료 등을 판단하여 직무 수행에 대한 준비성을 평가합니다.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외국인주민은 한국어 외에도 모국어를 할 수 있고 또 한국 이주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장점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습니다.

2. 인성 적합성

업종 및 부서마다 가지는 분위기와 환경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사무 종사자와 영업 종사자는 팀 분위기 및 업무 스타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업무 특성에 어울릴 만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3. 장기근속 적합성

기업은 채용 과정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신입사원 입사 후 교육 등의 시간까지 포함하면 회사가 사원 채용을 위해 쓰는 비용과 시간은 더욱 늘어납니다.

이렇게 채용부터 교육까지 진행한 신입사원이 퇴사할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또다시 채용, 입사 후 교육 등의 과정을 반복해야 하므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접 과정에서 직무 수행 중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한 질문, 각오를 확인하는 질문, 장기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오랫동안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자인지 가려내야 합니다.

4. 면접의 절차

면접관과의 첫 만남은 면접 일정을 잡으려는 연락부터 시작합니다.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신경 써야 합니다.

면접을 보는 당일, 지원자는 면접장에 입장하면서 가볍게 목례를 하고 정해진 자리로 가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면접관은 간단하게 본인 소개, 어떤 업무 직원을 뽑는지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관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검토한 후 지원자의 역량 파악을 위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면접자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최대한 자신의 역량이 돋보이도록 구체적인 경험을 예로 들어 답변을 해야 합니다. 지원자는 면접장에 오기 전에 다양한 예상 질문을 추려보고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혹은 지원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며 면접이 종료됩니다. 면접관은 추후 일정, 결과 통보 시기 등을 이야기해 주고 참여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평가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흐트러짐 없이 면접장에서 나옵니다. <베트남어 26면, 태국어 15면, 일어 5면> 이지는 기자





학생들의 진로를 함께 설계할 대학생 멘토단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2019.12.16 ~ 2020.1.5

MENTORING 2020 대학생 멘토단모집

— 학교로 찾아가는 대학생 멘토링 —

• 활동내용 ① 고양시 관내 중·고등학교 대상 학과 멘토링 실시
대학 학기 중 : 수·금 14:00~17:00 / 대학 방학 중 : 오전~오후 실시

② 자체 멘토링 프로그램(학습멘토링 등) 기획 및 학교 연계 활동

• 필수참여 연 2회 워크숍을 통한 역량 향상 교육 실시(필참)

• 활동혜택 ① 멘토링단 활동 확인서 발급 ② 모교 고등학교 '학과 멘토링' 활동 지원

③ 소정의 강사비 지급

• 모집방법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를 통한 지원서 작성
<http://www.gcyl.or.kr>

• 발표 2020. 1. 10. (발표예정)









2020 제1차 62기

수강생 모집

접수기간

- **면제자 인터넷 접수** 2019. 12. 10. (화) 09:00 ~ 18:00
- **일반인 인터넷 접수** 2019. 12. 11. (수) ~ 2020. 1. 23. (목)

교육기간 2020. 1. 6. ~ 4. 25. (16주)

과목및인원 163개반 3,584명

대 상 고양시민 및 고양시 관내 직장인
※ 단, 건강·피부질환에 한해 남성 제외(출생일자 참조)



모집 일정

구 분	접수일시	대 상	비 고
면제자 인터넷 접수 (선착순)	12. 10.(화) 09:00 ~ 18:00 ※면제자 접수일 이후에는 면제자 신청 불가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보훈대상자 포함)	• 1인 1과목 수강료 면제 • 과목별 정원의 10% 이내 ※ 면제자 증빙서류: 12월 13일(금) 문자발송대상자 한
	12. 11.(수) 09:00 ~ 1. 23.(목)	취·창업 자격증 강좌, 노래강좌 직업실무강좌	• 1인 등록 강좌수 - 1인 2강좌 - 접수 2주 후부터는 (12월 24일, 09:00~) 강좌수 제한 없음.
일반인 인터넷 접수 (선착순)	12. 12.(목) 09:00 ~ 1. 23.(목)	건강강좌, 야간강좌	
	12. 13.(금) 09:00 ~ 1. 23.(목)	토요강좌, 교양강좌	

▶ 고양시여성회관 홈페이지 : <https://wcenter.goyang.go.kr>

▶ 문의전화 :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48(행신동 774)

글로벌인재 육성 고양시 앞서다

고양글로벌차세대네트워크, 결과보고회



고양시는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고양글로벌차세대네트워크 결과보고회를 21일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결과보고회는 선발부터 오리엔테이션과 해외연수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연수생들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해외연수 중 보고 배운 점에 대하여 발표하는 등, 올해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활동을 마친 연수생은 중고대학생 39명으로 5개 조로 나누어 활동하였으며, 도시재생 MICE산업 기후변화의 주제로 국내 오리엔테이션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의 해외연수 등에도 참여했다. 연수생들은 국내외 활동 중, 동영상 제작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홍보활동도 활발히 진행했다.

해외연수 후 연수생들은 네이버 카페에 소감문을 게시했으며, 한 연수생은 “이번 활동을 통해 도시재생과 마이스산업이라는 생소한 주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고양시의 노후건물들과 킨텍스 전시장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결과보고회에서, 연수생들은 조별로 싱가포르의 선진사례와 고양시 사례를 비교하며 시정발전을 위하여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고양시 호수공원과 싱가포르 멀라이언공원을 비교하여, 싱가포르 대표상징물

인 멀라이언 석상처럼 호수공원에도 대표적인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 ▲가든스 바이더베이의 자연친화 슈퍼트리쇼와 고양시의 불꽃축제를 비교하며, 불꽃축제도 태양열을 이용하는 슈퍼트리쇼처럼 환경친화적으로 나아갈 것 ▲싱가포르의 피웅바루헤리티지빌리지처럼 오래된 건물을 유지하고 새로운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시키는 것 ▲고양시 벼농사 역사와 국내 최대의 벼누인 킨텍스를 이용한 쌀 박람회 개최 등의 아이디어들을 공유했다.

연수생들이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싱가포르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URA도시개발청으로, 고양시에도 우리의 역사와 계획을 알리면서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하고 접근이 용이한 기관이 설치된다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결과보고회에 참석한 전략산업과 방경돈 과장은 “연수생들이 이번 활동을 통해서 도시재생과 MICE산업의 어려운 개념에 대해 알게 된 것도 큰 성과”라고 말했다. 또 창의적인 발상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외연수 국내여행 독서를 들며, “이번 연수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고양시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소년교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외국인 다문화정책을 고민하다'

이민정책연구원, 수도권 정책연구 세미나



이민정책연구원은 지난 12월 19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공동으로 <제3차 수도권 정책연구원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했다.

수도권 정책연구원 네트워크는 2018년 7월 구축됐으며, 이민정책연구원을 비롯하여 서울연구원, 서울여성가족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인천연구원, 인천여성가족재단 등의 외국인·다문화정책 전문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개최된 3차 세미나에는 최근 들어 지자체 차원의 외국인·다문화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관점에

서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주요 발제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김영혜 선임연구위원의 “경기도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한국생활”과 이민정책연구원 유민이 부연구위원의 “분권의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단체 이민정책 현황”이 발표됐다.

토론자로 서울연구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인천시여성가족재단의 전문 연구자와 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이 참석하여 수도권의 외국인·다문화정책 현안과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앞으로도 이민정책연구원은 정책연구원 네트워크를 지속운영함으로써 지자체별 외국인·다문화정책 개발 및 협력연구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민정책연구원은 국제관계와 한국의 이민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다문화가족도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이지은 기자

장애인 여행지원 ‘꿈의 버스’

고양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해요

고양시는 지난 11월 장애인의 여행 지원을 위한 꿈의 버스 사업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 공개모집을 실시해, 12월 18일(수) 적격심사를 통해 사단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고양시장에 인종합복지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고양시를 대표하는 장애인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 ‘꿈의 버스’는 가족 또는 장애인 모임의 여행을 원하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에게 버스와 운전기사, 유류비, 통행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양시 꿈의 버스는 2016년 4월부터 장애인연합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버스 한 대로 운영을 시작했고, 2017년 고양시장에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하며 버스 한 대를 추가 구입해 현재 2대의 버스로 월 평균 4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매주 4~5회, 월평균 20회 가량 운행 중이며, 특히 월

1~2회 항공우주박물관, 배다골 테마파크, 행주산성,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점 등의 무료 시설 방문과, 연 2~5회 엠블호텔 고양점과 킨텍스 캠핑장의 시설 이용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는 지난 2년간 운행해 온 고양시장에인종합복지관이 재선정돼 별다른 혼선 없이 기존 신청하던 홈페이지와 연락처를 통해 계속해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새롭게 공고를 통해 재선정된 만큼,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꿈의 버스가 어떻게 새로운 모습으로 장애인과 장애인가정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지 꿈의 버스의 변화가 기대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 고양시 꿈의 버스가 더 큰 도약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 가정에 따뜻함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궁금증해소

이민법 전문 변호사 안내

김예진 변호사

지율이민법센터

다문화가족과 이주민

비자 변경, 국적 취득, 성본상설 가족법 문제 등 모든 상담 가능

모국어 통역 상담

영어(English), 태국어(ภาษาไทย), 중국어(汉语), 베트남어(Tiếng Việt),

이주민 상담

010.2782.8579

#중아오 만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등 민선 7기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문화업 시장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잘한 것은 더욱 잘하는 안산 될 것”



민선7기 2년차에서 안산시는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모두가 살맛나는 복지도시 ▲개발과 재생이 공존하는 미래도시 ▲친환경 관광, 상호문화 중심도시 ▲시민참여 및 청년친화도시 등 5개 분야로 사업을 추진, 전국적으로 내세를 만든 성과를 잇따라 거뒀다.

대표적으로 올해 2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가 전국 최초로 창원국가산업단지와 함께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지정돼 앞으로 1조3천417억 규모의 투자를 통해 3조의 생산유발효과와 9천억 원대의 부가가치유발효과, 9천여 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올 4월부터 발행된 안산화폐 다온(多溫)은 경기지역

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지류식 화폐가 이용 가능한 가맹점이 1만점 넘게 확보하는 기록을 세웠다. 당초 발매한 180억 원이 동나 12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등 조기에 정착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5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임신부를 위한 100원 행복택시가 운행에 나서 임신부들의 산부인과 진료를 돕고 있으며, 6월에는 안산사이언스밸리(ASV)와 시화MTV 일대 1.73㎢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4차 산업혁명의 거점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

옛 수인선이 지나던 전철 4호선 고잔역 인근 협궤철도 인근에는 7월부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철도교량 하부 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공간(Station-G)과 문화예술 플랫폼(Station-A)이 들어서 시민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안산에 있는 한양대 ERICA캠퍼스는 정부부처가 추진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에 선정돼 1조5천억대의 대형 투자를 통해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안산시와 함께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향후 5조9천억의 생산유발효과와 1조8천억 규모의 부가가치효과가 기대되며, 3만6천 명의 고용창출이 이뤄

질 전망이다.

안산시는 이밖에도 전국 최대의 다문화도시임을 자랑하듯, 전국 최초로 만 5세 이하의 외국인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둘째아 이상에 대한 출산축하금을 300만원으로 확대해 출산율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여의도까지 30분 이하에 주파할 수 있는 신안산선이 올 9월 2024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착공했으며,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장상·신길 2지구에 청년·신혼부부·고령층·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단지가 2026년까지 추진된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을 진행한 안산시는 올해 국제거리극축제, 대부해솔길 걷기 축제,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9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처음 개최한 안산 K-뷰티 페스티벌도 성황리에 마무리하면서 ‘안산 방문의 해’를 맞는 내년을 더 기대하게 하고 있다. 또 2021년부터 관광용 뱃길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옛 시화호 뱃길 복원 사업 기공식이 진행돼 바다 체험도 운영될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안산 다문화가족, 함께여서 더 행복하고 특별한 외출 나서다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과 부부 대상 제엄행사 진행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문숙현)는 연말을 맞아 다문화가족들이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가족간 화합과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마련했다.

#롯데월드서 신나는 하루 보내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4일과 10일 이틀간 220여명과 함께 롯데월드

와 아쿠아리움 체험 행사로 마련됐다.행사에 참가한 한 가족은 “직장생활 등으로 바빠서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부족했는데 연말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며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족들이 함께 다양한 체험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이를 통해 가족 및 다른 가족

들과도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부부의 ‘우아한 부부의 외출’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평소 육아나 직장생활 등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어려운 다문화가족 부부를 대상으로 ‘우아한 부부의 외출’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2월 7일 다문화 15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안산롯데시네마 샤롯데에서 ‘블랙머니’ 영화관람을 하며 오붓한 시간을 가졌다.

센터 관계자는 “부부관계 향상을 위하여 진행한 ‘우아한 부부의 외출’은 영화관람 외에 서로에게 편지를 작성하고 읽어주는 과정을 통해 부부관계 향상을 도모하였다”고 밝혔다.

‘우아한 부부의 외출’에 참여한 한 가족은 “부인과 함께 편안하게 영화를 보는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평소 마음은 있지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시간을 내지 못했는데 이런에 영화관람도 하고 편지를 통해 마음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센터에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한국에서 나고 자란 나는 한국인, 그런데 왜 한국사람처럼 못 살죠?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민관협력정책네트워크 최종 포럼’ 이주아동 건강권 논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오경석)는 지난 12월 20일 오후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4층 대강당에서 ‘2019 민관협력정책네트워크 최종 포럼’을 개최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관련 조례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보편적이고 평등한 기본권의 제도화 및 주류화를 목표로 하는 전국 최초의 외국인 인권 정책 전달 개발기관이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확장하고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한 시민사회의 정책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수년 전부터 민관협력정책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된 최종 포럼에는 도내 외국인담당 공무원과 외국인복지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외국인지원단체 관계자, 다문화 연구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오경석 소장은 이날 ‘2019 경기도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이주아동청소년 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실태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내 18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 양

육 부모 340명, 자녀 468명, 이해관계자 154명, 전문가 33명 등을 대상으로 설문·면접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올해 1~10월 10개월간 수행했다.

그 결과, 자녀가 아픈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경험에 있는 경우가 52.1%에 달했다.

이유는 ‘병원비가 비싸서’가 39.3%로 가장 많았고 ‘병원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18.2%,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17.6%순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73.8%는 한국에서 임신·출산 경험이 있었으며 시설이 아닌 집에서 산후 조리한 경우가 78.9%로 가장 많았다.

출산 후 쉬지 못한 경우도 12.4%에 이르는 등 대부분 산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경제적 요인들은 자녀들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자녀들의 스트레스 요인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컸고 이어 ‘한국어의 어려움과 미래’, ‘공부하는 문제’, ‘외모 및 신체조건’, ‘가족간의 갈등’ 순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보건소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감염병 무료 예방접종’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절반에 못 미치는 40.4%에 불과해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 문제도 다소 심각했다. 더욱이 공공 의료 등에서 제공하는 긴급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16.3%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자녀가 무료 건강검진을 ‘받은 적 없다’는 응답은 57.9%로 ‘받은 적 있다’ 40.6%를 훨씬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기존 복지제도 활용, 의료시설 이용 편의 제공, 전달 체계 활성화, 범국가·범정부·범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이주 거버넌스 구축 등 5개 범주 14개 시책을 제안했다.

오경석 소장은 “조사 결과 미등록 이주아동의 전반적 건강 수준과 경제적 환경은 나쁜 편에 해당했으며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정도도 부족했다”며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 마련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성철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적극 협업을 추진, 국제 수준에 부응하는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 과장은 이날 경기도가 2020년에 시행할 다양한 외국인주민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목을 끌었다.

송하성 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대만 단수이 청년회의소 방문단 영접

경기도와 대만 청년회의소간 민간교류 확대 및 의회 차원 지원 강화 약속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5일 대만 단수이(淡水) 청년회의소 방문단을 만나 양 지역 청년회의소 간 민간교류 확대를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송한준 의장은 이날 오전 의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루진홍(盧金宏) 대만 단수이 청년회의소 회장 등 13명의 방문단과 안산 청년회의소 관계자 3명과 접견했다.

이날 접견은 안산 청년회의소와 단수이 청년회의소 간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양 기관 간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송 의장은 “안산 청년회의소와 단수이 청년회의소 간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경기도와 대만 간 민간교류의 장을 열어주기를 기대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만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촬영지로 잘 알려진 ‘단수이’는 대만 최북부에 위치한 신베이시 소재 구(區)로 70.66㎢ 규모며 올해 기준 17만7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다문화가족 없도록, 선배 이주여성이 나서요!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상담원 양성교육 수료식’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문숙현)는 지난 12월 20일 센터 교육실에서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상담원 양성교육 수료식’을 진행했다.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과정은 최근 다문화가족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국에서 거주한지 3년 이상 된 선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을 실시해 이들이 직접 다문화가족의 어려움과 아픔을 보듬을 상담사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상담에 전문성을 갖춘 다문화가족을 양성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 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이번 양성과정은 지난 10월 25일부터 12월 20일 당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려 100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가정복지 및 정책, 여성학 여성복지 및 정책, 비폭력대화법, 상담사례연구 및 실무실습 등의 강도 높은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또는 한국 거주 3년 이상 된 다문화가족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는데 더 많은 사람이 지원해 선발에 애를 먹기도 했다.

총 100시간 중 9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다문화가족 27명은 이날 수료식에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수료증을 발급받았다.

이번 교육을 진행한 안산YWCA 관계자는 “가정폭력 상담원 양성과정은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이 힘을 얻음으로써 우리 가정이 좋아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다문화가족들이 어렵게 수료를 한 만큼 더 많은 활동을 통해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관계자는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배우는 만큼 성장하고 성숙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교육을 이수한 다문화가족 여러분은 바로 선구자다. 나 혼자가 아닌 다 함께 가는 노력을 해달라”고 격려했다.

문숙현 센터장은 “처음 교육을 시작할 때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수료율이 50%만 되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수료율이 90%에 달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전국 최초의 이주여성 대상 교육이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좋은 인재를 많이 배출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번 가정폭력 상담원 배출은 한국의 다문화사회가 성숙해감에 따라 다문화가족들의 역량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송하성 기자



ข้อมูลทางกฎหมายครอบครัวเกาหลี-ไทย, การโอนสัญชาติและใบขับขี่, เกี่ยวกับการเชิญญาติ

<다문화가족 생활법률 정보>

(คำถาม-1) เมื่อคุณแต่งงานกับคนเกาหลีแล้วจะได้สัญชาติเกาหลีทันทีได้หรือไม่?

(ตอบ-1) เมื่อคุณแต่งงานกับคนเกาหลีและใช้ชีวิตใน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คุณจะมีสถานะเป็นคู่สมรสของพลเมืองเกาหลี คุณจะไม่ได้รับสัญชาติของคนเกาหลีทันที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เมื่อคุณแต่งงานกับชาวเกาหลีอาศัยอยู่ใน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เป็นเวลาสองปีหรือสามปีหรือหนึ่งปีหลังจากรายงานการแต่งงานกับชาวเกาหลีอย่างถูกต้องตามกฎหมายสามารถโอนสัญชาติเกาหลีได้

◇ข้อกำหนดของการโอนสัญชาติ

▲แต่งงานกับคนเกาหลี▲ใช้ชีวิตอยู่ในเกาหลี▲ต้องมีอายุ19 ปีขึ้นไปตามกฎหมายแพ่งของเกาหลี▲ประพฤติตนเรียบร้อย▲สามารถมีการดำรงชีวิตที่ดี▲สามารถมีทักษะพื้นฐานในฐานะพลเมืองเกาหลี

◇การสมัครการโอนสัญชาติ

หากต้องการสมัครการโอนสัญชาติ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แต่งงานกับคนเกาหลีและมีเอกสารรับรองว่าเขาหรือเธอเป็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ยื่นขอแปลงสัญชาติฯลฯคุณสามารถส่งไปยัง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การต่างประเทศ

,ผู้อำนวยการกอง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สำนักงา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สำนักงานสาขาหรือ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คุณสามารถส่งไปยังสำนักงานสาขาของ

สำนักงา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

(คำถามที่2) ฉันมีใบขับขี่ในประเทศของฉันแล้วเพื่อรับใบขับขี่เกาหลีฉันต้องทำการทดสอบอีกครั้งตั้งแต่ต้นหรือไม่?

(ตอบ2) ในการขั้รถยนต์ใน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คุณต้องผ่านการทดสอบที่ได้รับการยอมรับและได้รับใบขับขี่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หากคุณมีใบขับขี่จากประเทศของคุณแล้วส่วนหนึ่งของการทดสอบใบขับขี่จะได้รับการยกเว้นนอกจากนี้หากชาวต่างชาติได้รับใบอนุญาตขับขี่สากลในประเทศของตนเขา / เธอสามารถขับรถในเกาหลีเป็นเวลาหนึ่งปีโดยไม่ต้องมีใบขับขี่เกาหลีนับจากวันที่เขามาถึงเกาหลี

◇การยกเว้นการสอบใบขับขี่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ต้องการทดสอบการขับขี่▲ผู้ที่อาศัยอยู่ในเกาหลี▲คุณจะต้องลงทะเบียนหรือได้รับการยกเว้นจากการลงทะเบียนคนต่างด้าว▲สถานที่ที่มีใบอนุญาตขับรถต่างประเทศรายงานถิ่นที่อยู่ใน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ใ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จะได้รับการยกเว้นจากการเป็นส่วนหนึ่งของการทดสอบขับใบขับขี่

◇การขับขี่ยด้วยใบขับขี่สากล

บุคคลที่ได้รับใบขับขี่สากลสามารถขั้รถยนต์ด้วยใบขับขี่สากลเป็นเวลาหนึ่งปีนับจากวันที่เข้าเกาหลีแม้จะไม่ได้มีใบขับขี่เกาหลี

(คำถามที่3) หากครอบครัวแต่งงานเกาหลี-ไทยต้องการเชิญผู้ปกครองหรือญาติมาเกาหลีควรทำอย่างไร?

(คำตอบ3) การขอวีซ่า(VISA)สำหรับครอบครัวและญาติของผู้ที่แต่งงานเกาหลีไปยัง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ในกรณีนี้คุณสามารถยื่นขอวีซ่าได้โดยสมัครโดยตรงกับทางสถานทูตเกาหลีใ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ของคุณ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ชาวต่างชาติสามารถยื่นขอใบรับรองการออกวีซ่า(หมายเลข)สำหรับครอบครัวของพวกเขาเพื่อเชิญพวกเขาไปที่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ใน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

◇ การเข้าประเทศโดยการออกวีซ่า(VISA)

โดยทั่วไปแล้วคุณจะได้รับวีซ่าพร้อมสถานะการเยี่ยมชมระยะสั้น(C3)ที่อนุญาตให้คุณมีสิทธิ์พำนักรถอยู่ได้3เดือนหากคุณสมัครยื่นขอวีซ่าระยะสั้น(C3)คุณจะต้องได้รับเอกสารจากชาวต่างชาติในเกาหลีที่พิสูจน์จุดประสงค์ของคุณเช่นจดหมายเชิญและ

ใบรับรองการรับรอง(รับรองโดยสาธารณรัฐเกาหลี)และส่งเมื่อเพื่อยื่นขอวีซ่าคุณสามารถขอวีซ่าได้อย่างง่ายดาย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หากคุณเชิญผู้ปกครองมาช่วยดูแลบุตรหลานของคุณคุณสามารถขอวีซ่าและอยู่ได้นานขึ้น

◇ เข้าโดยใบรับรองการออกวีซ่า (หมายเลข)

โดยทั่วไปแล้ววีซ่าจะต้องยื่นขอโดยตรงจากผู้ที่ต้องการเข้าสู่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ชาวต่างชาติแต่งงานกับชาวเกาหลีเชิญผู้ปกครองของเด็กก่อนที่จะได้รับสัญชาติเกาหลีคุณสามารถยื่นขอหมายเลขขอออกวีซ่าสำหรับเด็กที่คุณต้องการเชิญไปยังสำนักงาน <한글 기사 37면>

이아리 기자



경기도이주아동보육네트워크,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무상보육의 권리를!

미등록 외국인 자녀들이 한국에서 차별받지 않고 생활할 권리를 옹호하는 경기도이주아동보육네트워크의 사업보고회가 지난 12월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경기도이주아동보육네트워크는 지난 2018년, 오랫동안 이주민 지원사업을 하던 안산이주민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오산이주민센터, 아시아의창 등 4개의 기관이 모여 결성한 단체다.

모든 아동들은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환경에 상관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만 무상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기도이주아동보육네트워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현삼 경기도의원의 ‘경기도 이주아동지원조례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권영실 변호사가 ‘이주아동 보육관련 진정제기 활동’에 대해, 김양예 안산 코시안의 집 교사가 ‘일본연수 및 해외사례’에 대해, 김영임 안산 코시안의 집 원장이 ‘이주아동 보육사례 조사 및 경기도 보육개선안’에 대해, 박천용 국경없는마을 대표가 ‘경기도 이주아동 보육네트워크의 성과와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성준모 경기도의원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2부에서는 이주아동 부모들이 당사자로서 직접 발언에 나섰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의 고경애 씨와 오산이주민센터의 마야 씨가 절절한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김현삼 경기도의원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보장

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기도이주아동지원조례안 발의 등 법제도 개선에 나섰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경기도인권보호관의 권고안을 받아내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경기도이주아동지원조례안은 아직 상정되지 못했다. 정책 활동을 하면 할수록 더욱 높고 견고한 현실을 벽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김영임 원장은 “미등록 이주민들은 어렵더라도 자녀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기를 원한다”며 “이들은 어린이집에 보낼 때 보육료 걱정, 차별에 대한 걱정, 자녀의 한국어에 대한 걱정 등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차별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천용 대표는 “미등록 이주민들의 자녀는 스스로 선택해서 한국에 온 것이 아니다”며 “이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모아서 이 자리가 축하의 마당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네팔에서 온 마야 씨는 “지난해에 아이사랑 카드가 없어서 아이 보육료로 50만원을 냈다. 생활비의 거의 전체를 아이에게 쏟아부었다고 있다”며 “한국 아이들처럼 어린이집 보육료를 한국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너무 비싸다. 보육료를 지원해 달라.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사업보고회는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을 위해 한 해 동안 만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으나 가장 중요한 보육료 지원은 이뤄지지 않아 행사 시간 내내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한편 앞서 지난 10월 경기도 인권보호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안정적인 보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차별적인 현행 보육정책·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 인권보호관은 보육지원 대상에서 이주아동을 제외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고, 경기도에서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을 해야 하며, 이주아동이 보육기관에 입소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인권보호관은 국적 및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아동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보육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이주아동일지라도 국적에 관계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을 한 후 보육기관에 입소할 수 있다는 것을 각 시군의 보육 담당자 및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 관계자 그리고 이주아동의 부모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 이에 관한 정보와 신청방법 및 서식 등을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에 포함할 것 등을 권고했다.

경기도 내 이주아동 중 43.4%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및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그 이유가 보육료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경기도 보육 조례’에 근거해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주아동의 보육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는 있으나 지원 대상이 일부 어린이집에 그치고 있다. 송하성 기자



미등록 외국인 불법체류 근로 문제, 개선방안 뭘까요?

경기도, 외국인정책포럼 개최 ‘지자체가 나가야 할 방향 고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현재의 외국인정책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알아보는 포럼을 개최했다.

경기도는 지난 12월 18일 오후 2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지자체 외국인 정책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방향을 탐색하는 ‘2019 경기도 외국인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미등록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문제도 정면으로 다뤄 그동안 이 문제를 자신들의 영역이 아니라고 등한시해 왔던 여타 지자체들의 소극적 태도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최근 외국인력(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의 양적 증가와 사회·경제적 영향력 증대 추세에 맞춰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져 시선을 끌었다.

포럼에는 류광열 경기도청 노동국장, 허성철 외국인정책과장,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등 내외빈과 외국인 및 이민 정책분야 학계, 담당 공무원, 외국인지원 NGO 관계자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류광열 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구조가 다양한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어가는데 외국인 인력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고민이 많다”며 “특히 불법체류 문제 등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지혜가 모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의 주제발표는 송인선 (사)경기글로벌센터 대표와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송인선 대표는 ‘지자체의 외국인력 육성형 정책 추진 방안-유학생 활용 숙련노동자 양성 중심’이라는 발표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3D업종에 대한 취업 기피 현상이 분명한데 국내 저소득층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일자리 갈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체류 문제는 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노동자 보다 학생 비자로 들어오는 유학생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일본처럼 일자리 신청부터 입국, 근로와 출국까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체류 중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민간기업이 담당하는 원스톱관리시스템을 고민해 볼만 하다”며 “관리 노동자가 불법체류하는 경우 해당기업이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경기도가 먼저 시범운영하면 어떨까”고 제안했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불법고용·취업관련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국의 현행 고용허가제는 고용주의 허가를 받아야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한 점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불법체류를 양산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불법 체류자가 없이는 한국의 산업이 운영될 수 없다는 말이 있는 만큼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또 “외국인근로자들이 건설현장이나 농촌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설업에서는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농촌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얘기는 없다. 저임금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며 “그 와중에도 경기도가 불법체류 노동자 고용업주의 관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한경대학교 최승범 교수를 좌장으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사)한국이주민복지회 손병덕 대표,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국 김연홍 차장이 토론자로 나서 현재 국내 외국인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진행했다.

이후 포럼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력 관련 이슈에 관해 논의해보는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이날 포럼에 대해 “이제는 국내 인구구조 변화, 체류외국인 증가 추세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외국인 정책 추진방향을 건설적으로 모색해보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ข้อมูลการเลี้ยงดูบุตรในเกาหลีค้นหาข้อมูลเกี่ยวกับประโยชน์ที่ได้รับ 달라진 아동수당 복지혜택 알아보기

เงินสงเคราะห์บุตรคืออะไร?

คุณรู้หรือไม่ว่าในเดือนกันยายน2562ได้มีเงินช่วยบุตรจากรัฐบาลนั้นมอบให้กับเด็กอายุต่ำกว่า7 ปี?

เงินสงเคราะห์บุตรเป็นระบบสวัสดิการที่เปิดดำเนินการตั้งแต่เดือนกันยายน2561และให้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การเจริญเติบโตที่ดี

สำหรับเด็กผ่านการสนับสนุนทางเศรษฐกิจเพื่อสนับสนุนสิทธิขั้นพื้นฐานและสวัสดิการของเด็กเหนือสิ่งอื่นใดเราสนับสนุนผู้ปกครองให้แบ่งปันภาระทางการเงินในการเลี้ยงดูกระทรวงสาธารณสุขและสวัสดิการขยายขอบเขตของระบบที่มีอยู่ให้เด็กที่มีอายุต่ำกว่า7 ปีโดยไม่คำนึงถึงรายได้และความมั่งคั่งเด็กทุกคนที่มีอายุ0-83เดือนมีสิทธิ์ได้รับเงินช่วยการสนับสนุนจากรัฐบาล

หากใครที่มีบุตรอายุต่ำกว่า7ปีนี้คือสวัสดิการที่คุณควรรู้?

เท่าไรในการที่ได้รับ?

เด็กหนึ่งคนได้รับรางวัล100,000วอนต่อเดือนในวันที่25ของทุกเดือนมันอาจจะจ่ายเป็นบัตรของขวัญสำหรับการพิจารณาของรัฐบาลท้องถิ่น

หากคุณสมัครขอรับเงินสงเคราะห์บุตรภายใน60วันรวมถึงวันเกิดหลังคลอดลูกคุณจะได้รับเงินย้อนหลังจากเดือนที่วันเกิดของคุณเกิดหากเด็กอยู่ยาวนานกว่า90 วันหรือหายไปหรือไม่ได้ลงทะเบียนการชำระเงินอาจถูกระงับ

ฉันจะสมัครได้อย่างไร?

คุณ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ได้ทั้งออฟไลน์และออนไลน์ผู้ปกครองเข้าไปติดต่อที่ศูนย์หรือตัวแทนของเด็กไปเยี่ยมชมศูนย์ชุมชนที่อยู่ในท้องถิ่นที่อยู่eupmyeondong (อำเภอ-จุนจินเซ็นเตอร์)สำหรับเด็ก

เมื่อเข้าไปสมัครคุณจะต้องใช้เอกสารบาง

อย่าง▲ประยุกต์ใช้เงินสงเคราะห์บุตร(ใบสมัครที่ศูนย์) ▲บัตรประจำตัวประชาชนและหนังสือเดินทาง▲เมื่อคุณสมัครหนังสือมอบ(ใบที่บ่งบอกว่าคุณมีสิทธิในบุตร)อำนาจโปรดทราบว่าคุณสามารถขอเอกสารเพิ่มเติมได้หากจำเป็น หากคุณสมัครออนไลน์ผู้ปกครองของเด็กเท่านั้นที่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ได้สวัสดิการในการสมัครโดยใช้โซเชียลมีเดียช่วยเหลือสวัสดิการ(복지로) แอปพลิเคชันในมือถือ หากเด็กที่ได้รับเบี้ยเลี้ยงก่อนหน้านี้อายุครบ6ปีหลังจากวันเกิดของเขาหรือเธอการจ่ายเงินนั้นหยุดลงก็ถือว่าพวกเขาได้สมัครแล้วและ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ได้อีกครั้งโดยไม่ต้องสมัครแยกต่างหาก

〈한글 기사 18면, 중국어 24면, 베트남어 48면〉

이아리 기자



외국인주민을 위한 생활법률상식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얼마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2018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의하면 2018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2,367,607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약 4.6%를 차지한다. 이 중 외국인 등록을 하였거나 외국국적동포로 거소신고를 한 장기 체류 외국인은 1,687,733명, 90일 이내로 국내에 체류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679,874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5.2%로 가장 많고, 태국이 8.4%로 두 번째, 베트남 8.3%, 미국 6.4%, 우즈베키스탄,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순이다.

일상에서 체감하는 외국인의 숫자와는 다소 다를 수 있으며, 특히 태국과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 생각보다 많아 놀란 분들도 있을 듯하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영향으로 2015년까지는 중국의 뒤를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다가 2016년에 세 번째, 2017년부터는 네 번째에 이르렀다. 반대로 태국은 흔히 무비자라고 하는 사증면제(B-1)로 한국에 입국이 가능하며, 2016년까지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 세 번째, 2018년에는 중국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체류자격별로 살펴보면 재외동포(F-4) 18.8%, 비전문취업(E-9) 11.8%, 중국 및 구소련 지역의 동포들이 취득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10.6%로 동포들이 29.4%를 차지하며, 의외로 결혼이민(F-6)은 5.3%로 영주(F-5) 6.0%보다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배우자로 영주자격을 소지한 사람(F-5-2)이 31,411명, 최근 10년 동안 결혼이민(F-6)에서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89,909명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결혼이민자의 숫자는 방문취업(H-2)과 비슷해진다. 결혼이민자의 국적은 중국 36.9%, 베트남 26.7%, 일본 8.6%, 필리핀 7.2%, 캄보디아 2.8% 순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비율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2월 1일자 다음 시간에는 결혼이민(F-6) 현황과 사증 발급에 관해 살펴보겠다.



Số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cư trú tại Hàn quốc là bao nhiêu?

Theo con số ‘thống kê về chính sách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của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thuộc Bộ tư pháp năm 2018’, trong năm 2018 con số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cư trú tại Hàn quốc là 2,367,607 người chiếm 4,6% trong tổng số người dân tại Hàn quốc. Trong số đó có đến 1,687,733 người đã đăng ký thẻ cư trú cũng như kiều bào đang định cư dài hạn từ trên 90 ngày và 679,874 cư trú ngắn hạn dưới 90 ngày. Căn cứ theo quốc tịch 45.2% người có quốc tịch Trung quốc, Thái lan 8.4%, Việt nam 8.3%, Mỹ 6.4%, sau đó lần lượt theo thứ tự là Uzbekistan, Nhật bản, Phillipin, Indonesia, Campuchia.

Trong cuộc sống hàng ngày của chúng ta, số người nước ngoài chính thức đang định cư tại hàn quốc có thể có mộ số thay đổi, đặc biệt, số lượng người nước ngoài mang quốc tịch Thái lan và Mỹ rất nhiều khiến ta cảm thấy bất ngờ về điểm này. Do ảnh hưởng của quân đội Mỹ, theo số liệu thống kê năm 2015 thì nước Mỹ đứng thứ 2 sau Trung quốc, năm 2016 đứng thứ 3, từ năm 2017 đứng thứ 4. Trái lại, Thái lan là quốc gia

được miễn thị thực và có thể nhập cảnh theo visa B-1, cho đến năm 2016 số lượng người dân Thái lan cư trú tại Hàn quốc đứng thứ 4, chiếm tỷ lệ tương đối cao nhưng những năm gần đây đang có dấu hiệu tăng lên cụ thể năm 2017 đứng thứ 3, năm 2018 chỉ đứng sau Trung quốc.

Căn cứ theo loại visa nhập cảnh, chúng ta sẽ có được thông số như Kiều bào(F-4) 18.8%, Lao động phổ thông(E-9) 11.8%, Kiều bào Trung quốc và Nga có thể nhập cảnh và lao động tại Hàn quốc với visa lao động chuyên (H-2) 10.6%. Như vậy kiều bào chiếm 29.4%, trái lại visa kết hôn(F-6) chỉ chiếm 5.3% và quyền định cư vĩnh viễn (F-5) chỉ chiếm 6.0%, đây là một con số tương đối thấp. Nhưng vợ(chồng) của người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F-5-2) lên đến 31,411 người, trong 10 năm gần đây nhất số người có được quốc tịch Hàn quốc thông qua kì thi lấy quốc tịch dành cho vợ(chồng-(F-6)) người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vào khoảng 89,909 người. Như vậy nếu tính đúng ra thì số người nước ngoài kết hôn với chồng(vợ) người Hàn quốc gần ngang với con số kiều bào(H-2)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để lao động. Có đến 36.9% người mang quốc tịch Trung quốc kết hôn và định cư tại hàn quốc, Việt nam chiếm 26.7%, Nhật bản 8.6%, Phillipin 7.2%, Campuchia 2.8%.

Ngày 1 tháng 2 tới chúng ta sẽ cùng nhau tìm hiểu về tình hình cấp visa kết hôn(F-6) nhé.



在韩国生活的外国人，有多少？

根据法务部出入境外国人政策本部的《2018出入境外国人政策统计年报》，2018年在韩国滞留的外国人有2367607名，约占韩国人口的4.6%。其中，登记为外国人或以外籍同胞进行居所申报的长期滞留外国人1687733人，滞留在90天以内的短期滞留外国人679874人。从国籍来看，中国最多，占45.2%，其次是泰国(8.4%)，其后依次为越南(8.3%)、美国(6.4%)、乌兹别克斯坦、日本、菲律宾、印度尼西亚、柬埔寨。

这与日常生活中感受到的外国人数量多少会有所不同，特别是泰国和美国国籍的外国人比想象的要多，因此可能有人会觉得吃惊。受驻韩美军的影响，美国在2015年之前排名中国之后的第二位，到2016年第三位，2017年第四位。与此相反，泰国经常被称为免签证的免签证(B-1)进入韩国成为可能，截至2016年排在第四位，但最近呈现增加趋势，2017年第三、2018年将排在中国之后。

从滞留资格来看，在外同胞(F-4)占18.8%，非专门就业(E-9)占11.8%，中国及前苏联地区的同胞能够取得的访问就业(H-2)占10.6%，同胞占29.4%，意外地，结婚移民(F-6)为5.3%，低于英州(F-5) 6.0%。但是作为国民的配偶，拥有永住资格的人(F-5-2)有31411名，最近10年结婚移民(F-6)得到入籍许可后取得韩国国籍的人有89,909名，考虑到这一点，我们通常想到的结婚移民者人数与“访问就业”(H-2)相似。结婚移民者的国籍依次为中国36.9%、越南26.7%、日本8.6%、菲律宾7.2%、柬埔寨2.8%，与全体滞留外国人的比率略有差异。

在2月1日的第二天时间里，将观察结婚移民(F-6)的现状和签证发放相关事宜。

이은혜 변호사는 사단법인 아시아의 창에서 다문화가족과 이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동천은 지난 12월 이주여성과 아동 권익 향상에 기여한 ‘사단법인 아시아의 창’에 태평양공익인권상을 수여한 바 있다

- ကျောင်းတွင်း အကြမ်းဖက်မှုများကို ကာကွယ်ရန်၊ မြေပြင်ရန် နှင့် အခိုင်ကုန်သွင်း နှင့် အခိုင်ကုန်ဒ်ရသမျှများ ကြား မြေပြင်ရန်စသည့် ကော်ပင်းတွင်းအကြမ်းဖက်မှုများအတွက် တာဝန်ရှိသည့် ကျောင်းအကြမ်းဖက်မှုဆန့်ကျင်ရေး အသေခံရသူတစ်ဦး၏ ကိုယ်ကျော်တော်တော်ကို ကျောင်းတိုင်းက ဖွဲ့စည်းအသေးစားပါသည်။
- ကျောင်းသားတစ်ယောက် အခိုင်ကုန်ဒ်ရပါက ဝိဇယာ(သို့မဟုတ် အုပ်စိုးရိမ်သမျှများ)သည် ကျောင်းအကြမ်းဖက်မှုဆန့်ကျင်ရေး အထူးအဖွဲ့အစည်းတိုင်း ကလေး၏အတန်းပိုင်းဆရာတစ်ဆင့်သော်လည်းကောင်း၊ ကျောင်းအကြမ်းဖက်မှုဆန့်ကျင်ရေး အသေခံရသူတို့၏ ထံသို့ တိုက်ရိုက်သော်လည်းကောင်း တိုင်ကြားနိုင်ပါသည်။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외국인주민 교육생과 그 가족 한국어 강사와 외국인주민 교육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월 22일 ‘2019년 외국인주민 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은 오후 2시부터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3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됐으며, 한국어 교육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 교육 동포인식개선 강사 양성교육에 성실히 참여한 교육생들의 합격과 수료를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모범교육생과 교육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으로 진행돼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이 됐다.

안산시가 ‘청소년 동포인식개선 사업’을 위해 개설한 ‘2019년 동포인식개선 강사 양성과정’에 참여한 고려인

동포 김안나 교육생은 “아버지는 사할린동포 2세 어머니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3세로 교육과정을 통해 조부모 부모님의 삶을 알게 됐고 동포의 형성과정을 강의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한국역사와 러시아 역사 사이에서 동포이주역사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올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교육에 참여한 수료생들과 언어가 각기 다른 교육생을 제자로 맞아 정성껏 가르쳐주신 강사들께 감사하다”라면서 “내년에도 더욱 알찬 양질의 교육으로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올 상반기 안산형 디딤돌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취업을 고민하는 다문화가족이라면 안산시(시장 윤화섭)의 ‘2020년 안산형 디딤돌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보자.

안산시는 신중년의 재취업 등 민간 일자리 촉진을 위한 ‘2020년 안산형 디딤돌 일자리 사업’ 상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 관련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으나 경력단절, 실전 업무 미경험 등으로 전문 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신중년을 대상으로 ‘우리마을 일상생활 매니저 사업’ 등 4개 사업에서 총 100명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며 신분증, 주민등록초본과 관련 자격증 사본을 지참해 안산시청 대회의실(민원동 2층)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종합격자는 서류전형을 거쳐 면접심사로 선발되며, 2월 18일 안산시 홈페이지 시정안내 고시/공고를 통해 게시된다.

선발자는 내년 2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콜센터(1666-1234)로 문의하면 된다.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하는 다문화가족이라면 한국어학습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 더해 지역사회의 일자리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해 볼 필요가 있다.

김영의 기자

ข้อมูลการจ้างงานครอบครัวเกาหลี-ไทย,คู่มือการสัมภาษณ์องค์กร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

다문화가족 취업정보, 외국인주민을 위한 기업 면접 방법 안내

การสัมภาษณ์ถูกออกแบบมาเพื่อช่วยให้บริษัทกำหนดความเหมาะสมของการทำงานของผู้สมัครการหาจำนวนผู้สมัครที่เหมาะสมกับบริษัทและงานของเราไม่ใช่เรื่องง่ายในระยะเวลาอันสั้นเพื่อรับมือกับความท้าทายนี้บริษัทหลายแห่งได้นำวิธีการสัมภาษณ์ที่หลากหลาย (PT การอภิปรายสถานการณ์ ฯลฯ) และผู้สัมภาษณ์ทดสอบคุณสมบัติของผู้สมัครผ่านคำถามที่หลากหลาย

1. ความเหมาะสมกับงาน

เมื่อผู้สมัครเข้าสู่บริษัทงานคืองานของพวกเขา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ในการปฏิบัติงานให้ดีเป็นสิ่งจำเป็นเราประเมินความพร้อมของคุณสำหรับการทำงานของคุณโดยการพิจารณาการสัมภาษณ์ของคุณ (การรับความรู้ที่เกี่ยวข้อง) การได้รับใบรับรองและการฝึกอบรมที่สมบูรณ์

2. ความเหมาะสม

บริษัทและแผนกต่างๆมีบรรยากาศและ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ที่แตกต่างกันพนักงาน,สำนักงานและพนักงานอาจมีบรรยากาศที่แตกต่างและสไตล์การทำงานที่แตกต่างซึ่งจะประเมินความ

เหมาะสมของงานนั้นๆ

3. การปฏิบัติความเข้ากันได้

บริษัทลงทุนอย่างหนักในกระบว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รวมถึงการฝึกอบรมและพนักงานใหม่หลังจากเข้าร่วมเป็นพนักงานใหม่จะเพิ่มค่าใช้จ่ายและเวลาที่บริษัทใช้ในการสรรหาพนักงานหากพนักงานใหม่ออกจากบริษัทจากการจ้างงานเพื่อการฝึกอบรมบริษัทจะต้องทำซ้ำขั้นตอ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และการฝึกอบรมหลังจากเข้าร่วมบริษัทดังนั้นคุณควรตรวจสอบว่าคุณเป็นผู้สมัคร

ที่สามารถมีส่วนร่วมร่วมกับบริษัทของคุณเป็นเวลานานโดยการถามคำถามเกี่ยวกับวิธีที่คุณมีปัญหาในการทำงานของคุณในระหว่างการสัมภาษณ์ถามตัวเองเพื่อยืนยันความตั้งใจของคุณและว่าคุณมีวิสัยทัศน์ระยะยาวหรือไม่

4. ขั้นตอนการสัมภาษณ์

การพบกันครั้งแรกกับผู้สัมภาษณ์เริ่มต้นด้วยการโทรเพื่อนัดสัมภาษณ์ต้องใช้ความความสุภาพควรระมัดระวังในวันสัมภาษณ์ผู้สมัครควรเข้าร่วมการสัมภาษณ์โค้งคำนับ

เบาและไปที่ที่นั่งของพวกเขาผู้สัมภาษณ์มักแนะนำตัวเองสั้นๆและอธิบายว่าพนักงานจ้างงานอะไร

ผู้สัมภาษณ์จะตรวจสอบประวัติส่วนตัวและจดหมายของคุณและถามคำถามเกี่ยวกับ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ของคุณ

ผู้สัมภาษณ์ควรตอบคำถามโดยใช้ประสบการณ์ที่เฉพาะเจาะจงเพื่อทำความเข้าใจความตั้งใจของคุณและให้โดดเด่นที่สุดเท่าที่จะทำได้ผู้สมัครควรทบทวนคำถามที่คาดหวังต่างๆและเตรียมคำตอบเฉพาะก่อนที่จะมาสัมภาษณ์

การสัมภาษณ์จบลงด้วยคำสุดท้ายหรือตอบคำถามของผู้สมัครผู้สัมภาษณ์จะบอกคุณเกี่ยวกับกำหนดการที่จะมาถึงเมื่อจะมีการส่งผลลัพธ์และขอบคุณสำหรับการเข้าร่วมของคุณอาจมีบางปัจจัยการประเมินผลจนถึงจุดสิ้นสุดดังนั้นควรระมัดระวังและพูดว่า"ขอบคุณ"คุณโค้งคำนับให้หลังของคุณและออกจากห้องสัมภาษณ์

〈한글 기사 6면, 베트남어 26면, 일본어 5면〉

이아리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1666-1234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1644-7111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599-1700
안산글로벌청소소년센터 031-599-1770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031-364-570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글로벌비전센터 070-8600-8040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 031-413-3106 원국보건지소(외국인 진료) 031-481-3606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031-481-266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은이)는 지난 12월 17일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시흥지점(지점장 김석빈) 후원으로 ‘꿈을 연주합니다’ 꿈주 트럼펫터의 작은 음악회를 진행했다.

이번 음악회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시흥지점 김윤성 차장, 강은이 센터장, 꿈주 트럼펫터 단원 가족 및 지인 30여 명이 참석해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강은이 센터장은 “꿈주 단원들이 트럼펫 연주를 통해서 자신감과 협동심을 기르고 더 나아가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꿈주 단원들은 트럼펫과 피아노 합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곡을 시작으로 솔로곡 6곡, 합주곡 2곡 등 다양한 곡을 연주해 가족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았다. 특히

마지막 순서로 조민정 강사의 클라리넷 연주가 특별한 순서가 펼쳐져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시흥지점 김윤성 차장은 “단원들의 트럼펫 연주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울리는 연주였고, 앞으로도 꿈주 트럼펫터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꿈주 트럼펫터’는 시흥지역의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초등학교 단원으로 구성되어, 참여단원들의 음악적 재능 향상과 자신감 및 소통 능력 증진을 위해 연간 매주 연습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시흥지점(지점장 김석빈)에서는 꿈주트럼펫터 지원금으로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트럼펫 악기 6대를 지원하여 더욱 깊이 있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었다.

김영의 기자

'2019년 시흥형 온종일 돌봄 성과공유회' 개최



시흥시는 지난 12월 18일 ‘2019년 시흥형 온종일 돌봄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시흥시는 지난 1년여 동안의 사업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유공자 표창 수여, 아동들의 재능발표 등을 통해 2019년 시흥형 온종일 돌봄에 함께 한 이들과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최된 2019년 시흥형 온종일 돌봄 성과공유회에서는 돌봄 운영자와 관계자, 아동 및 학부모,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아동들은 그동안 돌봄센터와 돌봄나눔터에서 배워온 방승댄스, 합창, 중국어 등을 장기자랑으로 선보여 돌봄선생님과 부모님들한테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돌봄 정책 희망 메시지 작성을 통해 돌봄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참여한 시민들은 돌봄 공간의 확충과 함께 돌봄 선생님들의 노고에도 감사함을 표시했다.

김영의 기자

多文化家庭生活法律信息,取得国籍,驾照,邀请亲属

(提问1)外国人和韩国国民结婚的话,会立即取得韩国国籍吗?

(答1)如果外国人与韩国国民结婚并在韩国居住,就可以取得韩国国民的配偶地位,但并不意味着立即取得韩国国籍。

但是,和韩国国民的配偶合法登记结婚后在韩国居住2年或3年后居住1年的外国人,可以通过简易归化取得韩国国籍。

◇简易归化的需要的条件

▲和国民的配偶结婚的状态▲在韩国继续居住▲在韩国的民法上是成年(19岁)▲品行端正▲有生活能力▲韩国国民具备基本素质

◇申请简易入籍许可

与韩国国民配偶进行婚姻登记并过着正常婚姻生活的外国人要想申请简易入籍许可,只要在入籍许可申请书上附加能够证明是外国人的文件,提交给出入境、外国人事务所所长、出入境、外国人厅, 出差场所或出入境、外国人事务所出差场所负责人即可。

(提问2)经有了本国的驾驶证,要想取得韩国的驾驶证,还需要再考一遍吗?

(答2)在韩国,驾驶机动车必须经过公认的考试,取得驾驶执照。但是,如果有在本国已经取得的驾驶证,可以免试一部分。另外,外国人在本国获得国际驾照的时候,自来到韩国之日起一年内,没有韩国的驾照也可以驾驶。

◇免除驾照考试

参加驾驶证考试的外国人▲在韩国登记的人▲外国人登记或者被免除的人▲作为在外同胞在国内进行居所申报的人,取得外国驾驶证的人,可以免除部分考试。

◇凭国际驾照驾驶

获得国际驾照的人,即使不领取韩国的驾照,自进入大韩民国之日起一年内,凭国际驾照就可以驾驶汽车等。

(提问3)结婚移民者想要邀请在国外的父母或亲戚怎么办?

(答3)在外国的结婚移民者的家人和亲戚如果想访问韩国,需要签证(VISA)。如果是这样,可以直接向该国的驻

外公馆(韩国大使馆)申请签证。但外国国籍同胞可以向韩国出入境管理事务所申请对想要邀请其家属的签证签发认定书(编号)。签证签发后将签证号码告诉父母或亲属,由该国驻外使馆在申请签证时提交。

◇签证入境

一般来说,观光或以亲地方的身份入境时,得到可以停留3个月的短期访问(C-3)资格签证。申请短期访问(C-3)签证时,事先从在韩国的外国人那里收到邀请函及身份担保书(指在韩国进行公证)等能够证明访问目的的文件,如果在申请签证时一起提交,就能更容易得到签证。但如果以照顾子女为由邀请父母参加,就更容易得到签证,可以长期停留。

◇签证签发认定书(编号)入境

原则上,想要进入大韩民国的人必须亲自申请签证,但与大韩民国国民结婚的外籍同胞在取得韩国国籍之前,为邀请拥有抚养权的未成年子女,可以向滞留地管辖的出入境管理事务所申请签证发放批准号码。

〈한글 기사 37면〉 왕그나 기자



“다문화가족 한국생활, 자조모임으로 소통하고 행복한 삶 만들어요”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능곡분관, 2019년 다가온 자조모임 전체평가회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능곡분관은 지난 12월 14일 오후 1시 ‘2019년 다가온 자조모임 전체평가회’를 열고 지난 한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가온 자조모임은 ‘해피몽골’, ‘베트남 이중언어교육’, 다국적으로 구성된 ‘가온누리’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날 그룹 자조모임별 소개에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사업들과 2020년 사업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해피몽골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몽골 음식 만들어 먹기, 몽골전통영화관람, 여성의 날 행사 몽골 결혼이주여성들만의 행복한 시간, 자녀들에게 선물꾸러미 전달, 다문화 합동결혼식 참석 등 다

양한 활동 등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피몽골 자조모임 회원들은 지난 활동 중 가족을 위한 마사지 팩 만들기는 자조모임 활동으로 접해보지 못해 신선하게 느꼈다며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회원자녀 돌잔치에 참석해 내일처럼 축하해 준 것과 다문화합동결혼식에 가족과 하객으로 참여한 점 등을 설명하며 “앞으로도 가족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활동 한 베트남 이중언어 자조모임 풍티화 대표는 “아빠나라, 엄마나라 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함으로써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가족 환

경을 만들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체성 확립과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 모임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자조모임별 소개 후에는 지난해 7월 개소한 다가온 개소식 영상시청 및 자조모임별 사업보고와 영상시청 등이 이뤄졌다. 또한 자조모임 가족사랑 문화프로그램으로 크리스마스 ‘머핀 컵케익 만들기’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몽골 출신 이슬기 씨는 “평일에는 일을 하다 보니 가족과 같이하는 시간이 별로 없는 데 주말을 이용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 좋다”라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더 재미있게 참여한 것 같다”고 말했

다.

태국 출신 아내와 한 참가자는 “센터에서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친다고만 생각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좋다. 특히 부인도 자국에서 접하지 못한 프로그램들이라 신나고 즐겁게 참여하고 있어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송년회 대신 다가온 자조모임 전체평가회를 하게 됐는데 참여 가족들이 만족스러워하셔서 좋다”라며 “자조모임을 통해 한국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해 소통하고 경험을 나누며 좀 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영의 기자



시흥시 스마트어브염색단지 미세먼지 저감 및 악취개선 추진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염색조압, 시화염색단지 악취저감 업무협약 체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6일 시흥스마트어브 염색단지 악취개선을 위해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와 시화폐선칼라사업협

동조합(염색조합) 간 악취저감 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스마트어브 내 악취로 민원 발생이 많았던 염색단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 염색단지 내 기존 흡수에 의한 시설을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연구한 백연제거 검증시설로 개선함으로써 주거지역 민원해소와 시화 MTV 주거지역 민원

사전예방 등 도시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시흥시는 스마트어브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염색조합 간 시화염색단지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대기개선특별대책 로드맵 사업비 40억 원을 출연받아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염색단지 28개 업체에 염색 다림

질 공정 백연 및 악취저감기술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3개 기관이 미세먼지저감 및 악취개선을 위해 염색단지 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첫 시작으로 염색단지 내 미세먼지저감 기술을 확대하고 악취를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외국인주민, 1년간 갈고닦은 솜씨 뽐내고 수료식으로 마무리해요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2019년 수료식 및 외국인주민 한국어말하기대회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종교)는 지난 12월 15일 시흥비즈니스센터 2층 컨벤션홀에서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시흥시 여성가족과 관계자와 운영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9년을 마무리하고 그동안 노력해 온 실력을 발휘하는 자리로써 외국인주민 한국어 말하기 대회 및

다채로운 문화동아리 공연이 펼쳐졌다.

이날 수료식은 중도입국 청소년 학생들의 사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영어 동아리의 팝송 합창, 태권도 동아리 격파 및 품새, K-POP을 배경으로 한 댄스 동아리 공연, 기타 동아리 연주로 진행됐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8명의 참가자가 발표를 진행했으며, 3명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 심사 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3명의 참가자가 시상식에 올랐으며 우수상 및 장려상은 캄보디아 출신 참가자가, 최우수상은 중국 출신의 참가자가 수상의 영예를 가졌다.

이종교 센터장은 “이번 수료식은 함께 한 노력이 헛되지 않게 준비한 결과들을 보여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외국인주

민과 수업에 열의를 다한 강사들 그리고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수료자는 한국고실 200명, 중도입국 청소년으로 구성된 시흥국제청소년학교 수료자 30명으로 이번 수료식을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육아정보, 달라진 아동수당 복지혜택 알아보기



아동수당이 무엇인가요?

지난 2019년 9월, 아동수당의 지원대상이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복지 제도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들에게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함께 나누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제도에서 영역을 넓혀 소득, 재산과 관계 없이 만 7세 미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0~83개월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복지혜택이 되겠죠?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아동 1명에게 매월 25일 10만원 씩 현금 지급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아동 출생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하며 주말과 공휴일의 경우에는 부득이 그 전일에 지급될 수 있으니 참고합니다. 만약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 및 거주불명 등록인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오프라인 방문 혹은 온라인을 통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부모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합니다.

방문 신청을 할 시에는 몇 가지의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동수당 지

급 신청서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포함한 신분증 ▲대리 신청시에는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혹은 보호자의 신분증 이 밖에도 필요시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아동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복지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신청합니다.

기존에 수당을 지원받던 아이가 생일이 지나 만 6세가 되면서 수당지급이 중단되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이미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재신청 없이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어 24면, 베트남어 48면, 태국어 12면〉 이지은 기자

PM2019-36

សាលារៀននៅប្រទេសកូរ៉េត្រូវបាន បើកចំហរសម្រាប់អ្នកទាំងអស់គ្នា

តើនៅក្នុងផ្ទះរបស់អ្នកមាន កុមារអាយុចាប់ពី៦ឆ្នាំ ដល់១៧ឆ្នាំដែរឬទេ?

តើនៅក្នុងផ្ទះរបស់អ្នកមានកុមារអាយុចាប់ពី៦ឆ្នាំ ដល់១៧ឆ្នាំដែរឬទេ? បើដូចជា្នោះមែន កូនរបស់អ្នកនឹង ទទួលបានការសិក្សាក៏ស្របគ្រប់គ្រាន់ណាស់ទៅសាលាដែរ។ អ្នកគួរតែបញ្ជូន កូនរបស់អ្នកទៅសាលារៀន ដើម្បីឲ្យពួកគេចេះចំណេះដឹងយ៉ាងជ័យជំនះទៀត។ សូមទទួលការស្វាគមន៍ចំពោះកូនរបស់អ្នកនៅសាលារៀននៅក្រុមផ្ទះរបស់លោកអ្នក ឥឡូវនេះ។

Q តើមនុស្សប្រភេទណា អាច ចូលរៀននៅសាលាបាន?

☞ អ្នកទាំងអស់គ្នាអាចទៅសាលារៀនបាន ដោយមិនប្រកាន់ អំពី ពូជសាសន៍ ពណ៌សម្បុរ សញ្ញាភូមិ ឬ និរន្តរភាពជាដើម។
យើងផ្តល់ការអប់រំ ឲ្យបានស្មើគ្នា ដល់អ្នកទាំងអស់គ្នា។

Q ដើម្បីឲ្យកូនចូលរៀននៅសាលាបាន តើត្រូវការឯកសារអ្វីខ្លះ?

☞ ① គឺត្រូវការឯកសារ ដែលបញ្ជាក់ថា អំពីការចុះបញ្ជីអាជ្ញាប័ណ្ណបំប៉ន ឬបទដ្ឋាន
✳️ ប្រសិនបើប្រពន្ធគ្មេងឯកសារនេះទេ អ្នកអាចជំនួសដោយឯកសារ ដែលបញ្ជាក់ពីលំនៅដ្ឋាន របស់ អ្នកបាន
② ត្រូវការ ឯកសារបញ្ជាក់អំពីអំពីតំបន់នៃការសិក្សាពីបញ្ហាបទប្បញ្ញត្តិរបស់ក្រុមប្រឹក្សាសិក្សា, វិញ្ញាបនបត្រចុះឈ្មោះ, ប្រព័ន្ធប្រព័ន្ធខ្នា។)
ឯកសារដែលត្រូវការ អាចនឹងប្រែប្រួលទៅតាមសាលារៀននីមួយៗ។ ប្រសិនបើគ្មានឯកសារ បញ្ជាក់អ្វីក៏ដោយ សូមពិគ្រោះយោបល់ អំពីការទៅសាលារៀន នៅសាលារៀនឲ្យកូនរបស់លោកអ្នក។

Q តើមានបញ្ហាអ្វីដែរឬទេ ប្រសិនបើកូនរបស់ខ្ញុំមិនអាចនិយាយភាសាកូរ៉េបាន?

☞ ថ្នាក់ភាសាកូរ៉េ អាចមានសម្រាប់កុមារៗដើម្បីទទួលបានការសិក្សាយ៉ាងខ្លាំងជាភាសានិងវប្បធម៌កូរ៉េ ដើម្បីបង្កើនការយល់ដឹងកាន់តែច្រើនឡើងអំពីភាសានេះ។ ដោយសារការសិក្សាភាសាកូរ៉េ ត្រូវបានផ្តល់ជូនផងដែរនៅសាលារៀននានា ដែលមិនមានថ្នាក់បង្រៀនភាសាកូរ៉េនោះ។ សូមទាក់ទងសាលារៀនរបស់អ្នកដើម្បីស្វែងយល់ពីវិធានបទនៃការទៀត។

< ប្រព័ន្ធសាលារៀន នៅប្រទេសកូរ៉េ >

សាលាមធ្យម/ ផ្ទះបឋមក្រុង
២-៣ឆ្នាំ

សាលា
បឋមក្រុង
៦ឆ្នាំ

អនុវិទ្យាល័យ
៣ឆ្នាំ

វិទ្យាល័យ
៣ឆ្នាំ

ការអប់រំជាតិកាតព្វកិច្ច ផ្តល់ជូនការបណ្តុះបណ្តាល ដោយមិនគិតថ្លៃ

☞ នៅប្រទេសកូរ៉េ ធនាគារមិនត្រូវបានចាប់ផ្តើមនៅទី មីតា, ធនាគារមិន ចាប់ផ្តើមនៅទី សិហានិង នៃកញ្ញា, សិក្សា ជិត ក្នុងមួយសប្តាហ៍។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국립평생교육진흥원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중앙대학교 교육센터
Yonsei University Education Center

Les écoles de Corée ouvertes à tous !

Vous avez un enfant ayant entre 6 et 17 ans ?
Si tel est le cas, envoyez-le à l'école pour qu'il bénéficie de toute l'excellence
de l'enseignement coréen et qu'il apprenne à se mêler à d'autres enfants de son âge.
**Rendez-vous dès maintenant dans une école proche de chez vous
pour être conseillé sur la scolarisation en Corée.**



Q Qui peut aller à l'école ?

« Tout enfant est le bienvenu à l'école, et ce quel que soit son titre de séjour.
Tout le monde a le droit à la même éducation.

Q De quels types de documents j'ai besoin pour l'inscription ?

« ① Vous aurez besoin d'un document attestant de l'enregistrement sur le
registre des étrangers en Corée ou d'un justificatif de l'entrée sur le territoire.
※ Cela peut être remplacé par un justificatif de domicile confirmant que vous vivez bien en Corée.
② Vous aurez aussi besoin de documents attestant de la scolarisation passée de votre enfant
(certificats de fin d'études, certificats de scolarité, bulletins de notes).

Les documents demandés pouvant varier d'un établissement à l'autre, demandez conseil sur les procédures
d'inscription directement auprès d'une école proche de chez vous, même si vous n'avez pas les documents
ci-dessus.

Q Ce n'est pas un problème si notre enfant ne parle pas coréen ?

« Il existe pour votre enfant des 'Classes de langue coréenne' qui proposent un enseignement intensif
sur la langue et la culture de Corée jusqu'à ce qu'il se soit familiarisé avec le coréen.
Vous pouvez demander conseil sur comment trouver ces classes de langue même dans les écoles
qui n'en proposent pas.

< Le système scolaire coréen >



Crèche /
Maternelle
2-3 ans

Primaire
6 ans

Collège
3 ans

Lycée
3 ans

Obligatoire et gratuit

※ En Corée, le 1^{er} semestre commence début mars et le 2^e semestre en août ou en septembre.
Les écoles respectent la semaine de 5 jours.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국가평생교육진흥원
National Institute of Living Education

 중앙교육진흥연구소
Korea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

- 2019. 12. 11.부터 새로운 자진출국제도 시행 -

불법체류 외국인이 2016년 21만명에서 2019년 10월말 현재 38만명으로 급증하여 취약계층 국민의 일자리 잠식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자진출국 시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의 자진출국이나 단속된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새로운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19. 12. 11.부터 2020. 6. 30.까지 자진 출국 시 재입국 기회 부여

- 범칙금 처분 및 입국금지 면제
- 자진출국자에게 “자진출국 확인서” 발급, 일정기간 경과 후 단기방문(C-3, 90일) 단수 비자를 발급하여 재입국 기회 부여
- 고용허가제(E-9) 구직자 명부 등재를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기회 부여
- 요건을 갖춘 경우 계절근로자, 어학연수, 기업투자 등 비자 발급 기회 부여
- 단기방문(C-3, 90일, 단수) 비자로 재입국하여 체류기간 내 위반사항 없이 출국 시 유효기간 1년의 단기방문(C-3, 90일) 복수 비자 발급 가능
- 단, 하이코리아(hikorea.go.kr)를 통해 체류자를 신고해야 함

2020. 7. 1.부터 자진 출국 시에도 범칙금 부과. 미납 시 입국금지

- 2020년 7월 이후 3개월 간은 원 범칙금액의 30%, 그 이후에는 50% 부과
-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입국금지 면제, 범칙금 미납 시 2020년 7월 이후 3개월간은 입국금지 1~10년 적용, 그 이후에는 3~10년 적용

2020. 3. 1.부터 단속될 경우 범칙금 부과. 미납 시 영구 입국금지

-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입국금지 6개월~1년 적용, 범칙금 미납 시 영구 입국금지

〈범칙금 부과 기준〉

위반기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범칙금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불법고용·취업, 근무처 변경 절차 미이행 등 자진신고기간 운영

- 중소 제조업체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 (2020. 3. 31.까지)
- (신고대상) 불법체류 외국인(3개월 이상 근무) 고용 사업주 및 해당 외국인
- (혜택) 사업주와 외국인은 범칙금 처분 면제,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 면제, 외국인은 한시적(3개월) 체류 허용 및 재입국 기회 부여
- 농·어촌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 (2020. 1. 15.까지)
- (신고대상) 농·어촌 계절근로분야에서 불법체류·취업하고있는 외국인 및 고용주
- (혜택) 사업주와 외국인은 범칙금 처분 면제, 외국인은 지자체 추천을 받고 자진출국하는 경우 합법적인 계절근로 기회 부여
- 근무처 변경 등 절차 미 이행 자진신고제 (2020. 3. 31.까지)
- (신고대상)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원래 부여된 체류기간 내에는 있으나, 사업장 변경 승인 등 행정절차 미 이행 외국인 및 사업주
- (혜택) 사업주는 원 범칙금액의 30% 부과,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 면제,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은 원 범칙금액의 30% 부과, 방문취업(H-2) 외국인은 취업개시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고 외국인은 종전 사업장에 계속 근무를 허용하고, 본인이 원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구직 알선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 없이) ☎ 134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이주민 공동체대표 활발한 활동

외국인주민 공동체 대표 감사의 밤 개최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종교)는 지난 12월 22일 외국인복지센터 및 물왕동에서 2019 외국인주민 공동체 대표 감사의 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9년 외국인주민 공동체 대표로 활약한 20명을 모시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마련됐으며,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훈격: 시장) 수여도 함께 진행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표창 수여자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다년간 활동하며 자국 공동체 회원의 한국 생활 정착을 돕고 센터에서 활발히 봉사활동을 한 네팔공동체 회장 서필바스넷 쿠마 씨와, 2017년부터 현재까지 몽골공동체를 규합하고 발족하는데 협조

며 투철한 사명감과 리더십으로 공동체 활동에 봉사해 온 몽골공동체 회장 어츠 빌렉 씨에게 수여됐다.

표창을 받은 공동체 대표는 “한국에 먼저 온 고향 선배로서 도왔을 뿐인데 이렇게 표창장까지 받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시흥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주민들의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2020년에는 외국인주민 공동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시흥시 외국인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다양성이 존중받는 시흥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안전한 정왕본동 만들기 활동

외국인자율방범대와 한국마사회 함께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성창열)는 지난 12월 11일 저녁 9시 정왕어린이도서관 앞 광장에서 외국인 자율방범대에 필요한 물품 전달식을 진행하고 대원들과 함께 관내 순찰을 했다.

한국마사회 시흥지사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600만 원으로 외국인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컴

퓨터와 방한복 57개를 구입했고, 이날 전달식을 하게 된 것이다.

외국인자율방범대는 외국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시흥에서 유일한 자율방범대다. 매주 수요일 40여 명의 대원이 참여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정왕본동의 범죄예방 캠페인과 순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외국인자율방범대 수바칸 대장은 “사무실 하나 제대로 없이 활동하는 방범대원들을 위해 직접 사무실을 임차해 운영중인데, 정말 필요한 물품이 전달되어 감사하다”라며 “앞으로 안전한 정왕본동을 만들기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장현희망공동육아나눔터 개소식'

맛별이 다문화가족에도 도움 될 듯



어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이라면 이번에 새로 문을 연 '시흥 장현희망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해보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12월 18일 가족 모두가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한 '시흥 장현희망공동육아나눔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개소하는 장현희망공동육아나

눔터는 시흥시 12번째 나눔터로 신한금융그룹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시설이다.

신한금융그룹의 저출산 자녀를 위한 맛별이 가구 자녀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리모델링이 진행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장현 행복주택 내 공간을 20년간 무상 제공함으로써 시흥시가 해당 공간을 인수해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 운영하게 됐다.

한편 시흥시는 이번에 개소한 '장현희망공동육아나눔터'를 비롯해 국비 지원 나눔터 3개소, 도비 지원 나눔터 5개소, 시비 지원 4개소를 포함해 총 12개소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2020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

시흥시농업기술센터, 850명 대상 실시



시흥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농업기술과는 2020년 1월 9일부터 3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내 영농교육장(3층)에서 농업인과 도시민 850여명을 대상으로 '2020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정은 모든 농산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제도(PLS)와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농업인 행동요령, 품목별 전문교육 12과정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특히, 올해 교육은 농업인들의 관심도를 반영해 시설원에 및 토양관리 방법, 아열대작물(감귤) 재배기술, 다육식물 재배기술, 상속·증여 및 농업 전

반적인 세무과정을 새롭게 운영해 진행된다.

국내외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품목별 전문교육 과정으로는 벼(일반, 친환경), 원예(스마트팜, 과수(포도, 복숭아·배), 스마트팜(원예) 식생활개선, 도시농업이며 농업인이 알아야 할 농정시책, 농업기술센터 추진 각종 지원사업 등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석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2020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하여 품목별로 농업인의 역량강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해영농교육에 대한 자세한 교육일정은 시흥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를 참고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031-310-618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북부권 이주민 무료 한국어교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흥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센터장 이해규)는 그동안 다문화 한국어 교육 서비스에서 소외되어왔던 대야·신천동 등 북부권 다문화 주민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 프로그램을 지난 12월 2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시흥시 내 외국인 주민수는 2019년 11월 말 기준 5만5,070명으로 시흥시 전체 인구 52만7,232명 대비 10.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야·신천동에 거주하는 외국인과의 외국 국적 동포 주민수는 1,643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흥에서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본관, 능곡본관,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정왕권 2곳, 능곡권 1곳) 등이 있다.

그러나 대야·신천동 등 시흥시 북부권에는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기

관이 부재하여 다문화 주민들이 한국어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다문화 한국어 교실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프로그램을 12월 21일 개강하고 내년 6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어교실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한국어 초급 과정 강의를 통해 다문화 주민의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의 이해를 향상하고, 다양한 국적의 주민들 간 교류와 유대감도 향상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업료와 교재 등 제반 비용은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한국어교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대야신천마을복지센터 마을복지과 (031-310-4312)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한국어 교실 수강생 모집

Free Korean Classes



일시 : 2019년 12월~2020년 3월 매주 토요일 14:00~16:00

대상 : 한국어 초급 과정 외국인

장소 :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비용 : 무료

접수/문의 : ☎ 031-310-4312 / leejisoo4@korea.kr

※ 신청 인원 미달시 프로그램의 운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비중학생 둔 다문화가족,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예비중학생 학부모교육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은 초등학교와는 달리 본격적인 학업이 시작되는 중등과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자녀의 중학교 입학 앞둔 고민하는 다문화 가족을 돕기 위해 지난 12월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센터 강의실서 ‘다문화가족 예비중학생 학부모교육’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미래인재의 조건 및 자녀의 자존감 함양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바탕으로 자녀와의 소통법을 지원하고 자유학기제와 고등학교 배정방법 등 진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 관계자는 “중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예비중학생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기제에 대한 부모들의 궁금증을 알아보고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다문화가족 예비중학생 학부모 10명이 참여해 ▲중학교 배정방법 및 반 배정방법과 ▲우리 아이 자존

감을 키워주는 소통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아이가 살아갈 미래 및 꿈을 이루기 위해 미래인재의 조건 등을 통해 ▲아이들의 꿈을 알아보는 시간과 자유학기제와 수행평가 등 평가방법 등을 통한 ▲중학교 성적,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일반고의 구별 및 각 고등학교 배정방법 등 ▲고등학교 선택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참가자들은 “우리가 다닌 학교와 한국은 교육과정이 달라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는데 교육을 받고 나니 조금이나마 이해도 되고 아이와 소통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초등학교 생활과는 또다른 중학교 생활에 두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아이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패밀리케이크 만들며
가족관계도 달콤하게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9년 가족관계향상프로그램으로 지난 12월 21일 ‘FAMILY 케이크 만들기’를 센터 강의실서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케이크 만들기를 통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향상하고 가족 간 상호작용하는 기회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케이크 만들기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됐으며, 엄마와 자녀들은 함께 케이크를 만들며 서로 소통하고 특별한 추억도 만들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아이와 함께 케이크를 만들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 즐거웠다”라며 “처음엔 서툴렀지만, 함께 완성해가며 특별한 추억도 만든 것 같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지은 기자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쉴쉴한 연말, 부천에서는 한국어말하기대회와 송년의 밤으로 위로해요

부천이주민지원센터, 제19회 한국어말하기대회 및 송년의 밤, 400명 이주민 성황

사단법인 부천이주민지원센터(이사장 임영담, 센터장 손인환)는 지난 12월 15일 오후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제19회 한국어말하기대회 및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어교실 외국인주민 학생들의 한국어 솜씨를 뽑내고,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자리로, 내외국인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19년째 개최되고 있다.

이날 송년의 밤 행사에는 법인 이사장은 영담 스님을 비롯해 손인환 센터장, 장덕천 부천시장, 설훈 국회의원, 이해원 도의원, 정재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및 시의원, 이자스민 정의당 이주민 인권특별위원장, 홍석희 부천시수의사회 회장 등 내외빈과 외국인주민 400여명이

참석했다.

영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 집의 주인인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족 여러분이 최고다. 자원봉사자, 후원자 여러분의 노력에도 감사한다. 내년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더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덕천 시장은 “많은 지원 없이도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20년 이상 센터가 최선을 다해 운영된 것에 감사한다”며 “2020년에는 이주민 관련 예산을 20% 증액했다.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함께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훈 국회의원은 “세계는 이제 경제적 국경이 거의 없는 이웃이 됐다”며 “하지만 정치적 국경은 여전히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에 나가 일하는 이주민 여러분은

앞서가는 분들이다.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의 고단함을 보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자스민 전 의원은 “한국어를 얼마만큼 하느냐가 한국사회 적응여부를 가름할 만큼 중요하다. 한국어말하기대회를 축하한다”며 “모든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도 적극 참여해서 자신의 권리와 인권을 찾고 알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부 기념식 후에는 2부 한국어말하기 대회가 열렸다.

8명의 참가자들은 저마다의 한국생활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능숙한 한국어에 담아냈다. 영광의 대상은 네팔에서 온 크리슈나 학생이 차지했다.

난타공연과 이주민들의 축하공연도 풍성하게 펼쳐져 연말을 맞은 외국인주민

들의 마음을 즐겁게 했다.

한편 행사에 앞서, 부천시 수의사회(회장 홍석희)가 어려운 환경의 외국인주민을 위해 십시일반 모은 성금 1백만원을 센터에 전달했다.

홍석희 회장은 전달식에서 “3만여명이 넘는 외국인주민이 부천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다. 부천시수의사회의 마음이 전달되어, 외국인주민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영담스님은 “누구나 추운 겨울, 외국인주민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 주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부천시수의사회와 함께 외국인주민이 동행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송하성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부천시청 032-320-3000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2-327-1370 부천교육지원청 032-326-2108 부천여성의전화 070-7733-4995
행복가정폭력상담소 032-612-1366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032-326-3004 부천고용지원센터 032-320-8900 범죄신고 112 부천원미경찰서 1566-0112 간접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다문화가족, 꼭 생겨야 할 “2020년 새에 달라지는 제도”

부천시, 새에 달라지는 7대 분야 36개 주요 제도와 시책 발표

부천시는 새해를 맞아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달라지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주요 제도와 시책을 소개했다.

〈일반행정 분야〉

“등록사항별 증명서 영문 발급”
▶지난해 7월 광역동 출범으로 행정 혁신을 완성한 부천시가 올해 동별 10개 주민자치회를 시행해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기반을 마련한다. 주민자치회는 강화된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계획,결정,시행하게 되며 1월 중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과 제출을 위해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스마트폰 등에서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받아 저장했다가 제출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주민등록표 1종을 시범 운영한 후 국민 생활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건축물대장, 자동차 등록원부 등을 포함한 13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경제 분야〉

“각종 세금 민원 업무 한번에”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천페이 발행 규모를 400억원으

로 확대하고 인센티브 구매한도액도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상향한다. 평소에는 6%, 명절에는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해 월 최대 5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청 민원과 내에 국세,지방세 통합 민원실도 설치해 각종 세금 민원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시청 소통마당에 소득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소득세, 지방소득세, 근로장려금 신고 접수를 한다.

〈복지,보건 분야〉

“3월부터 만 3~5세 외국인 아동 지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일하는 만 15세~39세 청년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시작한다.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을 매칭해 1440만원으로 돌려준다.

▶어린이집 급식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급식비는 아동 1인당 월 7400원으로 관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지원하고, 운영비는 아동 1인당 월 2,600원으로 공공형을 제외한 정부미 지원 어린이집 아동에게 지원한다.

▶3월부터 관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 외국인 아동 1인당 월 22만원

을 지원한다. 또,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해 등하원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시간에 따른 보육료를 자동 산출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분산된 4개 노인돌봄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제공한다. 3개의 권역별 수행기관에서 수요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복이 불가했던 서비스도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월부터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심한 장애인(재가)을 위한 365쉼터를 운영하고, 3월에는 부천시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해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하고 개선을 권고한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입원 환자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간병비를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공공심야약국이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되고, 국가암검진사업의 검진항목이 5종에서 폐암을 포함한 6종으로 확대된다.

〈교통,도시,주택 분야〉

“청소년 대중교통비, 부천페이를 환급”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월 일정 횟수 이상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면 걷거나 자

전거를 타고 이동한 거리 만큼의 마일리지 적립해줘 월 최대 1만3,200원의 대중교통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정 금액을 부천페이로 환급해준다. 만 13세~18세는 연 8만원, 만 19세~23세는 연 12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 분야〉

“환경개선부담금 한번에 내면 할인”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기간을 3월에서 1월로 앞당긴다. 3월과 9월에 두 번 나누어 내는 금액을 1월에 한 번에 내면 납부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광역동 지역전담 통합수거체계를 운영해 1개 업체에서 1개 동의 생활,음식물,재활용,대형 폐기물 쓰레기를 전담 수거해 청소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문화,교육 분야〉

“무상교복비 지원, 고교 신입생 확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1인당 연 8만원에서 연 9만원으로 인상한다.
▶무상교복비 지원 대상을 기존 중학교 신입생에서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인당 30만원이다.

정리 김영의 기자

多文化家庭育儿信息,了解变化的儿童津贴福利优惠

儿童津贴是什么?

2019年9月,儿童津贴的资助对象扩大到未满7岁的儿童,知道这个事实吗?

“儿童津贴”是2018年9月开始实行的一项福利制度,旨在增进儿童的基本权利和福利,通过经济援助为儿童创造健康的成长环境。最重要的是,支援父母分担养育带来的经济负担。

保健福利部从现有制度扩大了领域,将范围从收入、财产扩大到未满7周岁。只要是0~83个月的儿童都将成为支付对象。有不满7岁子女的父母应该知道的福利待遇吧?

被支付的金额是多少?

每月25日向一名儿童支付10万韩元现金。考虑到地方自治团体的条件等,可以用爱家乡商品券等支付。

包括儿童出生后的60天以内申请儿童津贴的,从属于出生日的月份开始追溯支付;周末和公休日的情况,不得不在前一天支付,请参考。如果儿童在国外居留时间超过90天或者下落不明、居住不明登记的话,支付可能会被停止。

如何申请呢?

都可以通过实体访问或网络申请。申请访问的情况下,儿童的父母或代理人将访问儿童的居民身份证地址邑面洞居民中心。

申请访问时需要几份提交文件。▲儿童津贴支付申请书▲包括身份证和护照的身份证▲代理申请时和儿童津贴相关的委任状,或是监护人的身份证之外,必要时还可以要求追加文件,这点请参考。

如果通过网络申请,只能由儿童的父母申请。利用主页或“福利”来申请福利。

以前得到津贴支援的孩子如果过了生日变成满6岁,津贴支付被中断,即使不重新申请,也被视为已经申请,因此不用另外再申请,可以重新得到支援。

〈한글 기사 18면〉

왕그나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부천시청 032-320-3000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2-327-1370 부천교육지원청 032-326-2108 부천여성의전화 070-7733-4995
행복가정폭력상담소 032-612-1366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032-326-3004 부천고용지원센터 032-320-8900 범죄신고 112 부천원미경찰서 1566-0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Shape Your Family’s Habits, Helping Kids Make Healthy Choices

다문화가족 육아정보, 자녀에게 건강한 습관을 길어주기 위해 해야할 일



Many things can influence a child, including friends, teachers, and the things they see when they sit in front of the TV or computer. If you’re a parent, know that your everyday behavior plays a big part in shaping your child’s behavior, too. With your help, kids can learn to develop healthy eating and physical activity habits that last throughout their lives.

Healthy eating and physical activity are essential for children of any age. “They can have many health benefits for children, including promoting heart health and improving mood,” says Dr. Voula Osganian, a child obesity specialist at NIH.

Getting active and eating right may also prevent excess weight and childhood obesity, a growing concern in this country. Today, nearly 1 in 3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is overweight or obese. “If someone develops obesity as a child or adolescent, there’s a very high likelihood that they’ll remain obese or overweight as an adult,” Osganian explains. “But studies also show that if you start eating healthy and being active early, you tend to maintain those habits over time.”

Although most of us know that it’s a good idea to eat healthy food and move more, it isn’t always easy to do. Children aren’t likely to change their diet and activity habits on their own. It’s up to you to make it easier for your family to make healthy choices.

“Parents are very important in terms of arranging an environment and setting a model for healthy or unhealthy behavior,” says Dr. Leonard H. Epstein, an expert on childhood obesity at the University of Buffalo. “Parents bring foods into the house. They control how much time a child can watch TV. They control what kinds of social activities are paired with foods. And kids learn a huge amount about eating and physical activity from watching and imitating their parents.”

Epstein’s research shows how important parents can be. In NIH-funded work, his team assigned obese children, ages 8

to 12, to different types of weight loss programs. All the groups were taught about healthy diet, behaviors, and exercise. For some groups, positive feedback and encouragement for weight loss and behavior changes were given only to the child. Other groups focused on both the child and an obese parent. Comparison groups received little feedback.

The researchers found that when obese parents and children worked together, both were more successful at losing weight and making healthy changes. “Our studies suggest that getting the whole family working together really benefits the child,” Epstein says. “Even after 10 years, when these kids were 18 to 22 years old, the ones who had the parent working with them had lost more weight and maintained more weight loss than the ones treated by themselves, and obviously more than the comparison groups.”

Over time, most parents gradually began to regain their lost weight, the researchers found. But after 10 years, more than 40% of the kids who worked with their parents had maintained a weight reduction of at least 20%. “The finding suggests that even if the parents go back to their old behaviors, many of the kids will not,” says Epstein.

While it’s never too late to start making healthy changes in your family, research suggests that the earlier your kids learn healthy behaviors, the better.

Dr. Julie Lumeng, a pediatrician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focuses her NIH-funded research on the factors that affect eating behaviors in young children?especially preschoolers and infants. That’s an ideal time to start exposing your children to a variety of healthy foods, such as fruits and vegetables, so they develop a liking for them.

Getting young ones to accept fruits and vegetables can be a challenge, but some parents give up too quickly if a child rejects a new food. Research suggests that the more times you offer a food, the more likely a child will be to warm up to it. “Kids typically have to taste a new food 9 to 15 times to begin to like it,” Lumeng says.

If your child doesn’t like a new food right away, stay positive and keep trying over time. Encouraging kids to take just one bite of a new food can help. But avoid creating conflicts and stress over it.

“Trying a new food can be exciting and also stressful in general,” Lumeng says. “Several studies show that kids are more likely to try a new food if they’re eating in a

setting that’s relaxing and pleasant.”

Children under the age of three tend to stop eating on their own when they’re full. “But after age three,” Lumeng says, “the more you put on their plate, the more they’ll eat.” So make sure to give your kids child-size portions.

Take opportunities to teach young children about feelings of fullness. “If your child asks for another helping, instead of saying, ‘No, honey, you’ve had enough,’ try saying something like, ‘You must really be hungry tonight,’ to raise their awareness of their feelings,” Lumeng suggests. “Or when they stop eating, say, ‘Oh, you must feel full now,’ to help teach about hunger and feeling satisfied.”

Several studies show that parents can effectively influence healthy behaviors by talking in a positive way or avoiding certain situations altogether. “Instead of telling your children, ‘No, you can’t have any more cookies,’ just keep cookies out of the house altogether,” says Lumeng.

When you bring unhealthy food and

sugary drinks into the house, “parents essentially become the food police,” adds Epstein. “It’s easier to create an environment in the home where there’s limited access to unhealthy foods and lots of access to healthy foods.”

Experts recommend that most kids get at least an hour of moderate to vigorous physical activity each day. Parents can help by limiting TV and computer time to no more than one or two hours per day.

“Small changes in the home environment can also have a huge effect on physical activity,” says Epstein. You can make sports equipment like balls and jump ropes more accessible by putting them next to the door. Walking fast, bicycling, jumping rope, and playing basketball, soccer, or hopscotch are all good ways for kids to be active.

When it comes to food and physical activity, what you say and do around your children can have a lasting effect. Work together as a family to make healthy habits easy and fun.

NIH, USA



**칼, 잭나이프 등 흉기를 소지하는 것 만으로도 처벌받습니다.**
You can be prosecuted for having weapons on you, such as knives or jack knives.

**持有刀、折叠刀等凶器将受到处罚。**

**Đối với các hung khí như dao, dao xếp thì dù chỉ sở hữu vẫn bị xử phạt.**

**คุณจะถูกจับและ ทำโทษ ถ้าเกิดคุณพกอาวุธ เช่น มีด หรือ มีดพับ**

**Хутга гэх мэт хүйтэн зэвсэг биедээ авах нь хуулийн хариуцлага хүлээх үйлдэл юм.**

**Maaari kang isakdal o usigin sa pagdadala o pagkakaroon ng mga armas tulad ng kutsilyo, atbp.**

**불법체류자도 강도, 절도 등 범죄피해 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Illegal immigrants can also make reports to the police if they are victims of crime, including theft and robbery.

**非法滞留者遭受被抢、被盗等犯罪事件，也可向警察报案。**

**Người lưu trú bất hợp pháp khi bị hại bởi các tội phạm như trộm cắp, cướp giật đều có thể khai báo với cảnh sát.**

**ผู้ลอบหนีเข้าประเทศ สามารถที่จะแจ้งความในกรณี เป็นเหยื่อของอาชญากรรม และ การถูกฉ้อโกง**

**Хууль бусаар оршин суугч байгаа ч хууль, дээрмийн гэмт хэргийн хохирогч болсон тохиолдолд цагдаагийн газар мэдэгдэх боломжтой.**

**Ang mga ilegal na migrante ay maaari ding magsumpong o magbigay-alam sa pulisya kung ang mga ito ay biktima ng krimen, kabilang na ang pagreklaw at panliblood.**

**경기지방경찰청**
GYEONGGI PROVINCIAL POLICE AGENCY

범죄신고 대표전화 : 112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 : 031-888-2876



소소한 나눔으로 복지사각지대 이민자에 희망을!

경기글로벌센터, 기부문화 확산 위한 홍보행사 개최

이민자 무한돌봄 고충 상담으로 이민자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민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송인선 대표)는 최근 기부문화 확산 홍보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비영리 공익 민간단체로서 오직 후원 기부금으로만 기관을 운영해 온 경기글로벌센터는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회사가 어려워지고 일자리를 잃는 후원자가 증가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글로벌센터는 정기후원 기부자들의 후원이 중단되는 등 후원금이 감소하고 있어 기관 사무실 임차료 2개월분이 미지급되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송인선 대표의 카카오톡으로 연결된 2,296명의 지인에게 5천 원이나 일만 원만 기부해달라는 소소한 나눔 기부행사 안내장을 발송했으나 호응이 크지 않았다.

지난 12월 20일 소소한 나눔 기부행사에 5천 원으로 동참한 후원자는 1명뿐이었으며 1만원 후원도 68명에 그쳤다. 다만 3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100만원으로 기부행사에 동참해 준 후원자들이 있어 어느 정도 목표는 달성했지만 소소한 나눔 기부문화 정착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송인선 대표는 “국내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체 사회사업부에서도 이민자 무한돌봄 고충 상담에 관한 인건비나 기타 지원은 지원항목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이민자들이나 원주민 누구라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5천원~1만원의 소소한 금액 기부로 더 많은분들이 동참하는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부천다양성 다다 다행포럼'

부천문화재단 발전방안 찾기

부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19일 오후 3시, 복사골문화센터 내 예술정보도서관 다감에서 '부천다양성 다다 다행포럼'을 개최했다.

'부천다양성 다다' 사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포럼에선 ▲2019 부천다양성 다다 추진 사례 - 부천의 문화 다양성 현장의 소리를 중심으로(통합예술나눔터 이정현 상임이사) ▲구로문화재단 다양성 사업 소개 - 학교다양성 교육을 중심으로(구로문화재단 나기석 오류문화센터장) ▲부천다양성 다다 발전 방안 제언(아시아문화인권연대 이완前 대표) 등을 다뤘다.

이어지는 패널 토의에는 민예총 부천지부 구자호 지부장이 좌장을 맡고 지역의 부천다양성 다다 협의체와 재단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한편, 재단은 지난 8년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에 연속 선정돼 지역 내 민간 문화예술단체와 문화 다양성 인식 확산에 힘써왔다. 최근엔 생활 속 이야기로 문화 다양성을 다루는 웹툰 '숨차(숨은 차별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연재하며 시민과 소통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재단 문화진흥부(032-320-6362)로 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Kênh thông tin lao động giành cho gia đình đa văn hóa

Hướng dẫn cách thức ứng thi phỏng vấn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Bài thi phỏng vấn là bài thi đánh giá mức độ thích hợp giữa người đăng kí lao động và công việc làm tương thích.

Việc tìm hiểu toàn bộ sự phù hợp của người ứng tuyển so với công việc được đặt ra trong thời gian là một điều không hề dễ dàng đối với các chủ lao động. Nhằm giải quyết vấn đề này, các chủ đầu tư đã áp dụng một số các phương pháp như bài thi PT hay thảo luận hoặc ứng xử tình huống, vv dành cho các ứng cử viên

1. Tính phù hợp với công việc

Sau khi trúng tuyển, các nhân viên mới sẽ phải bắt tay ngay vào công việc của mình. Vì việc công đoạn kiểm tra tính phù hợp của ứng cử viên với việc làm là một công đoạn cực kì quan trọng. Trong đó, đầu tiên là tính giống nhau giữa chuyên ngành tốt nghiệp(bao gồm cả sự nhận thức về tri thức), các chứng chỉ và học lực, vv

2. Đạo đức

Mỗi bộ phận văn phòng trong công ty lại có một bầu không khí và môi trường làm việc khác nhau. Nhà tuyển dụng sẽ đánh giá mức độ phù hợp giữa tính cách đạo đức về nhận thức của ứng cử viên khi đứng tại vị trí người lao động sao cho phù hợp với cách làm

việc của lãnh đạo chuyên ngành.

3. Tính lao động dài hạn

Khi tuyển nhân viên, các công ty phải đầu tư về nhiều mặt. Bao gồm cả công đoạn cho nhân viên mới đi học giáo dục trước khi bắt đầu công việc làm tại công ty thì công ty đó phải đầu tư không ít thời gian và kinh phí. Do đó nếu như công ty phải tuyển nhân viên liên tục trong thời gian ngắn thì đây là một việc làm quả là không hiệu quả đối với công ty. Vì vậy trong lúc phỏng vấn nhà tuyển dụng sẽ phải đưa ra các câu hỏi về khi gặp phải các vấn đề khó khăn trong công việc, ý chí quyết tâm của ứng cử viên, kế hoạch dài hạn của ứng cử viên, vv thông qua đó công ty có thể tìm được một nhân viên có thể lao động trong thời gian dài

4. Các bước phỏng vấn của nhà tuyển dụng

Đầu tiên sẽ là bước hẹn lịch phỏng vấn dành cho ứng cử viên của nhà tuyển dụng. Các ứng cử viên hãy lịch sự nhất có thể trong công đoạn nhận liên lạc về thời gian phỏng vấn này.

Trong ngày phỏng vấn, khi bước vào phòng phỏng vấn, các ứng cử viên phải mở cửa phòng một cách nhẹ nhàng, tiến đến vị trí của mình, đứng cạnh đó và cúi lưng cũng như đầu của mình xuống để chào hỏi các vị ban giám khảo. Thông thường các vị ban giám

khảo sẽ hỏi các câu hỏi đơn giản như giới thiệu về bản thân của mình, yêu cầu ứng cử viên giải thích về việc nhà tuyển dụng đang cần tuyển nhân viên vào vị trí và công việc như thế nào.

Tiếp theo đó, ban giám khảo sẽ đọc lại đơn xin việc và giấy giới thiệu bản thân của ứng cử viên sau đó sẽ đưa ra câu hỏi để đánh giá mức độ chuyên nghiệp của ứng cử viên. Trong phần này, ban giám khảo có thể tìm hiểu được các suy nghĩ của ứng cử viên do đó các ứng cử viên hãy trả lời sao cho có thể để lại ấn tượng sâu sắc dành cho ban giám khảo thông qua việc lấy các dẫn chứng cụ thể và đa dạng phong phú nhưng phải phù hợp với chủ đề mà ban giám khảo đang đề cập tới.

Cuối cùng đó chính là phần mà ban giám khảo đưa ra câu hỏi dành cho ứng cử viên đó là định hướng của bản thân mình như thế nào. Sau đó bao giám khảo sẽ nói về thời gian thông báo kết quả và gửi lời cảm ơn đến ứng cử viên. Có thể các nội dung cuối cùng này cũng nằm trong phần đánh giá phỏng vấn nên ứng cử viên hãy trả lời rằng 'Tôi xin trân thành cảm ơn' vừa trả lời vừa cúi đầu và lưng của mình xuống để phù hợp với lễ nghi lịch sự dành cho đội ngũ ban giám khảo.

〈한글 기사 6면〉

강혜나 기자

부천이주민지원센터 도은아 씨, 모범 귀화자 선정

베트남 출신으로 다문화가정 상담만 한달에 100건, 통역봉사도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해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귀화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네팔출신 정제한 씨 등 4명을 '2019년 모범귀화자'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들에게 기념패를 수여하고 출입국우대카드와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가졌다. 모범 귀화자 선정 행사는 국적법 제정 70주년을 기념해 작년 처음 실시한 후 올해가 두 번째다.

모범 귀화자로 선정된 베트남 출신의 도은아 씨(36)는 호치민에서 만난 남편을 따라 한국에 와서 2009년 귀화했다. 외국인주민 자원봉사자로 사회활동을 시작한 후, 현재는 부천이주민지원센터 상담팀장으로 재직하면서도 틈틈이 경찰, 법원에 통역봉사를 나가고 있다.

매월 약 100건의 이민자 관련 생활, 노동, 인권, 법률, 의료 상담을 맡아오고 있다. 특히 가정문제가 있는 다문화가정 상담, 임금체불 등으로 곤란에 처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제해결 지원 등과 같은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상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는 사례를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도씨는 수상 소감에서 “한국에 시집와서 다문화가정으로 살아오며 느끼고 힘들었던 점을 제 친구 혹은 저와 같이 힘들어하는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에, 그리고 스스로의 삶에서 보람을 찾고 싶어서 NGO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네팔 출신 정제한 씨(48)는 1992년 서울대 어학연수생으로 입국한 후 의료봉사를 하기위해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국내 의대를 졸업하고 2014년 귀화한 후, 현재 경주시립노인전문병원 가정의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행복을 주는, 행복을 나누는 의사’가 되고자 빠른 진료보다는 세심하고 정성 어린 진료를 하며 국내외에서 활발한 의료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정씨는 이날 수상 소감에서 “한국에서 제가 얻은 것이 너무 많아서 저에게는 여기가 축복의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범 귀화자로 선정된 대만 출신의 왕계 씨(54)는 일본 유학 중 만난 한국인과 결혼해 1992년 귀화했다. 그러나 낯선 땅에서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12년 동안 자기의 비용으로 ‘중국 문화체험관’을 운영해 무료 중국어 수업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중국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해왔다. 자신이 봉사활동을 하는 아동센터는 경주 외곽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취약해 봉사 기피 지역임에도, 한 차례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에도 다문화가정 학생 상담 및 중국어 강의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

현재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자연환경해설사로 근무하면서 해박한 한국 역사·문화지식과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경주 지역을 찾는 중국·일본·영어권 관광객에게 한국을 홍보해 오고 있다.

송하성 기자

부천시, 대학생 세계탐방 프로젝트 성과발표회 개최

부천시가 지난 20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대학생 세계탐방 프로젝트 성과발표회’를 개최해 연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제안을 시상했다.

세계탐방 프로젝트는 스스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해외연수과정으로 관내 대학생이 팀을 이뤄 참가해 해외 우수사례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참가를 신청한 19개 팀 중 최종 10개 팀을 선정해 방문 국가에 따라 팀별 최대 600만 원을 지원했다. 10개 팀은 문화, 환경, 복지 등 여러 분야의 과제를 가지고 연수를 다녀왔으며 연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

10개 팀 모두 발표에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친 결과 ‘알로호모라팀’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알로호모라팀은 부천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탐구하기 위해 영국 런던을 다녀왔으며, 부천 시장 알리미 계정을 직접 만들어 홍보하고 부천 시장 레시피 북 제작 아이디어를 제시해 심사위원과 참석자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이외에 부천시 스마트분리수거함 도입 방안 탐구 등 5개의 연구 과제가 우수와 장려로 선정됐다.

부천시는 10개 팀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를 관계부서와 공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포토뉴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2019년 이민통합의 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2월 12일 인천 송의중합사회복지관에서 2019년 이민통합의 밤을 개최했다. 사회통합협의회(회장 서광석)가 함께 진행한 이날 행사에는 부천과 김포, 안산, 시흥, 인천 등지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주민들과 사회통합자원봉사위원들이 대거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송하성 기자

'겨울 독서교실 1월 13일 개강'

다문화가정 자녀도 독서교실 참여해요

오산시(시장 곽상욱) 초평도서관은 초등학생(13학년)을 대상으로 환경 주제 '지구를 살리자' 겨울 독서교실을 2020년 1월 13일에 개강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5회차 운영으로 1회차 도서관 견학 및 이용방법, 도서관 정보활용교육은 사서가 진행한다.

2회차부터 5회차까지 독서지도 및 글쓰기 전문강사와 함께 지구 온난화, 미세먼지, 바다오염, 해양오염, 100년후 지구의 모습 상상하기 등 환경을 주제로 '투발루에게 수영을 가르칠걸 그랬어', '죽음의 먼지가 내려와요', '플라스틱 섬', '숲으로 간 사람들' 등 교과수록 및 주제 연계 도서를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며 책속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미세먼지 마스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도 함께 이루어진다.

도서관 독서교실은 어린이·청소년의 독서습관 형성과 도서관 이용 생활화를 위해 전국 도서관 대상 국립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주최로 매년 운

영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제100회를 맞이했다.

한편 초평도서관은 VR시스템과 동화구연을 접목한 '체험형 동화구연' 프로그램을 인기리에 운영 중이다.

'체험형 동화구연'은 아이들의 모습이 동화 속 주인공처럼 대형TV속에 출연하여 동화 속 이야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어린이 동화 프로그램이다.

3차원 가상공간과 모션인식 등 최신 가상현실 기술을 동화구연에 접목한 이번 프로그램은 '금도끼 은도끼', '흑부리영감과 아기도깨비', '오즈의 마법사' 등 21종의 다양한 동화콘텐츠를 통해 어린이들이 책과 도서관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초평도서관에서는 교육받은 동화구연 전문 강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미와 학습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지은 기자

이주민,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나눔과비움, 김장만들기 체험행사



사단법인 나눔과 비움은 지난 1일 오산시청 구내식당에서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100가구를 대상으로 "한국전통음식 김장만들기 체험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전통음식인 김장만들기 체험활동을 통해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세계적인 음식인 김치를 직접 만들고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사단법인 나눔과비움 임직원 및 자원봉사자 등 60명,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 임직원들과 한은경 오산시의원이 참여해 김장만들기 체험행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정성껏 담긴 김장김치 2,000포기는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가구와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

체 등 저소득 세대에 전달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가구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 김장을 할 수 있게 후원해 준 국제라이온스클럽과 사단법인 나눔과 비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외국인주민을 위해 오산시가 최선을 다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후원한 국제라이온스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지원하고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단법인 나눔과 비움 및 국제라이온스협회는 관내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등을 위한 지원과 다양한 사업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지은 기자

오산시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장인수 의장, "따뜻한 소식 전해 감사"



오산시의회 장인수 의장은 지난 12월 19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윤신일 회장에게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적십자 특별회비는 우리 지역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4대 취약계층(아동, 청소년,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과 재난 구호 활동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장인수 의장은 "추운 겨울 따뜻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게 되어 감사하다. 오산시의회도 적십자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또한 장 의장은 대한적십자사 특별회원증을 전달받고, 향후 다양한 희망과행복 나눔 활동을 함께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곽상욱 오산시장도 최근 대한적십자사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지은 기자

서랑문화마을 눈썰매장 개장

다문화가족도 겨울에 즐거운 눈썰매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28일부터 '서랑문화마을 눈썰매장'(서랑동 359)을 개장했다.

서랑문화마을은 국가사적 140호인 독산성(禿山城)남쪽 자락에 위치한 마을로 경관이 아름다운 서랑저수지 주변 힐링 산책코스가 있고 온가족이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하고 즐길 수 있는 오산시 명소이다.

서랑문화마을 눈썰매장은 2020년 2월 16일까지 개장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오후 4시까지이다. 설날 당일인 1월 25일을 제외한 휴일에도 계속 운영된다.

눈썰매장은 눈썰매 슬로프와 유아용 슬로프, 전통 얼음썰매체험을 입장으로 4000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눈꽃동산, 빙어잡기, 유아용놀이기구, 동물먹이주기, 도자기 및 공예체험 등 다양한 체험거리와 풍성한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어 겨울철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이지은 기자



태산급여

수급자가구의 임신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에 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 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3%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도 별도로 있으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복지팀에 문의해주세요

✓ 지원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60만 원을 지급(영양제 출산시 120만 원)

✓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하세요!
※ 구비서류: 신청서,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전부터 신청가능 (의사소견서, 진단서, 산모수첩)

✓ 문의처
오산시청 행정복지과 생활보장팀 ☎ 8036-7418

Part. 1 임신 출산 · 39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저소득층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춰드립니다.

✓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부부를 지원합니다.
• 임신할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체외수정시술 때 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한명을 대한민국 국적, 내국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의료급여수급자가 해당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 및 지원횟수가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요망)

✓ 지원내용
체외수정(산내외) 시술비 중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1인당 최대 50만 원, 4회 범위 내에서 지원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만 해당)

✓ 신청방법
보건소에 방문 신청 하세요!
※ 구비서류: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문의처
오산시청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 8036-6075

14 • 오산시 임신·출산·육아 가이드북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잊지 말고, 오산시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 지원대상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제5년) 이내인 부부 (신청한 중 한 사람의 등본상 주소지가 오산시인 가능해요~)

✓ 지원내용
산전검사 3회 실시 (검진비 무료)
• 남성: 기초혈액검사 10회, 알코올검사 2회, 소변검사 10회, 혈액학적 검사 4회, 갑상선기능검사 3회, 흉부X-ray
• 여성: 기초혈액검사 10회, 알코올검사 2회, 소변검사 10회, 혈액학적 검사 4회, 갑상선기능검사 3회, 흉선검사 2회

✓ 신청방법
보건소에 방문 신청 하세요!
※ 제출서류: 예비부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청약장 또는 예약장 계약서
- 신혼부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문의처
오산시청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 8036-6075

Part. 1 임신 출산 · 07

오감 태고 교실 운영

임산부를 위한 태아 오감발달 태고 교실을 운영합니다. 오산의 임신부라면 잊지 말고, 서둘러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관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라면 누구나

✓ 지원내용
• 운영방법: 4주 과정(주1회), 7기 중3회 운영
• 편: 편: 1.교수당 20명
• 프로그램: 1. 1주차: 그림책 테라피
- 2주차: 도자공예
- 3주차: 태교비누 만들기 DIY

✓ 신청방법
보건소에 방문 신청 하세요!

✓ 문의처
오산시청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 8036-6075

Part. 1 임신 출산 · 09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배려, 철분제와 엽산제를 드려요. 꾸준히 챙겨주세요!!

✓ 지원대상
오산시 거주 임신부라면 누구나

✓ 지원내용
• 엽산제: 임신초기-임신 12주까지 지원(3개월분)
• 철분제: 임신초기-임신 20주-분만시까지 지원(5개월분)

✓ 신청방법
보건소에 방문 신청 하세요!
※ 구비서류: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

✓ 문의처
오산시청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 8036-6075

Part. 1 임신 출산 · 15

임산부 산전검사

임산부 산전검사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해요. 오산시 임신부라면 꼭 혜택을 누리세요~

✓ 지원대상
오산시 거주 임신부라면 누구나

✓ 지원내용
임산거조사 실시
• 빈혈, 혈액형, 간염, AIDS, 풍진, 노상, 노년백, 갑상선 등
• 검사결과 이상소견 시 의사 상담 면제

✓ 신청방법
보건소에 방문 신청 하세요!
※ 구비서류: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

✓ 문의처
오산시청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 8036-6075

06 • 오산시 임신·출산·육아 가이드북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 및 국가유공자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출산일(출산 및 사산 제외)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일까지 계속하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장애인가정이란? 신청자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해당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

✓ 지원내용
대상 및 종급에 따라 최대 150만 원 ~ 최대 1,000만 원

지원 대상	지원금액	수급자	2019년	2020년
신생아의 초기 양육비	1급-3급	100만 원	80만 원	50만 원
	4급-5급	70만 원	50만 원	35만 원
신생아의 분기 양육비	1급-2급	70만 원	50만 원	35만 원
	3급-4급	30만 원	24만 원	15만 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자	1급-5급	70만 원	50만 원	35만 원
	6급-7급	50만 원	40만 원	25만 원

✓ 신청절차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하세요!
※ 구비서류: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통장 사본

✓ 문의처
오산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8036-7453

10 • 오산시 임신·출산·육아 가이드북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합니다.

✓ 지원대상
5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의료비에 대해 지원한도 300만 원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원료, 환자복식 제외) 90%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가구월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상향부담액을 월평균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5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의료비에 대해 지원한도 300만 원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원료, 환자복식 제외) 90%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한도 300만 원 내에서 본인 부담금이 전액 지원됩니다.

• 신청 기간은 본인 의료비 5개월 이내입니다.

✓ 신청방법
보건소에 방문 신청 하세요!
※ 구비서류: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진단서, 출생증명서, 입·퇴원 증명서, 통장사본 등

✓ 문의처
오산시청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 8036-6075

16 • 오산시 임신·출산·육아 가이드북

<기획연재> 한국의 이주민 사회



한국의 이주민 사회 ‘한국에 있는 다양한 외국인주민들’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 F-6-1비자에 대해(9)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외국인 거주자가 230만명을 넘어섰다. 부인할 수 없는 다문화사회가 된 것이다. 이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민자들의 삶과 이주민 정책의 문제점들을 되돌아보고 원주민과 이민자들이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때에 (사)경기글로벌센터의 송인선 대표가 이주민들 속에 뛰어 들어가 그들과 부딪치며 상담하고 경험한 실제 사례들을 모아 책을 펴냈다. 이주노동자, 일반난민, 재정착

난민, 다문화가족 등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다양한 상담사례를 기술함으로써 이민자들이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이 책은 또 체류자격 별로 현장에서 경험한 실제 상황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이민자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고민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경기다문화뉴스가 그 이야기를 연재한다.

1. 결혼이민자

(7)귀화자 및 영주권자 이혼 및 사별 후 재혼가정(F-6-1)

한편 이들 중에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사례도 있다. 모 국가에서 온 결혼이주여성(여 35세)이다. 남편의 학대로 이혼을 한 후 혼자 생활하면서 정신분열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급기야는 의지할 곳이 없어 노숙까지 하게 되었다.

그런데 노숙생활 중 절도 피의자가 되었다. 그리고 음란공연 및 성매매 등으로 벌금형도 선고받았고 강제출국명령도 받게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가운데 임신까지 하여 인천의 ○○병원에서 얼마 전에 아이까지 출산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 자격상실로 건강보험 혜택도 못 받고 1천만원이 넘는 병원비를 내지 못해 다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여 현재까지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 중에 있으나 해결책이 보이질 않는 암울한 상태에 놓여있다. 출산한 아이는 여러 시민단체들과 논의와 협의를 거쳐 입양시설로 보내기로 하였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장단점과 부작용도 동시에 나타나기 마련이다. 먼저 장점의 경우 귀화자는 대개 이혼 전 한국인 남편과의 나이 차이는 물론 경제적 학대와 폭력 음주 등으로 수년 간에 걸쳐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시달린 끝에 이혼을 한다. 이 때문에 대개 귀화 전 자국민을 만나 재혼한 귀화자는 또래 나이에 자국어로 언어소통 잘되고 경제적 능력 있는 배우자와 눈높이 대화를 할 수 있다는데 가장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체류자격을 얻기 위하여 브로커들을 통하여 거금을 주고 위장혼인을 하는 사례도 있으며 일부 잘못된 사고를 가진 귀화자는 상대 배우자의 체류자격을 악용하여 노예같이 일만 시키고 돈만 챙기는 나쁜 귀화여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허용하면서 귀화자 대부분은 자국의 이중국적 인정과 허용하는 국가라면 귀화자는 이중국적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대부분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귀화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보다는 자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사업가 귀화자들은 더더욱 그러한 것 같았다.

이와 같이 이민자 500만 명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현상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현장에서 이민자 고충상담이 아니면 알 수도 없고 접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8)국민의 배우자 귀책사유로 이혼 및 사별로 자녀 없이 혼자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F-6-3)

그동안 여러 시민단체들의 도움으로 지내왔으나 병세가 점점 악화되면서 과격한 언어와 폭력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시민단체들이 운영하는 쉼터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면서 그는 또 다시 길거리로 뛰쳐나가 결국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최근에 그를 직접적으로 돕고 있는 인천의 모 여성 단체장은 너무나 황당하고 답답한 나머지 결혼이주여성의 국가 한국 주재 대사관을 방문하여 이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협조를 구하였으나 대사관의 답변은 우리는 이주노동자들만 지원하고 도움을 주지

결혼이주여성은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한단다.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하는 대사관 관계자의 말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미래가 심히 걱정이 된다.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자기 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가장 먼저 대사관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미개발도상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더욱 안타깝다.

어찌되었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고민을 해 보지만 정답을 찾기는 힘들 것 같다.

첫째, 정신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가족이 없는 한 치료에 한계가 있다고 하고 나아가 의료보험혜택도 못 받고 있는지라 병원비 감당이 부담되어 장기간 입원치료도 고려해 봐야 할 사안이다.

둘째, 이 여성은 강제 출국대상자이나 벌금체납이 280만원 정도 있어서 과연 강제출국이 될지 의문이고 만약 강제출국이 된다 하더라도 정신질환자 홀로 항공기 탑승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역시 어려운 문제로 생각된다.

셋째, 이혼한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정신질환자는 그야말로 그 어느 곳에서도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넷째,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을 찾아 초청하여 집중적인 치료 후 동반출국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기도 하나 그들에 대한 초청비용과 행정업무가 만만치가 않아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이와 같이 각양각색의 현존하는 문제들로 인하여 이민자정책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연재를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국의 이주민 사회’ 서점 판매 중> 야스미디어

다문화도서 하면 한결문고 한결문고 하면 다문화도서

국내 최대 25개 국가 수입!
국내 최고 신청도서 납품율!
국내 최초 수입 노하우 활용!

취급품목

- 출판물(베스트셀러/전문/교육용도서/잡지)
- 교재(교과서)-학습교과서/어학교재
- 영상물(DVD)-문화체험(드라마, 영화)
- 음반(오디오, CD)

<다문화도서 구입 문의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40-3 2층 외서팀
Tel. 032-325-4755
E-mail, hope6401@hanmail.net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한국어, 한국문화

77. 액땀하다

대화-거실에서

은숙 : 지난 번 마셨던 커피 있어? 그거 참 맛있는데.

민정 : 나도 한 잔 마실래. 그 때 그 커피 어디서 구했어?

메이 : 제가 다니던 한국어교실 친구들이 놀러왔을 때 선물한 거예요.

은숙 : 난 아침에 커피를 마셔야 잠이 깨.

메이 : 저는 커피를 잘 안 마시는데 조금 드릴까요?

은숙 : 좋아. 그 대신에 내가 메이 씨에게 좋은 전통차를 줄게. 어제 나도 선물을 받았어.

메이 : 오늘 바쁘는데 일부러 도와주러 오셔서 고마워요.

민정 :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서 오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마.

메이 : 민정 씨, 어제 지갑 잃어 버리셨다더니 찾으셨어요?

은숙 : 맞아. 어제 지갑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되었어요?

민정 : 못 찾았어. 아마 마트에서 차 탈 때 흘린 것 같아.

은숙 : 마트에 이야기 해 두었어? 요즘은 CCTV가 있어서 찾을 수 있어

메이 : 맞아요. 저도 지난번에 버스에 핸드폰을 두었는데 찾았어요. 너무 다행이었어요.

민정 : 못 찾아도 액땀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별로 중요한 것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은숙 : 그래. 올해가 지나가면서 마지막 액땀했다고 생각하면 좋아.

메이 : 두 분은 나쁜 일이 생겨도 좋게 생각하시네요. 저도 배워야겠어요.

은숙 : 나도 핸드폰 액정이 깨져 교체했는데 액땀한 거로 생각하고 있어.

메이 : 저도 집에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속상했는데 오늘 도와주셔서 다 고치면 액땀인가요?

은숙 : 그럼 우리 모두 올해 나쁜 일 다 날려 버리고 내년에 좋은 일만 생기겠어요.

해설

오늘 대화에 나온 ‘액땀하다’이라는 말은 ‘앞으로 닥쳐올 액운을 미리 가벼운 고난을 겪어 대신하다’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작은 나쁜 일을 겪고 나면 더 큰 나쁜 일을 막아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효과도 있고 지난 간 일을 빨리 잊고 새로운 기운을 북돋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의 표현 - 액땀하다

앞으로 닥쳐올 액운을 미리 가벼운 고난을 겪어 대신하다

■ 이번 교통사고가 크지 않아 많이 안 다쳤으니 액땀한 걸로 치면 될 것 같아요.

■ 설거지 하다가 접시가 깨졌지만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액땀한 거라고 생각하자.

한국문화 - 한국의 미신

모든 나라나 사람들에게 미신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국에서도 독특한 미신이 많이 있어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지 말라, 밥그릇에 숟가락을 꽂으면 재수가 없다,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달아난다, 중요한 시험을 보는 날에는 미역국을 먹으면 안 된다, 까마귀가 울면 불길하다.’ 등과 같은 미신이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판단이지만 나름대로 그 나라의 문화가 반영된 것이니 문화를 몰라서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 알아 두면 좋습니다.

미술활동으로 소통공감 역량 UP

파주건가다가, 다양한 가정 청소년 대상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조순일)에서는 2019년 다문화 가정과 다양한 가정 아동, 청소년의 소통, 공감, 화합의 장 마련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소통공감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했다.

‘창의력 쑥쑥 미술활동 사업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다문화와 다양한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취미활동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 강화를 위한 사회성 발달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공통된 취미활동을 통해 또래와 어울리고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과 감정들을 만들기라는 표현방법을 통해 형상화해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다.

교육은 ▲11월 13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시계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만들어보는 ‘시계 만들기’▲11월 15일 미래의 내 방을 상상하며 입체적으로 만들어보는 ‘나만의 미래 방 꾸미기’▲11

월 20일 나만의 연필꽃이 만들기를 통해 무늬나 캐릭터를 표현해보는 ‘연필꽃이 만들기’▲11월 22일 나만의 개성있는 가방을 만들어보는 ‘가방 만들기’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초반 자신이 생각한 것을 형상화하기 어려워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던 참여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표현력이 좋아지고 만들기를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 참가자들은 “여러 재료를 써보는 것과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프로그램이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쉬울 정도로 유익한 수업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0년에도 아동, 청소년을 위한 유익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센터(031-949-9164)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무료 법률상담 이용하세요

파주시 다문화가족 등 대상 실시

파주시는 시민들의 권리 보호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 운영한다.

파주시는 2009년부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현직 변호사와 법무사가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법률상담은 2017년 468건, 2018년 492건, 2019년 543건으로 매년 증가하며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파주시청, 운정행복센터, 문산

행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법률상담을 매월 14회로 월 2회 증설 운영하고 관련 법률전문가도 2명 추가 배치,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 창구는 상담자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상담관과 일대일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담신청은 파주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파주시청 민원봉사와 종합민원팀(031-940-4195)으로 사전예약을 한 뒤 예약된 상담일시에 방문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군포시건강가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성희)는 지난 11월 14일 홍천 비발디 파크 스노위랜드에서 군포시 거주 21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사랑의 날 ‘가족과 함께하는 눈썰매 체험’을 진행했다.

매월 진행되는 ‘가족 사랑의 날’은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가족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구성원 간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통해 유대감을 강화하고, 다양한 가족이 교류하는 문화형성 및 가족친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들은 함

께 눈썰매를 타며 좋은 추억을 남겼다.

참여 가족들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갈수록 적어지는 대신에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인해 짧게나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며, 다문화 가정과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박성희 센터장은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통해 시간을 보내며 소통하여 가족 구성원 간 친밀감이 향상된 것 같다.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이 교류하고 가족이 함께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12월 가족 사랑의 날에는 눈썰매 체험 외에도 ‘조선마술사’ 공연 관람도 진행되어 75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상담, 문화, 아이돌봄 지원사업, 육아나눔터사업 등 다양한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 (031-392-1811)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정 자녀 특별한 겨울방학 '겨울독서교실'

군포시 중앙도서관(군포시 수리산로 79)은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독서교실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겨울독서교실의 주제는 ‘지구에서 놀자!’로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며,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자원순환 등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환경문제와 지켜야 할 생활수칙을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신청은 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강의는 무료이지만 재료비 6천원은 수강생 부담이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군포시도서관 홈페이지(www.gunpolib.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31-390-8884

김영의 기자

多文化家族の生活法律情報、國籍取得と運轉免許、親戚招請について

(質問1) 外國人が大韓民國國民と婚姻すると、すぐに大韓民國の國籍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ますか?

(答1) 外國人が大韓民國國民と婚姻し大韓民國に居住すると、大韓民國國民の配偶者としての地位をもつこととなりますが、すぐに大韓民國の國籍を取得できません。ただ大韓民國國民の配偶者と適法に婚姻申告、大韓民國で2年居住、または3年経過し1年居住した外國人は、簡易歸化を通じて大韓民國國籍を取得できます。

◇ 簡易歸化の要件

▲國民である配偶者と結婚した状態であること ▲大韓民國に継続居住すること ▲大韓民國の民法上成年(19歳)であること ▲品行方正であること ▲生計能力があること ▲大韓民國國民としての基本素養を備えていること

◇ 簡易歸化許可申請

大韓民國國民である配偶者と婚姻申告を行い、正常な結婚生活をおくっている外國人が、簡易歸化許可を申請するためには、歸化許可申請書に外國人であることを証明する書類などを添

附、出入國・外國人廳長、出入國・外國人事務所長、出入國・外國人廳出張所長、または出入國・外國人事務所出張所長に提出します。

(質問2) 本國の運轉免許證をすでに持っているのですが、大韓民國の運轉免許證を取得するならば、最初から試験を受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か?

(答2) 大韓民國で自動車を運轉するためには、公認試験を経て運轉免許證を取得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ただ本國ですでに取得した運轉免許證があるならば、運轉免許試験の一部が免除されます。また外國人が本國で國際運轉免許證を發給されている場合、大韓民國に入國した日から1年間、大韓民國の運轉免許證がなくても運轉することができます。

◇ 運轉免許試験の免除

運轉免許試験を受けようとする外國人のうち ▲大韓民國に住民登録している者 ▲外國人登録をしたか免除された者 ▲在外同胞として國內居所申告をした者が外國免許證を持つ場合

は、運轉免許試験の一部が免除されます。

◇ 國際運轉免許證による運轉

國際運轉免許證を發給された者は、大韓民國の運轉免許を取得していても、大韓民國に入國した日から1年間は、國際運轉免許證で自動車などを運轉することができます。

(質問3) 結婚移民者が外國に住む両親や親戚を招請するためにはどうすればいいのですか?

(答3) 外國に住む結婚移民者の家族・親戚が大韓民國を訪問するためには、査證(VISA)が必要です。この場合、直接その國家の在外公館(韓國大使館)に申請し、査證の發給を受けます。ただ外國國籍同胞は、大韓民國内の出入國管理事務所に招請しようとしている家族の査證發給認定書(番號)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ます。査證發給認定書(番號)が發給されると、その番號を両親や親戚に知らせ、その國家の在外公館で査證發給を申請するときに提出します。

◇ 査證(VISA)發給による入國

普通觀光や親戚訪問目的で入國する場合には、3ヶ月間滞在できる短期訪問(C-3)資格の査證を發給されます。短期訪問(C-3)査證を申請する場合、大韓民國に住む外國人から招請狀および身元保證書(大韓民國で公證を受けたものを指す)など、訪問目的を證明する書類を前もって準備し、査證發給申請を行うときに提出すると、より容易に査證の發給が可能です。子どもの面倒をみるためという理由で親戚を招請する場合は、より簡単に査證を發給され長期間滞在することができます。

◇ 査證發給認定書(番號)による入國

原則的に査證は、大韓民國に入國しようとする者が直接申請しなくてはなりません。大韓民國國民と結婚した外國國籍同胞は、大韓民國國籍を取得する前でも、養育権がある未成年の子どもを招請するために、滯留地管轄出入國管理事務所に招請する子どもの査證發給認定番號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ます。〈한글 기사 37면〉 아키오 기자

군포시-중국 린이시 경제기술개발구, 경제분야 교류

군포산업진흥원 MOU 체결, 경제활성화 플랫폼 마련 등 지원



군포시 산하 군포산업진흥원은 지난 12월 19일 시청사에서 중국 산둥성 린이시 린이경제기술개발구관리위원회와 양기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군포시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상호이익과 공동발전을 원칙으로, 경제활성화 플랫폼을 마련하여 기업 간 경제무역상담회와 분야별 전시회, 물류와 산업 등 경제 분야 교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군포시와 린이시의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간 교류를 도모하고, 상호이익과 공동발전을 위한 기업교류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게 된다.

이날 체결식에 이어 한대희 군포시장은 왕옥군 린이시 당서기 등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양 도시 간의 경제와 문화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시장은 “MOU 체결로 양 도시 간의 과제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균형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라며 “서로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해 자매도시 간의 형제애로 더욱 의미있는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왕옥군 당서기는 “내년 4월로 예정된 린이시 상품박람회에 한대희 시장이 참석해달라”고 요청한 뒤, “린이가 부지를 마련해서 군포의 기업들을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군포시는 중국 내 대표적 물류·유통 거점도시인 산둥성 린이시 지역 내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제품 전시·판매 공간을 마련했다.

군포시는 12월 초 해외 자매도시인 린이시로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업무 실무자들을 파견, 산동란화그룹이 위탁 운영하는 수입상품성 내에 군포지역 중소기업 9개사가 생산하는 제품 130종을 배치했다.

군포시는 지난 10월 린이시와 체결한 경제협력 및 기업교류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따라 2020년 4월 린이



시 수입상품성에 군포지역 중소기업 전용 제품 전시 판매장을 개설하기에 앞서 현지 소비자들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앞서 군포시는 4차례의 중국 방문을 통해 린이시 및 란화그룹 관계자와 전시·판매장 운영을 협의해 왔으며,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향후 양 도시 간 경제교류 본격화를 위한 계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중국 린이시에서 현지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2차례 군포지역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성장하려면 해외시장 홍보 판매가 필요한데, 개별 기업들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아 시가 해외 자매도시와 협력해 타격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는 지역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군포시생활문화센터 개관 ‘다문화가족도 이용해요’



‘군포시생활문화센터’가 지난 12월 17일 문을 열었다.

군포시 수리동 수리산상마을에 내 위치한 ‘군포시생활문화센터’는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1억원을 투입해 지난 1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11월에 완공됐다.

센터는 리모델링한 기존 상가건물과 인근 유희부지에 증축한 지상 2층 규모의 시설물 등 총 연면적 1,375㎡의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1층은 다목적 스튜디오와 밴드연습실, 개인연습실, 컨트롤 스튜디오, 2층은 마루연습실(무용, 댄스 등)과 어쿠스틱 연습실, 커뮤니티룸, 사무실 등으로 구성됐다.

‘군포시생활문화센터’는 군포문화재단에 위탁해 일반 시민은 물론, 전문 예술단체와 생활문화 동아리 등이 문화 활동을 통해 일상에 감동을 주는 문화공동체의 공간으로 활용되며, 위탁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한대의 군포시장, 26일 ‘2019 청소년의망대상’ 수상에

한국청소년재단 주관 청소년 1천25명 온라인 투표 결과 기초자치단체장 부문 수상



한대희 군포시장이 전국의 청소년 1천여명에게 ‘청소년의 삶을 바꾸는 희망’으로 인정받았다.

군포시는 26일 한 시장이 한국청소년

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2019 청소년희망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장 부문 수상자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시상식에 참여한 한 시장은 청소년의 권익 증진 및 정책 참여 기회 확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청년자립활동공간 ‘I-CAN 플랫폼’ 건립 추진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시와 재단의 설명이다.

앞서 재단은 이번 수상자 선정을 위해 추천 및 신청을 통해 시상 대상을 공모

했고, 전문가 심사로 1차 후보들을 선별한 후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1천25명의 투표로 최종 시상자를 결정했다.

그 결과 한대희 군포시장을 포함해 3명의 기초자치단체장, 2명의 국회의원 등 총 18명이 올해 청소년희망대상 수상자로 뽑혔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취임 이후 시정 목표인 ‘새로운 군포 100년 만들기’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 꾸준히 노력 중”이라며 “특히 청소년의 시정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권익 보장 등으로 생활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이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시장은 “이번 수상은 ‘청소년의 희망’으로서 변하지 않고 열심히 시정을 이끌라는 격려와 응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청소년들이 수상자 선정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게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위한 군포시의 다양한 정책·사업 정보는 시청 청소년청년정책과에 문의(031-390-0685, 0715)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군포시 눈얼음썰매장 개장 복합생활스포츠타운 위치



군포시의 겨울 레포츠 놀이시설인 눈 얼음 썰매장이 12월 20일 개장했다. 추운 겨울, 다문화가족들도 자녀들과 함께 썰매장을 이용해 볼 만 하다.

군포2동 복합생활스포츠타운(군포로 339) 내 배드민턴장 저류지에 조성된 눈 얼음 썰매장은 2020년 1월 24일까지 36일간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입장
요금은 성인과 아동 구분 없이 군포시민은 3천500
원, 타지역 시민은 5천원이다.

더 자세한 이용 정보는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군
포도시공사에 문의(031-390-7701, 7703)하거나 군포시
청 홈페이지(www.gunpo.go.kr)→열린시정→새소식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이지은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 올해의
지방자치 최고경영자상 수상**

박승원 광명시장이 19일 공군회관(서울 대방동)에서 개최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올해의 지방자치 CEO 선정식에서 '지방자치 최고경영자(CEO)'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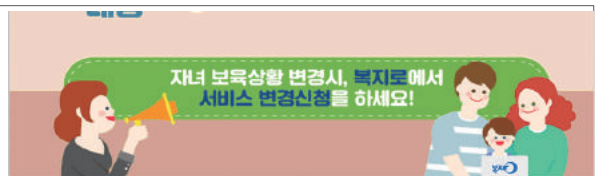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지역발전과 자치행정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치단체 장을 대상으로 매년 지방자치 CEO를 선정하고 있다. 지방자치 CEO는 전문가의 객관적 심사를 통해 선발한 부문별 단체장 중 정책 추진 내용과 프리젠테이션 발표, 전국 공무원들의 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2019 올해의 지방자치 CEO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을 비롯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황선봉 예산군수, 박준희 관악구청장 등 다섯 명이
선정됐다.

박 시장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광명시자치분권협의회, 시민참여 커뮤니티 등 민관협치 체계를 구성하고 많은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자치분권 실현에 노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전국 최초 3대 교육복지 실현, 광명동초 학교복합화 사업, 전국 최초 아파트 전자결재 시행, 학교 체육관 마을 개방, 한국폴리텍 대학 제2융합기술교육원 유치 등 적극행정을 펼쳐왔다.

이지은 기자



예비초등생 둔 가정 입학축하금

광명시, 전국 최초 다문화가족도 혜택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이라면 광명시에서 지원하는 입학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광명시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1학년에게 입학축하금으로 광명사랑화폐 10만원을 지원한다.

광명시는 초등학생 첫 출발을 응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3억여 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했다.

광명시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입학대상자는 3000여 명이며, 입학축하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3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절차는 2월 광명시청 누리집에 공시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또한 취학통지서와 함께 입학 축하하는 박승원 광명시장 메

시지가 담긴 입학 축하카드도 전달한다.

축하카드에는 양육에 힘써온 부모에 대한 감사와 함께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키우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신념으로 교육 분야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교육공동체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라며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 모든 어린이, 청소년이 마음껏 배우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보다 앞서 3대 무상교육을 실현한 광명시는 이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도 전국 최초로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지원한다.

김영의 기자

맞춤형 복지지원 주거취약계층

광명시, 주거환경개선 적극 나선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동절기 한랭질환 발생위험이 높은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명시는 기존 생활복지기동반의 방한, 방풍지원사업을 확대해 겨울철 화재, 가스누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도시가스 타이머콕, 화재감지기 등 안전물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한랭질환의 발생위험이 큰 독거노인, 장애인과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저소득 치매환자를 우선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광명시는 도시가스 타이머콕 127건, 화재감지기 17건, 방한커튼 14건, 단열.방풍벽지 부착 113건을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한파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복지지원 체감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원을 받은 김모씨는 “도시가스 타이머 콕이 필요하다고는 들었지만, 가격도 비싸고 직접 설치를 할 수 없어 포기했는데 생활복지기동반에서 직접 찾아와 도시가스 타이머 콕을 무료로 달아줘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추위뿐 아니라 화재 등 사고 발생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박승원 시장, 현장에서 답 찾다

우리동네 시장실, 소통의 시간 많아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시민들과 현장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 민선7기 출발과 함께 박승원 광명시장이 강조한 말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주요 현장 및 사업장을 방문해 주요 현안과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 현장 소통시스템 구축, 우리동네 시장실 운영

현장소통 행정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리동네 시장실”이다.

우리동네 시장실은 박승원 광명시장이 18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 하루 동안 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광명1동 △학온동 △광명2동 △소하2동 △광명3동 △소하1동 △광명4동 △하안4동 △광명5동 △하안3동 △광명6동 △하안2동 12개 동에서 우리동네 시장실을 운영했으며 내년엔 6개 동을 방문할 계획이다.

우리동네 시장실이 열리는 날이면 박승원 광명시장은 각 동에서 분주한 하루를 보낸다. 아침 일찍부터 동장으로부터 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지역현안 관련 현장 방문, 학교 방문, 취약계층 가정방문, 경로당 방문, 주민들과의 대화 등 주민 한사람이라도 더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바빠 움직인다.

■ 시민 의견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첫 번째 열린 광명1동 우리동네 시장실에서 박승원 시장은 고물상을 방문해 폐지 줍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박 시장은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주머니가 많은 조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주머니가 달린

조끼를 지급했다.

학온동에서는 한 어르신이 보건소와 거리가 멀고 노인인구가 많은 학온동 특성상 출장 독감예방접종을 요청했으며 이를 반영해 보건소에서 출장 예방접종을 완료하기도 했다.

또한 광명2동 경로당 식탁, 의자 교체와 광명3동 빗고을 경로당 김치냉장고 교체 의견을 반영해 즉시 조치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광명시는 열 두번의 우리동네 시장실을 열어 109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했으며 이중 82건을 처리했다.

도로보수, 주차단속, 교통, 도시재생 관련 민원이 많았으며 시는 시민이 제안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 시민 불편 해소 위해 현장 곳곳 방문

광명3동에서 박 시장은 광명2배수펌프장을 방문해 펌프장 아래 돌출된 철구조물이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을 보고 벽화로 꾸밀 것을 지시했다.

또한 목감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고수부지에 쫓길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학온동에서는 노리실마을 광명·수원 고속도로 교각 밑을 방문해 주민들의 여가 생활을 위한 다목적 운동장 설치를 지시하고 노인정 옆 게이트볼장을 둘러보고 노후된 시설물 교체를 지시했다.

소하2동에서는 52사단 군부대 주변 단독필지 40동 마을 주변을 방문해 쓰레기 무단투기 해결책을 함께 고민했다.

이밖에도 메모리얼파크, 광명전통시장,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 어린이공원 등 관내 곳곳을 찾아 시민불편 사항이 없는지 살폈다.

이지은 기자

궁금한 다문화가족 안국생활, 어떻게 도움을 얻을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 생활법률정보, 국적 취득과 운전면허, 친지초청에 대해



처음 한국에 오는 다문화가족들은 한국생활에 필요한 많은 정보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경기도문화뉴스는 실생활에서 다문화가족들이 궁금해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해서 시리즈로 번역 게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다누리콜센터 1577-1366에 문의하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연락처는 02-6265-1366이다.

(질문1)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면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나요?

(답1)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에서 2년 거주 또는 3년 경과 1년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간이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귀화의 요건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일 것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19세)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생계능력이 있을 것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간이귀화 허가 신청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려면 귀화허가 신청서에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서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2) 본국의 운전면허증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봐야 하나요?

(답2)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공인된 시험을 거쳐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본국에서 이미 취득한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또한, 외국인이 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외국인등록을 했거나 면제된 사람 ▲재외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외국면허증을 가진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 -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아도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질문3) 결혼이민자가 외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친지를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3) 외국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지가 대한민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증(VISA)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직접 그 국가의 재외공관(한국대사관)에 신청해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초청하려는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번호)가 발급되면 그 번호를 부모님이나 친지에게 알려주어 그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하게 합니다.

◇ 사증(VISA) 발급에 의한 입국

보통 관광이나 친지방문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3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방문(C-3)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단기방문(C-3)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대한민국에서 공증을 받은 것을 말함) 등 방문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리 받아서 사증 발급 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하면 보다 쉽게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를 돌보기 위한 이유로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더 쉽게 사증을 받아 장기간 머물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번호)에 의한 입국

원칙적으로 사증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이 직접 신청해서 받아야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양육권이 있는 미성년의 자녀를 초청하기 위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초청하려는 자녀의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16면, 베트남어 45면, 태국어 10면, 일본어 33면)

이지은 기자

광명전가다가, 이혼전후상담 및 가정보호사건 수탁기관 지정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 갖추고 놀이치료 등 통해 가족관계 향상 지원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무자)

가 2020년 이혼전후상담 우수기관 및 가정(아동)보호 사건 수탁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센터는 전문상담인력 및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을 갖추고 가족 및 개인상담, 놀이치료서비스 등을 통해 가족관계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가정보호 사건 수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에 노출된 가정에 대해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은 물론 피해아동을 위한 놀

이치료서비스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무자 센터장은 “가정(아동)보호 사건 피해아동·행위자 수탁기관 및 이혼전후상담 우수기관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로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전했다.

센터는 가족상담, 놀이치료서비스 외에도 가족사랑의 날, 가족봉사단, 다문화가족 소통프로그램, 경각교육, 한국어교육 등 가족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의 교류 소통공간 '다가온(ON)' 개소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진도서관서 개소식 및 포럼 개최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지난 12월 20일 오후 2시 통진도서관에서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의 교류 소통공간인 '다가온(ON)' 개소식 및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1부 행사로 내빈소개 및 김연화 센터장의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경과보고가 진행됐으며 축사 및 격려사 후 현판제막식과 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다가온 시설라운딩 및 다문화음식체험이 이어졌다.

3부 행사로 마련된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공간 활성화 방안' 포럼에서는 조순일 두원공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천명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서비스지원 본부장과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박성희 센터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천명옥 본부장은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공간 정책과 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진행된 발표에서 "다문화가족 306천('18) 가구 중 장기거주 비율이 60% 이상이며 그 자녀수도 22만명('17)을 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5대 중점추진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도 다가온은 매우 의미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며 "취지에 걸맞는 통합형 프로그램 확대 실시 및 공간 제공을 통해 다문화와 비다문화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자조활동과 지역사회 통합지원은 우선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지역내 여건과 고객수요조사를 통하여 적합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특화 운영이 필

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본부장은 특히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공간의 이용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간의 기능도 단순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요구도 담아내는 복합기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역마다 각각의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개설되고 결혼이주여성의 지역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기반이 되는 공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성희 센터장은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사례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센터장은 "다가온은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 간의 실질적인 융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조성된 열린 공간"이라면 군포시 다가온 특징과 시설, 운영계획 등을 밝혔다.

또한 김포시 다가온 운영과 관련 도서관과 자조모임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함께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별도의 프로그램실 마련, 간단한 요리기구 구비, 유아를 동반한 부모를 위한 제반시설 마련,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등을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와 주성우 마송중앙초등학교 교사, 김연화 센터장이 참여했다.

김옥녀 교수는 다가온이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간 교류와 소통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의 거점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민·관·영 협력체계 구축 및 활용,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이용성 확대, 지역사회 소통 교류를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활용성 극대화 등을 제안했다.

주성우 교사는 다문화가족소통공간 활성화 방안으로 다문화 배경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용시간 등 환경 조성 및 소통공간 운영 등 공간을 사용하는 주체로서 운영에 관한 의견 개진 통로 마련, 초등 저학년 돌봄서비스 제공,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공간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한 입국 초기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실 운영 및 다문화학생 대상 기초학력 지도를 위한 1:1 멘토리 운영, 한국문화와 육아 및 한국학교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교육 등을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했다.

김연화 센터장은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가온과 통진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실 연계 시범운영 사례 및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센터장은 "김포시 다가온은 통진도서관 다문화자료실과 공유하기에 음식 만들기, 다과나 음식·놀이 프로그램 등은 다소 제약이 있지만 타시군구 다가온과는 다른 강점을 찾아 시너지 효과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 또한 김포시 다가온 활성화와 관련 김포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김포형 다가온 모델 개발, 패러다임 전환, 민·관·학 연계, 예산 확보 및 자원봉사센터와 연계 자원봉사자 확충, 홍보 다각화 등을 제안했다.

김영의 기자



국민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제도란?



개요	임신·출산 관련 출산신체화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진료비를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
지원금	임신 1회 기준 60만원(다태아 100만원)
지원금 사용기간	분만에정일(유·출산일)로부터 1년
대상	임신·출산, 유산(자궁의 임신 포함), 사산
지원금 이용범위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1회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로도 사용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를 산부인과 병·의원 에 제출 →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출산확인정보를 공인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입력 → 임신부자 직접 상담이나 카드사 홈페이지 (어플) 또는 전화로 지원금 및 카드 신청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 | | |
|--------|---|
| ♥ 대상 | 국내비 상 선인 상태가 유요한 난임 부부(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은 부부도 가능) |
| ♥ 내용 |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보조생식) 및 관할 진료에 건강보험 적용
(연44세 이하 본인부담금 30%, 연45세 이상 본인부담금 50%) |
| ♥ 인정횟수 | 신선비야 7회(5회부터 본인부담금 50%), 동결배야 5회(4회부터 본인부담금 50%)
인공수정 5회(4회부터 본인부담금 50%) |
| ♥ 적용절차 | 난임자 시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후 시술 진행 |



조산아,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경감

- | | |
|------|---|
| ♥ 대상 | 태대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2.5k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로 공단에 건강 신청한 경우, 등록일로부터 만 3세까지 |
| ♥ 혜택 | 외래진료 시 병원종별 및 상병구분 없이 동일하게 10% 본인부담률 적용 (1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의약품 5% 적용) |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경감**

- ♥ 대상 | 출생일로부터 364일까지의 영유아
- ♥ 혜택 |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감경되어
상급종합병원 20%, 종합병원 15%, 병원 10%, 의원 5% 적용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안내	
검진차수	접종 종류
1차 생후 4~6개월	B형간염: 6개월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폴리오, 폐렴구균, Hib(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2차 4개월 / 3차 6개월
2차 생후 9~12개월	MMR(홍역/유행성 이하선염/풍진), 수두: 1차 12~15개월 Hib(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4차 12~15개월 일본뇌염 사백신 1,2차 또는 생백신: 1차 12~23개월 / A형간염: 1차 12개월
3차 생후 18~24개월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4차 15~18개월 일본뇌염 사백신 3차 또는 생백신 2차: 24~35개월 / A형간염: 2차 18~30개월
4차 생후 30~36개월	일본뇌염 사백신 3차 또는 생백신 2차: 24~35개월 ※ 24개월 이후 일본뇌염 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
5~7차 생후 42~71개월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만4-6세 / 폴리오: 4차 만4~6세 MMR(홍역/유행성 이하선염/풍진): 2차 만4~6세



Dưới đây là nội dung liên quan đến chương trình hỗ trợ phi khám chữa khi mang thai, sinh đẻ của Bảo hiểm y tế quốc gia.

Khái quát về chương trình hỗ trợ	Chế độ hỗ trợ về chi phí khám chữa của Bảo hiểm y tế quốc gia thông qua phiếu sử dụng (thẻ "công dân hạnh phúc") nhằm xây dựng môi trường thân thiện với trẻ em liên quan đến việc mang thai, sinh đẻ.
Số tiền hỗ trợ	600.000 won/1 lần mang thai (Đa thai: 1.000.000 won)
Đối tượng	Mang thai, sinh đẻ, sản thai/thai ngoài tử cung), thai chết lưu
Thời hạn sử dụng tiền hỗ trợ	1 năm kể từ ngày dự sinh (ngày sảy thai, ngày sinh đẻ)
Phạm vi sử dụng tiền hỗ trợ	Phi khám chữa liên quan đến mang thai, sinh đẻ của sản phụ Có thể sử dụng làm phí khám chữa cho trẻ sơ sinh dưới 1 tuổi
Phương pháp đăng ký	► Điền nội để đăng ký: Xin cấp "Đơn xin thanh toán phí khám chữa cho mang thai, sinh đẻ theo bảo hiểm y tế" tại Trung tâm y tế, bệnh viện cấp sơ sản – Đền công ty cấp thẻ (ngân hàng) hoặc chi nhánh Bảo hiểm y tế quốc gia để đăng ký ► Đăng ký trực tuyến: Nhập thông tin xác nhận mang thai, sinh đẻ do Trung tâm y tế, bệnh viện phụ sản cấp vào trang chủ của Bảo hiểm y tế quốc gia (Công thông tin các cơ quan y tế) – Sản phụ nộp tiếp đăng ký thẻ và tiền hỗ trợ thông qua trang chủ (ứng dụng) hoặc gọi điện để đăng ký



Mở rộng phạm vi áp dụng bảo hiểm y tế cho "thủ thuật chữa vô sinh"

- | | |
|--------------------------------|---|
| ♥ Đối tượng | Các cặp vợ chồng vô sinh có tình trạng hôn nhân đang còn hiệu lực theo pháp luật Hàn Quốc |
| ♥ Nội dung | Áp dụng trợ cấp bảo hiểm và y tế cho các thủ thuật (công nghệ hỗ trợ sinh sản) và các phương pháp điều trị liên quan dành cho cặp vợ chồng vô sinh |
| ♥ Số lần được công nhận | Phối tử 7 lần (Bệnh nhân chi trả 50% nước 4 lần). Phối tử đông lạnh 5 lần (Bệnh nhân chi trả 50% nước 3 lần). Tỷ tinh nhân tạo 5 lần (Bệnh nhân chi trả 50% nước 3 lần) |
| ♥ Thủ tục áp dụng | Thực hiện thủ tục sau khi các nhận thuộc đối tượng áp dụng bảo hiểm và y tế tại các cơ quan y tế được chỉ định, phải được chữa vô sinh. |



Giảm gánh nặng "chi phí điều trị ngoại trú cho trẻ sinh non, trẻ sơ sinh nhẹ cân"

- ♥ Đối tượng:** Áp dụng từ ngày đăng ký đến 3 tuổi nếu đăng ký giảm chi phí tại Bảo hiểm y tế quốc gia đối với những trẻ sinh non dưới 37 tuần tuổi hoặc trẻ sơ sinh nhẹ cân từ 2.5kg trở xuống.
- ♥ Ưu đãi giảm chi phí:** Áp dụng tỷ lệ chi trả của bệnh nhân đồng mức 10%, không phân biệt loại bệnh viện và giường bệnh khi điều trị ngoại trú (Nếu là trẻ sơ sinh dưới 1 tuổi thì áp dụng mức 5% tại trung tâm y tế).



Giảm gánh nặng về "chi phí điều trị ngoại trú cho trẻ sơ sinh dưới 1 tuổi"

- ♥ **Ưu đãi giảm chi phí:** Giảm tỷ lệ chi trả của người bệnh trong số chi phí điều trị ngoại trú, áp dụng mức 20% tại bệnh viện đa khoa cao cấp, 15% tại bệnh viện đa khoa, 10% tại bệnh viện, 5% tại trung tâm y tế

Hướng dẫn về chương trình kiểm tra sức khỏe cho trẻ sơ sinh và tiêm chủng quốc gia	
Số lần kiểm tra	Hướng dẫn về tiêm chủng
Lần 1: 4-6 tháng sau sinh	Viêm gan B: 6 tháng DTaP (Bạch hầu/uốn ván/ho gà), Bại liệt, Phế cầu khuẩn, Hib (Haemophilus influenzae type B): Lần 2 – 4 tháng/Lần 3 – 6 tháng
Lần 2: 9-12 tháng sau sinh	MMR (Sởi/quai bị/rubella), Thủy đậu: Lần 1 - 12-15 tháng Hib (Haemophilus influenzae type B), Phế cầu khuẩn: Lần 4 - 12-15 tháng Viêm não Nhật Bản - vắc xin hoặc lần 1, 2 hoặc vắc xin sống giảm độc lực: Lần 1: 12-23 tháng Viêm gan A: Lần 1 – 12 tháng
Lần 3: 18-24 tháng sau sinh	DTaP (Bạch hầu/uốn ván/ho gà): Lần 4 – 15-18 tháng Viêm não Nhật Bản - vắc xin hoặc lần 3 hoặc vắc xin sống giảm độc lực: Lần 2: 24-35 tháng Viêm gan A: Lần 2 – 18-30 tháng
Lần 4: 30-36 tháng sau sinh	Viêm não Nhật Bản - vắc xin hoặc lần 3 hoặc vắc xin sống giảm độc lực: Lần 2: 24-35 tháng ※ Trẻ không tiêm phòng viêm não Nhật Bản kể từ sau 24 tháng
Lần 5: 7-12 tháng sau sinh	DTaP (Bạch hầu/uốn ván/ho gà): Lần 5 – 4-6 tuổi / Bại liệt: Lần 4 – 4-6 tuổi MMR (Sởi/quai bị/rubella): Lần 2 – 4-6 tuổi



Programs at the Gimpo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 Education of Korean
 - Provides Korean education to understand Korean culture (4 courses, TOPIK class)
- Understanding of cultural diversity
 - Helps participants realize their role in the family and learn multiculturalism
- Vocational training
 - Offers married immigrants opportunities to strengthen their capabilities
- Consultation
 - Implements counseling to married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to improve their relations
- Home-visiting services provide
 - Language education
 - Childcare & maternity treatment
- Promotion of local community
 - Volunteer activities
 - Build solid community networks
 - Promote local community
- Program for specialization
 - Translation service (Vietnamese)
 - Support local events

金浦市多文化家族支援中心
工作指南

- 家庭活动
造成两种语言环境活动, 家庭思想沟通活动, 父亲教育, 父母子女关系与自豪感形成活动, 子女健康指导, 家庭的意义和角色教育等
- 性平等活动
配偶夫妻教育, 配偶理解教育等
- 社会统合活动
就业培训专业机关搭桥, 结业基础素质教育, 适应韩国社会教育, 消费者经济教育, 多元文化家庭自助聚会, 改善多元文化认识, 多元文化家庭自愿义务奉献团等。
- 人权活动
多元文化理解教育, 人权感性教育等。
- 个人及家庭 咨询
结婚移民者及她们的家庭为对象电话或面谈以及在韩国生活中提供需要的信息, 为了解决问题和改善关系心理・情绪有关的咨询。
- 访问教育事业
韩国语教育, 父母教育, 子女教育
- 特性化事业
- 翻译服务支援(越南语, 中国语)
- 语言发育支援事业(-12岁以下)
针对存在语言交流问题的多元文化家庭的子女实施语言发育测试, 支援和教育
- 韩国语教育
熟悉生活用语, 理解文化, 按阶段具体的提供韩国语教育(1-4阶段, 基础班, 韩国语能力考试班)
- 外国人居民子女韩国语
与多元文化家庭子女居多的阳谷, 通津地区的小学搭桥, 提供寻访韩国语教育
- 能力强化(就业教育支援事业)
- 咖啡师营造课程, 学历学业支援
- 基础修养教育(填写简历及面试教育)
- 多元文化报纸订阅支援
- 多元文化家庭雷鋒
- 趣味小组聚会支援事业

后援帐号/农行301-0097-4753-81
金铺市多元文化支援中心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Gimpo
* Nội dung hoạt động năm *

- **Chương trình giảng dạy cho gia đình :**
Chương trình hoàn thành trong môi trường song ngữ đa văn hóa, chương trình hiểu ngôn ngữ gia đình, chương trình nâng cao mối quan hệ gia đình, hướng dẫn chăm sóc sức khỏe con cái, giáo dục về vai trò y nghĩa của gia đình, văn bản
 - **Chương trình tình nguyện xã hội :**
Giáo dục về công đồng, chương trình hiểu người bạn đời, văn bản
 - **Chương trình tổng hợp xã hội :**
Liên kết với các cơ quan chuyên gia huấn luyện xin việc, giáo dục tri thức cơ bản khi xin việc, giáo dục thích ứng với xã hội hàn quốc, giáo dục về kinh tế - người tiêu dùng học đồng hương của gia đình đa văn hóa, cải thiện nhận thức gia đình đa văn hóa, đội tình nguyện gia đình đa văn hóa, văn bản
 - **Chương trình nhân quyền :**
Giáo dục hiểu biết gia đình đa văn hóa, giáo dục cảm nhận về nhân quyền
 - **Tư vấn cho cá nhân và gia đình**
Cung cấp các thông tin cần thiết về sinh hoạt tại Hàn Quốc thông qua tư vấn bằng điện thoại, tư vấn trực tiếp, tư vấn liên quan đến tâm lý tình cảm nhằm giải quyết vấn đề và cải thiện mối quan hệ cho phụ nữ di trú và gia đình họ.
 - **Giáo dục tại nhà :**
Hoạt vụ giáo dục tiếng hàn, giáo dục phụ huynh - dịch vụ sinh hoạt con cái .
 - **Học động đặc biệt**
- Dịch vụ hỗ trợ thông, phiên dịch (tiếng Việt nam, tiếng trung quốc),
- hỗ trợ phát triển ngôn ngữ dành cho trẻ em dưới 12 tuổi, đánh giá tình hình phát triển ngôn ngữ của trẻ em gia đình đa văn hóa và theo đó tiến hành giáo dục một cách thích hợp nhất .
 - **Dạy tiếng Hàn**
- Dạy tiếng Hàn một cách có hệ thống theo từng trình độ nhằm giúp phụ nữ di trú nắm vững các từ ngữ trong đời sống sinh hoạt và hiểu văn hóa Hàn Quốc (lớp cấp độ 1~4, lớp TOPIC)
 - **Dạy tiếng hàn quốc cho con em gia đình đa văn hóa**
Khu vực yangjuk và jongin tập trung nhiều con em trong gia đình đa văn hóa thông qua trường tiểu học nhằm tiếp cận nhận dịch vụ giáo dục tiếng hàn.
 - **Đào tạo nghề và liên kết giới thiệu việc làm.**
- Thiết lập mạng lưới liên kết đào tạo cơ bản và giáo dục nghề, thi cử
- Hướng dẫn viết sơ yếu lý lịch dạng văn bản, phỏng vấn khi đi xin việc
 - **Hỗ trợ báo gia đình đa văn hóa cho gia đình đa văn hóa**
 - **Nhóm tình nguyện viên**
- Số tài khoản ngân hàng gộp : 301-0097-4753-81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kimpho

Số tài khoản nguyên góp : 301-0097-4753-81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oá kimpho



김포에서 다양한 가족 위한 무료진료 실시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 김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에 진행

김포시의 다문화가족과 LH한가람마을 2단지 행복주택 거주 어르신들이 무료진료에 참여했다.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손용민과,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지난 12월 22일 센터 내에서 경찰병원 봉사회와 함께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국내 거주 이민자들과 그 가족들, 센터가 소재한 LH 한가람마을 2단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의료사각 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은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에서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날 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봉사동아리 ‘무지개선생님’들은 아침 일찍 센터에 모여 의자 및 집기를 나르는 등 진료공간 마련을 도왔다.

또한 베트남어, 중국어, 태국어, 필리핀어 등의 통역을 지원, 다문화가족 진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쉬는 시간에는 현장에서 다문

화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다문화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해 지역사회의 다문화감수성 향상을 위해서도 일했다.

이날 무료진료에서는 접수와 예진 후 내과, 비뇨기의학과, 치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진료가 이뤄졌다. 정형외과는 레이저 물리치료를 통한 시술을 추가로 진행했다.

이날 진료에 참여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는 “직장을 다니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없고 또 가도 의사선생님과 대화가 안된다”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무릎이 아파도 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통역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손용민 관장은 “이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찰병원 봉사회와 함께 무료진료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여러 기관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도움으로 이런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개소

"행복한 아이, 편안한 부모"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을 위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가 27일 통진 매수리마을 1호점에 이어 30일 장기동 수정마을 2호점이 잇따라 개소했다.

개소식에서 정하영 시장은 “젊은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육아와 교육”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키우는 돌봄센터를 통해 아이들은 행복하고 부모들은 편안한 직장생활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이번 1, 2호점을 시작으로 김포 관내 모든 공공건물 내에 돌봄센터와 육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100호점을 목표로 돌봄센터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선7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에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절실히 필요했던 아이들에게 돌봄과 학습지도, 특기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시설이다.

특히, 돌봄센터 1, 2호점은 LH김포지사의 협조(10년간 무상임대)로 개소한 시설로, LH김포지사 박명수 지사장은 “김포 관내 LH가 공급한 아파트 18개 단지 모든 곳에 돌봄센터가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으로, 이를 통해 18개 단지 17,000여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김포시 직영으로 운영되는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는 센터장 1인, 돌봄교사 2인 등 3명의 교사가 재미있고 행복한 센터생활을 목표로 숙제 등 학습지도, 미술·악기 등 특기교육, 게임·영상시청 등 선택교육, 지역 내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동 참여 등 지역영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은 학기 중에는 13시부터 19시까지, 방학기간에는 9시부터 18시까지다.

이지은 기자

이룰댄스컴퍼니와 함께 하는 다문화가족들의 즐거운 전통무용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과 함께 문화공연 관람 진행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지난 12월 15일 김포아트홀에서 다문화가족 40여명과 함께 “가족과 함께 문화공연관람”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김포아트홀 상주예술단체인 “2019 이룰댄스컴퍼니 정기공연-지랄발광” 사업의 일환으로 무료 초청, 진행되었으며 이룰무용단(단장 김성은)은 축하화환 대신 쌀을 기부받아 그 쌀 8포를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한부모가정에 기부했다.

이날 공연된 작품은 ‘보여지는 움직임에 가려져 몸을 지탱하는 발을 우리의 노력의 힘과 비유하여 주인공으로 표현’함으로써 모두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공연을 관람한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족이 함께 공

연을 보는 일이 쉽지 않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 가족 간의 추억을 쌓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를 지원한 김성은 단장은 “가족들이 함께 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춤을 통해 다문화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역할을 하고싶다”고 말했다.

김연화 센터장은 “센터도 오늘 공연과 같이 새로운 가족친화 사업을 추진하여 김포시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과천시,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 대상

과천시는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돕기 위해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을 2월까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점 발굴대상은 정부나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소외계층으로 △일자리 잃거나 휴업, 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중환 질환이나 부상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가족을 잃고 생계가 어려운 가구 △빛이나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가구 등이다.

과천시는 각 동주민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과천종합사회복지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고위험 취약계층 가구에 대

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도움이 필요한 가구로 발굴된 가구는 공공·민간복지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경우는 시 복지정책팀 또는 동 맞춤형복지팀에서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시에서는 한파를 대비하여 취약계층에 대해 온풍기, 전기장판 등 물품을 지원하며, 1일 안부전화를 실시해 안전사고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심명순 과천시 복지정책과장은 “취약계층이 경제적 여건과 한파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알고 있다면 각 동주민센터나 시 복지정책과로 연락하거나 각 동주민센터 앞에 비치된 희망나눔 우체통을 이용해 사례를 공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겨울방학 '초등학생 바른자세교실'

과천시 바른자세의 중요성 알리기 나서



과천시는 아동·청소년기의 바른자세 습관 형성과 척추질환 예방을 위한 ‘초등학생 방학특강 바른자세교실’을 운영한다.

1월 7일부터 4주간 운영되는 방학특강 바른자세교실은 과천시보건소 홈페이지(www.ghc.go.kr/)와 전화(02-2150-3859)를 통해 선착순 30명에 한해 신청을 받는다.

교육은 관내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매

주 화요일과 목요일 1시간 동안 주2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에서는 전문 강사와 함께 고관절 교정, 목·허리, 어깨 통증을 예방을 위한 근육 이완 운동과 바른자세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에는 각각 척추전방굴곡검사를 실시해 척추 측만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김향희 보건소장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척추측만증 등 척추 질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바른자세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각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바른자세 습관 형성을 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2020년 레미안슈르 「마을돌봄나눔터」

신규 이용 접수 안내

본 센터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홀로 있는 초등 자녀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양육 친화적인 돌봄 운영의 일환으로 레미안슈르 「마을돌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신규 이용 아동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이용대상 : 레미안슈르 아파트 거주 초등학생 대상
 - 1) 우선 이용 가정 : 사회적 배려 가정, 맞벌이 가정, 조손 가정 등
 - 2) 선정 방식 : 신청 기간 내 마을돌봄나눔터 방문 접수 후 공개 추첨(접수증 발급)
 - 3) 동 순위 내에서는 저학년 우선 선정
- 모집인원 : 30명 (기존 1학년 이용자 포함)
- 신청기간 : 2020. 1. 6.(월) 13:00 ~ 1. 17.(금) 19:00
- 이용자신청방법 및 일정:
레미안슈르 마을돌봄나눔터 방문 접수(이용 신청서 작성, 접수증 발급)
→ 공개추첨(1.20(월) 19:30, 대기자 발생시 대기자 추첨도 진행)
※ 추첨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 발생시 개별 통보
→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일정 추후 안내)
- 이용기간 : 2020. 3. ~ 2021. 2. (1년 단위로 신청)
※ 신청문의 : 레미안슈르 마을돌봄나눔터 ☎ 02-504-0094 *13:00~19:00(1/15 이후 9:00~19:00)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2-503-0070 *9:00~18:00 (담당자 : 황효숙)
※ *은 통화가능시간(점심시간 12:00~13:00)

이용 안내

- 이용시간 : 학기중 13시~19시 / 방학중 09시~19시
- 이용장소 : 레미안슈르 GX 커뮤니티센터(스포츠센터) 내 1층
- 월 이용료 : 50,000원 (분기별 수납)
- 인력 및 프로그램 내용 :

운영인력	담당 교사 2명 상주 근무
연 중	돌봄(일상생활 및 급간식관리), 놀이, 독서 및 학습지도, 주중 프로그램(실내체육, 미술, 보드게임, 과학놀이터, 코딩, 독서활동, 방송댄스 등) 운영
상 시	특별 프로그램(가족활동, 지역환경미화, 체육대회, 외부체험 및 인성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 : 과천시
Gwacheon-si

본 마을돌봄나눔터는 과천시에서 지원합니다.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정복지지원) 운영

과천시

과천화폐

「과천토리」

새해맞이특별할인

기간: 2020. 1. 1 ~ 1. 31
예산 소진 시 특별할인판매 조기 종료

15억 한정판매

10%

과천화폐 「과천토리」 사용안내

▶ 종류 및 구매처

종이형 | 관내 농협 9개소(단위 농협 포함)
카드형 | 스마트폰 앱(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관내 NH농협은행

▶ 할인율 및 구매한도

※ 상시 할인율: 5%		
구분	특별 할인율	구매한도
개인	10%	월 40만원

※ 한도 초과 구입 시 할인혜택 없음

※ 법인, 단체, 공공기관 구입 시 할인 적용 제외

▶ 사용처

1,000여개 과천시 지정 가맹점
※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사행성업종, 유흥업종 제외
※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홈페이지 참조



문의 | 과천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02-3677-2444

안양 모두가족봉사단,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어 지역사회와 나눴어요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자녀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나눔

안양에서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모두가족봉사단의 마지막 봉사활동이 진행됐다.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연주)는 지난 12월 14일 센터 3층 행복나눔방에서 다문화소통프로그램 모두가족봉사단 '다자녀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나눔'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함께 봉사하는 기회를 갖고, 지역사

회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며 더불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다자녀 다문화가족 및 모두가족봉사단 53명이 참여했다.

센터에 모인 가족들은 멋진 크리스마스 케익 28개를 정성스레 만들어 '사랑의

밥상, 평화의 집, 민들레프락십터' 등 후원기관에 전달했다.

대학생이 된 자녀들의 손길에 따라 멋지게 만들어지는 케이크도 있고, 유치원생의 꼼지락거리는 작은 손으로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지는 귀여운 케이크도 있었다. 11번째 두 딸을 포함해 4명의 가족이 가족봉사단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신명근 씨에게 오랫동안 가족이 함께 봉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오랜 시간 가족이 함께 가족봉사단으로 봉사할 수 있어서 좋다. 봉사를 뭔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며 “이곳에서의 봉사는 가족이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듯 시간이 되는데로 참여해서 더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봉사하는 동안 가족에 대해 더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기술을 넘어
일자리를
생각합니다”

2020학년도 경기도기술학교
무료기술교육생 모집

구분	1년과정	선행기 주일 단기과정	후반기 주일 단기과정
모집과정	컴퓨터응용기계 / 전기설비 / 전기제어 / 특수용접 / 불연도열공 / 그래픽디자인 / 친환경자동차장비	CHC선반 & 여성산업 / 생산자동화시스템 / 전기설비 / 전기용접 / 3D프린터 실무 / 포토샵디자인 / 자동차장비	3D모델링(캐드 & 3D프린팅) / 생산자동화시스템 / 내선전기 / 특수용접 / 3D디자인 실무 / 일러스트디자인 / 자동차장비
원서접수기간	1차 : 2019.11.01.~2019.12.15. 2차 : 2019.12.16.~2020.02.16.	2020.01.02. ~ 2020.03.26.	2020.07.01. ~ 2020.08.26.
교육기간	2020.03.02. ~ 2021.02.09.	2020.04.04. ~ 2020.06.27.	2020.09.05. ~ 2020.11.21.
교육시간	월 ~ 금 (09:00 ~ 17:30)	토요일 (09:00 ~ 17:30)	토요일 (09:00 ~ 17:30)

세부 모집사항은 경기도기술학교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기술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31-770-9832~5, 팩스: 031-770-9832, e-mail: gti@gti.go.kr, www.gti.go.kr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안내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해소하고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조기정착과 다문화 가족 간의 관계향상을 돕기 위해 통번역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제공대상 :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이용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18:00
♡ 지원언어 : 베트남어
♡ 문의 및 이용방법 : 전화 031-8045-5706 담당 도수연
방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8(비산동) 동안구청 별관 동안문화관 2층.

HƯỚNG DẪN DỊCH VỤ THÔNG BIẾN DỊCH DÀNH CHO NGƯỜI KẾT HÔN DI TRÚ

Hỗ trợ dịch vụ thông biên dịch nhằm giúp đỡ cải thiện mối quan hệ giữa gia đình đa văn hóa và giúp ổn định thời kỳ đầu nhập cảnh của người kết hôn di trú và giải quyết khó khăn về giao tiếp giữa gia đình đa văn hóa.

♡ Đối tượng nhận dịch vụ: Gia đình đa văn hóa và các cơ quan hoặc cá nhân hỗ trợ trực tiếp, gián tiếp cho gia đình đa văn hóa.
♡ Thời gian sử dụng: 09:00 ~ 18:00 thứ hai ~ thứ sáu
♡ tư vấn: người phụ trách do수연 (THOA) 031-8045-5706



안양시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6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45회기에 걸쳐 결혼이민자 피부미용 국가자격증 과정 ‘배우Go, 취업하 Go, 고고클래스’를 진행했다.

KB국민카드 다문화가정 자립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이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경제 활동 참여를 높이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센터 측은 안양시의 미용전문기관인 IBR 뷰티스쿨과 연계해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필기 및 실기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2018년 헤어자격증과 한식 조리사 자격증, 사회적 경제창업교육에 이어 2019년에는 피부미용 자격증 과정에 나선 것.

피부미용사는 고객 상담과 피부분석을 통해 안정감 있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얼굴과 신체 부위별 피부를 미용기와 화장품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

다. 6개월에 걸친 집중 수업과 전문적인 지도의 결과 13명(중국 7명, 필리핀 2명, 베트남 2명, 일본 2명)이 과정에 참여해 7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며 실기시험을 거쳐 4명이 최종적으로 자격증 취득에 성공했다. 3명은 1월에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 활동 지원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며 “자격증 취득 후 취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취업처를 연계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경제 주체로서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카드는 2015년도부터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자립 지원 사업을 펼쳐 2018년까지 700여명의 이주여성들에게 자격증 취득과 직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안양사랑상품권 설맞이 10%특별할인 월30만원

안양사랑상품권이 10%할인된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제공된다.

안양시는 지역상권 보호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설 연휴를 전후로 안양사랑상품권을 10%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기간은 설 명절 전인 내년 1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다.

시민들은 이 기간 관내소재 농협은행 36개소에서 기존할인율(6%)에서 4%가 추가된 10%할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월 30만원까지이며 구매 시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안양의 지역화폐인 안양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에서 얻은 소득을 지역에서 소비토록 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안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전통시장 상점이나 동네슈퍼 또는 음식점 등 관내 어느 점포에서든지 일반 화폐처럼 사용 가능하다.

가맹점은 안양시홈페이지(www.anyang.go.kr)와 ‘안양사랑상품권가맹점 검색’ 어플 앱에서 검색할 수 있다. 또 가맹점등록 점포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확인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설을 맞아 원하는 품목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활기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구매 및 사용을 권장했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 생활정보, 티켓 안장으로 무제한 열차 이용 ‘내일로 패스’

‘Tomorrow Pass’ expanded to 34 years of age and sold 1,000 copies in 8 days

In order to revitalize domestic travel, young people's interest in the Tomorrow Pass, which increased the age of use from 27 to 34, has increased.

According to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KORAIL), the pass sales volume exceeded 1,000 cases as of the 19th of the winter season.

KORAIL explained that the pass sales surpassed 1,000 in eight days in the winter season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 KORAIL official said, "Last year, it was a couple of days faster to sell 1000 copies this year, compared to 10 passes for 1,000 passes this year."

Tomorrow Pass is a ticket that allows young people to use unlimited number of trains except domestic KTX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demand for domestic travel increased during the winter vacation, and the increase in the age of use from 27 to 34 was influenced by the increase in sales

volume. However, it will only be temporarily extended for about one year until next winter season, and the age of use is expected to return to 27 years from summer season of 2022.

KORAIL extended the age of use to the age of 29 for a limited time in order to revitalize domestic travel during the MERS outbreak in 2017, but this is the first time that it has expanded to 34.

The ticket price for tomorrow is 50,000 won for 3 days, 60,000 won for 5 days and 70,000 won for 7 days.

Because the train can be used for 50,000 days for 3 days without restriction, it is often used by college students who are burdened with travel expenses.

In addition, if you purchase two-person tickets, you can purchase at 90,000 won, 110,000 won, and 130,000 won, respectively, so you can save additional costs. If you are going to use a two-person pass tomorrow, the two passengers listed on the pass must

use it together.

Tomorrow Winter Pass is valid until February 29, 2020.

Travelers who buy tickets tomorrow can use unlimited seats or free seats on ITX-Saemaul, Saemaul, Nuriro, Mugunghwa, and ITX-Youth trains. KTX and tourist trains cannot be used.

According to the KORAIL, the routes that travelers usually use through the pass are ▲Yongsan~Jeonju~Yeosu~Suncheon~Busan~Dongdaegu~Seoul ▲Seoul~ Gangneung~Danyang~Busan~Dongdaegu~Seoul ▲Yongsan~Jeonju~Yeosu~Suncheon~Busan, Dongdaegu, Danyang, Gangneung, and Seoul.

"We have increased the age of use of representative train travel products tomorrow to add a little to the local economy," said KORAIL Lee Sun-kwan, director of customer marketing. "I hope more young people can have good memories with the train."

〈한글 기사 44면〉

이지은 기자



화성 다문화가정 자녀의 따뜻한 겨울나기 K=water 화성권관리단, 화성다가에 성금 전달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현주, 화성다가)는 지난 12월 17일 오전 ‘K-water 화성권관리단(단장 김우용)’으로부터 화성시 다문화가정 자녀의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20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날 전달받은 성금은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돌봄사업 특화 프로그램인 ‘우리동네, 빅마마’의 대상자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용된다.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빅마마 활동가를 통해 겨울 물품을 구입한 후 각 가정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지난 7월 26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K-water 화성권관리단은 다문화가정 자녀돌봄사업(우리동네, 빅마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과 활동을 하고 있다.

자녀돌봄사업은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빅마마 활동가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학습, 기본생활 습관지도, 놀이, 문화체험 등을 실시하는 정서지원 사업이다.

이현주 센터장은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는 K-water 화성권관리단 직원들의 지속적인 후원에 감사하고, 다문화가족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소외된 이들이 없는 밝은 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화성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도 교복비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화성, 다문화가정에도 도움

화성시는 2020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도 교복비 지원한다.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2020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1만8788명 대상이다.

24일 화성시에 따르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지원예산 56억 3500만원(시비 14억3900만원 포함)을 확보했다.

무상교복비 지원 방법은 관내 중고등학교를 통한 현물 지원(학교주관 구매제도) 혹은 현금 지원으로 이뤄진다.

학교주관 구매제도는 입찰경쟁으로 교복을 구매하는 것으로, 학부모가 교복 품질 및 가격결정 등에 참여하는 제도다. 비인가 대안학교 및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입학 시에는 최대 30만 원 이내로 교복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각 입학예정학교 별 상이하며 화성

오산교육지원청으로 문의 전화하면 된다.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 시에는 내년 6월부터 12월 사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성시청 교육협력과로 문의 및 접수하면 된다.

성홍모 화성시 교육협력과장 “올해 처음 도입한 중학교 교복지원사업이 학부모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어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수 있었다”며 “우리 아이들이 가정환경과 관계없이 차별없는 교육을 보장받고,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중학생 입학생 교복지원사업으로 총 9561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이번 지원 예산안은 지난 18일 화성시의회 본회의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예산이 통과됐다.

이지은 기자

34세로 확대한 내일로 패스

티켓 1장으로 무제한 열차이용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월부터 이용연령을 기존 만 27세에서 만 34세로 늘린 ‘내일로 패스’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동계시즌 내일로 패스 판매량이 지난 19일 기준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

동계 시즌 내일로 패스 판매량이 8일 만에 1000장을 돌파한 것은 예년에 비해 빠른 속도라는 게 한국철도공사 측의 설명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해 동계 시즌 내일로 패스가 1000장이 판매되는 데 열흘 가량 걸린 데 비해 올해는 1000장이 판매 시점이 2~3일 가량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내일로 패스는 청년들이 티켓 한 장으로 일정기간 동안 국내 KTX를 제외한 모든 열차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겨울방학을 맞아 대학생들의 국내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이용연령을 기존 만 27세에서 만 34세로 확대한 것이 판매량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내년 겨울 시즌까지 약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확대되는 것이어서 2022년 여름 시즌부터는 다시 이용연령이 만 27세로 돌아갈 전망이다.

철도공사는 지난 2017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만 29세까지 이용연령을 확대한 적이 있으나 만 34세까지 확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일로 패스 티켓 가격은 3일권은 5만원, 5일권은 6만원, 7일권은 7만원이다. 5만원으로 3일 동안 기차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대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편이다.

또한 2인권을 구입하면 각 9만원, 11만원, 13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내일로 2인권을 쓸 경우 패스에 등록된 이용객 두 명이 함께 사용해야 한다.

동계 시즌 내일로 패스는 2020년 2월 29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내일로 티켓을 산 여행자들은 ITX-새마을, 새마을,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 열차의 입석 또는 자유석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KTX와 관광전용 열차는 이용할 수 없다.

코레일에 따르면 내일로 패스를 통해 여행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코스는 ▲용산~전주~여수~순천~부산~동대구~서울 ▲서울~강릉~단양~부산~동대구~서울 ▲용산~전주~여수~순천~부산~동대구~단양~강릉~서울 등이다. <영어 기사 43면>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화성시청 1577-4200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267-8786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031-8059-1261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031-267-1526 다모임한사랑복지 031-357-0888 까리따스이주민화성센터 031-354-5222 화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290-08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어 학습,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올웨이즈상담복지협회 ‘놀이와 함께하는 한국어교실 심화프로그램’



화성시의 비영리단체인 올웨이즈상담복지협회(대표 김순덕)는 지난 11월 4일 ~12월 24일 남양중학교에서 중도입국학생을 대상으로 ‘놀이와 함께하는 한국어교실’을 60회기 운영했다.

화성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 이 프로그램은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놀이와 함께하는 한국어’ 교육을 통해 학습 흥미 및 동기부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집단상담을 통한 심리 정서 지원으로 자존감 향상, 친구들과의 소통과 사회성 향상에 목표를 두었다.

김순덕 대표는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어 습득 정도는 학업 성취도와 자존감에 영향을 주고 학교생활 적응력을 좌우하게 된다”며 “놀이를 활용한 언어교육은 언어에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습득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한국어교실에 참여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중도입국청소년은 “재미있고,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어 좋았다. 한국어를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중학교에 입학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의사소통이 안되고 수업 적응이 안되어 학생, 교사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습참여를 높이고 관계향상에 도움을 주어 학교적응력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시도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협회는 입국경로가 다양하고 한국어가 서툰 청소년과 그 가족의 한국생활 조기 정착과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화성시 26일 웃음만발 놀이숲 체험장 준공에

화성시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가족이 함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웃음만발 놀이숲 체험장’ 2개소를 향남읍과 봉담읍에 준공했다고 26일 밝혔다.

놀이숲 체험장은 기존의 유아숲 체험장이나 어린이 놀이터와 달리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과 함께 생태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조성된 향남읍 놀이숲은 향남읍 상신리 산 107-1에 4,700㎡ 규모로, 봉담읍 놀이숲은 봉담읍 동화리 635번지에 2,800㎡ 규모로 그물해먹, 짚라인, 나무사이 미끄럼틀, 원형징검다리, 옷놀이판, 고리던지기 등 8종의 놀이기구를 갖췄다.

또한 환경문제를 생각해 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안내판도 설치됐다.

이지은 기자

Kênh thông tin luật pháp dành cho gia đình đa văn hóa

Tìm hiểu về bảo lãnh người thân, cách thi bằng lái xe và quốc tịch

(Câu Hỏi 1)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sau khi kết hôn với người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thì có thể được cấp quốc tịch Hàn quốc ngay không?

(Đáp 1)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sau khi kết hôn với người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sẽ có thể định cư dài hạn tại hàn quốc với visa kết hôn nhưng không thể được cấp quốc tịch ngay được. Thay vào đó, nếu người vợ(chồng) có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định cư trừ trên 2 hoặc 3 năm tại hàn quốc và từ trên 1 năm liên tiếp định cư sẽ có thể đăng kí thi lấy quốc tịch hàn quốc

◇ Điều kiện để đăng kí lấy quốc tịch dành cho người kết hôn

▲Đang có quan hệ hôn nhân với người vợ(chồng)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Định cư liên tiếp tại hàn quốc trong thời gian dài ▲Đủ 19 tuổi theo luật dân sự hàn quốc công bố ▲có phẩm hạnh tốt ▲có khả năng lao động nuôi gia đình ▲ có phẩm chất đủ để trở thành một công dân của hàn quốc.

◇ Cách thức đăng kí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sau khi kết hôn với người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nếu có nguyện vọng nhận quốc tịch hàn quốc thì phải viết và nộp đơn xin cấp quốc tịch hàn quốc cùng với một số hồ sơ kèm theo để chứng minh thân phận người nước ngoài của mình sau đó nộp lại cho cơ quan xét duyệt là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có quyền hạn kiểm tra và cấp quốc tịch.

(Câu Hỏi2) Tôi đang có bằng lái xe được cấp bởi quốc gia của tôi, nhưng nếu tôi muốn đăng kí cấp bằng lái xe tại hàn quốc thì có phải thi lái xe lại từ đầu hay không?

(Đáp2) Để có thể lái xe một cách hợp pháp tại hàn quốc bạn phải có bằng lái xe được cấp bởi cơ quan có thẩm quyền tại hàn quốc. Một số các trường hợp nếu người lái xe đã có bằng lái xe được cấp bởi quốc gia của mình thì sẽ không cần phải thi lái xe lại cũng có thể lái xe một cách hợp pháp tại hàn quốc. Ngoài ra, nếu người đang sở hữu bằng lái xe là bằng lái quốc tế mà chính quốc gia của mình cấp thì sẽ có thể được lái xe trong 1 năm kể từ ngày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mà không cần phải có thủ tục đăng kí lái xe nào cả

◇ Đối tượng được miễn thi bằng lái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có 1 trong các điều kiện sau ▲Có chứng minh thư người nước ngoài do hàn quốc cấp ▲Người nước ngoài đã đăng kí cư trú hay người được miễn đăng kí cư trú ▲Một số các kiểu bảo.

◇ Lái xe bằng bằng lái xe quốc tế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sở hữu bằng lái xe quốc tế có thể không cần đăng kí thi lái xe tại hàn quốc vẫn có thể lái xe một cách hợp pháp trong vòng 1 năm kể từ ngày nhập cảnh bằng bằng lái xe quốc tế của mình.

(Câu Hỏi 3) Vợ(chồng) kết hôn với người hàn quốc làm thế nào để có thể bảo lãnh bố mẹ và người thân sang hàn quốc?

(Đáp 3) Để có thể bảo lãnh bố mẹ hoặc người thân của mình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thì điều đầu tiên cần phải làm đó chính là cấp visa để có thể nhập cảnh. Trong trường hợp này người được bảo lãnh có thể trực tiếp đến phòng lãnh sự của Đại sứ quán hàn quốc để đăng kí xin được cấp visa. Nhưng đối với các kiểu bảo nếu có nguyện

vọng bảo lãnh người thân trong gia đình thì chỉ cần nộp hồ sơ bảo lãnh tại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là được. Khi Cục cấp mã visa thì chỉ cần đưa lại cho người được bảo lãnh mã số này và họ sẽ lên đại sứ quán để đăng kí đóng visa

◇ Nhập cảnh đối với người phải có VISA

Thông thường, khi người thân trong gia đình được bảo lãnh nhập cảnh thì sẽ có thể lưu trú tại hàn quốc với thời gian ngắn hạn là dưới 90 ngày và visa được cấp là visa du lịch C-3. Để đăng kí Visa ngắn hạn(C-3), người được mời phải có được thư mời từ phía người mời đang định cư tại Hàn quốc cùng với giấy bảo chứng(đã được công chứng tại hàn quốc), vv cùng với một số giấy tờ chứng minh cho mục đích bảo lãnh của mình. Người được bảo lãnh nên chuẩn bị các thủ tục này trước để nộp cùng với giấy đăng kí xin cấp visa thì sẽ rút ngắn thời gian chờ đợi hơn rất nhiều.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bảo lãnh người thân sang trông con nhỏ thì tỷ lệ ra visa sẽ rất cao và có thể lưu trú tại hàn quốc với thời gian tương đối dài.

◇ Nhập cảnh sau khi nhập được visa

Theo luật, người được mời – nghĩa là người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sẽ phải là người đi đăng kí xin cấp visa tại lãnh sự quán, nhưng đối với kiểu bảo kết hôn với người có quốc tịch hàn quốc, mặc dù chưa nhận được quốc tịch đi chăng nữa nhưng nếu có nguyện vọng bảo lãnh con của mình khi chưa đủ tuổi thành niên thì chỉ cần nộp hồ sơ bảo lãnh tại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nơi mình đăng sinh sống là được. <한글 기사 37면>

강혜나 기자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노경신 수녀)가 12월 15일 센터 강당에서 '사업보고회 및 송년행사'를 개최하고 2019년의 추진성과와 주요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연말을 맞아 행복나눔을 주제로 1년 동안의 사업 추진성과를 돌아보고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 이주여성의 활동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 송옥주 국회의원, 김혜숙 화성시청 여성가족과장 등 내외빈과 외국인주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노경신 센터장은 "2019년 한 해 동안 함께 해 준 많은 분들께 감사한다"며 "내년에 더욱 노력하는 센터가 되겠다. 화성시민과 함께 따뜻함을 전하는 외국인주민의 친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홍성 의장은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며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는 도시다. 센터가 이주민들의 코리아드림을 실현하는 가교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향남에서 이주민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다. 다문화가족 간담회 등을 통해 여러분의 필요사항을 많이 전달받았다.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 우수회원 및 자원봉사자 표창, 사업보고회, 영상 상영, 외국인주민 말하기대회, 응원전 및 장기자랑 등이 진행됐다.

사업보고회 후에는 2부 행사로 외국인 주민 말하기 대회가 개최됐다. 말하기대회는 8일 예선전을 통과한 8명의 학생이 다양한 주제 발표와 아리랑 합창, 엄지척 댄스 등의 장기자랑으로 분위기를 띄웠다.

한편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재)천주교 까리파스 수녀회 유지재단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외국인주민 상담보건의료, 한국어 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등이다.

이날 행사에 대해 김혜숙 과장은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화성시 초등 돌봄 사각지대 줄이는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화성시 아동보육(신순정 과장)과 아동 돌봄팀은 지난 21일 화성시 다함께돌봄(송린이음터)센터에서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아동 및 학부모, 공직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단 등 80여명이 참여, 축하공연, 추진경과보고 및 향후 운영계획을 소개했다.

이번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 목적은 지역 주민 요구와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은 민선7기 서철모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시설규모로는 연면적 181㎡, 상담실, 돌봄 프로그램관, 주방, 사무 공간 등의 시설이다. 또 이용대상자는 화성시에 주소지를 둔 초등학교생(만 6세~12세) 중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등이 해당된다.

신순정 아동복지과장은 센터가 "지역사회 초등 돌봄의 중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앞으로 "초등학교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 향후 10년간 협력 비전을 채택하다

Korea, China, Japan adopt trilateral cooperation vision for next decade

Leaders from Korea, Japan and China on Dec. 24 reconfirmed the significance of their trilateral cooperation over the past 20 years and adopted a new vision for such collaboration over the next decade.

Speaking at a joint media conference after a trilateral summit with Chinese Premier Li Keqiang and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in the Chinese city of Chengdu, President Moon Jae-in said, "Today, we three countries adopted a trilateral cooperation vision for the next decade."

"The newly adopted vision will serve as a milestone for the path of peace and prosperity in East Asia and a sustainable world."

"We reconfirmed the importance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we have developed over the past two decades and decided to raise the level of tangible cooperation so that the people of our countries can

feel the results."

President Moon also said this year's summit offered an important opportunity to help make the trilateral cooperation meeting a regular event. The three leaders agreed to boost cooperation in sectors directly related to the people's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in all three countries, he added.

The three sides also agreed to continue clos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for the denuclearization of and a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Premier Li said, "Not only through cooperation among China, Korea and Japan but also that in East Asia, we will strengthen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in responding to regional and global issues erupting in the Asia-Pacific region."

"We will play a greater role in forming a cooperative structure in East Asia that meet the

demands of countries in the region," he said, adding, "We all support free trade, economic cooperation and investment."

The premier also said the three countries will accelerate negotiations on a tr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FTA).

Prime Minister Abe said the three leaders confirmed their commitment to pursue a trilateral FTA, saying it has vast added value and can even become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For us to meet global expectations of our three countries and assume greater responsibility, duties and obligations, we three leaders renewed our commitment to work harder toward trilateral cooperation, which marks its 20th anniversary this year, for the next ten years."

By Yoon Sojung, arete@korea.kr

포토뉴스



“다문화가족과 걸어온 10년, 따뜻한 변화로 함께 성장해”

▲‘아름다운 소통, 함께하는 문화’를 이루기 위해 씬 없이 달려온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현주)는 지난 13일 ‘10주년 기념행사 및 한국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내빈 및 한국어강사 소개로 1부의 시작을 알린 후 드림하이합창단의 공연과 10주년 기념 수상식 및 한국어교육 수상자 시상, 10주년을 맞은 센터 동영상 소개 및 직원소개, ‘하다방’ 중국무용 공연 등이 진행됐다. 지난호 보도에 이어 기쁨과 행복이 넘친 기념행사의 단체사진을 게재한다. 송하성 기자

나래울아동청소년센터 화성시 송년행사 개최

화성시 시립 나래울 아동청소년센터에서는 연말을 맞아 송년행사와 수료식을 개최해 한해를 마무리하며 서로를 격려하고자 ‘화성시 시립 나래울 아동청소년센터 송년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난 13일 화성시 시립 나래울아동청소년센터에서 ‘기분좋은 연말 행복하송~’라는 제목으로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센터 이용 청소년 및 가족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공연(댄스, 악기연주), 활동 동영상 상영, 단체사진, 센터 라운딩 및 석식 등 순으로 진행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한 해 동안 아이들을 위해 애써준 센터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Kênh thông tin giáo dục dành cho gia đình đa văn hóa

Tìm hiểu về các chế độ phúc lợi được cải đối đối với phí hỗ trợ nuôi con nhỏ

<다문화가족 육아정보, 달라진 아동수당 복지혜택 알아보기>

Phí hỗ trợ nuôi con nhỏ được định nghĩa như thế nào? 아동수당이 무엇인가요?

Các bạn đều nắm được thông tin về phí hỗ trợ nuôi dưỡng trẻ nhỏ đã được cải đối một số nội dung chính đó là đối tượng có thể nhận được số tiền hỗ trợ này sẽ là những trẻ có độ tuổi dưới 7 tuổi vào tháng 9 năm 2019 rồi chứ ạ?

'Phí hỗ trợ nuôi trẻ nhỏ' là chế độ được điều hành bởi Bộ phúc lợi và xã hội, chế độ được ra mắt vào tháng 9 năm 2018. Đây là một hỗ trợ về mặt kinh tế nhằm tạo ra môi trường phát triển lành mạnh cho trẻ thông qua đó đóng góp vào quyền lợi của trẻ em một cách hợp lý. Bộ phúc lợi và xã hội với hy vọng cùng chia sẻ các gánh nặng về nuôi con đối với gia đình đa văn hóa.

Bộ phúc lợi và y tế cho biết, đã có một chút thay đổi trong nội dung hỗ trợ của chế độ đó chính là vẫn dựa trên nền tảng của về tiêu chuẩn của chế độ cũ nhưng các tiêu chuẩn về thu nhập của gia đình trẻ đã được mở rộng hơn nữa, độ tuổi có thể nhận được hỗ trợ cũng được tăng lên đến dưới 7 tuổi. Như vậy

có nghĩa rằng các trẻ có độ tuổi từ 0 đến 83 tháng tuổi đều có thể nhận được số tiền hỗ trợ này của Bộ. Đây cũng là quyền lợi dành cho phụ huynh của trẻ có độ tuổi dưới 7 tuổi đúng không ạ?

Số tiền được hỗ trợ là bao nhiêu?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Số tiền 100,000won sẽ được hỗ trợ vào ngày 25 hàng tháng dành cho 1 trẻ. Tùy theo chính sách điều hành của từng cơ quan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mà số tiền này có thể được thay thế bằng tiền trao đổi khi mua sản phẩm tại các quầy hàng hóa tại địa phương.

Các trẻ được sinh ra và được khai sinh trong vòng 60 kể từ ngày sinh thì số tiền hỗ trợ sẽ được cấp kể từ tháng mà trẻ được sinh ra, nếu ngày thanh toán là ngày lễ thì số tiền đó sẽ được cấp vào ngày trước đó. Có một lưu ý ở đây đó chính là nếu thời gian cư trú của trẻ tại nước ngoài trên 90 ngày liên tiếp thì sẽ không được nhận số tiền trợ cấp này nữa.

Cách thức đăng kí như thế nào?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Các bạn đều có thể đăng kí thông qua kênh thông

tin điện tử online hoặc trực tiếp đến các văn phòng chính quyền tại địa phương. Trong trường hợp các bạn trực tiếp đến các văn phòng chính quyền để đăng kí thì phụ huynh phải đến ủy ban nhân dân nơi mà trẻ đang đăng kí địa chỉ thường trú.

Một số thủ tục hồ sơ cần thiết cho việc đăng kí đó chính là ▲Giấy đăng kí nhận tiền hỗ trợ ▲Chứng minh thư nhân dân ▲Nếu người đăng kí chỉ là người bảo hộ của trẻ thì phải nộp thêm Giấy ủy quyền hoặc chứng minh thư nhân dân. Ngoài các hồ sơ đã được nêu trên, tùy theo cách xử lý hành chính của từng địa phương mà người xét duyệt hồ sơ có thể yêu cầu nộp thêm một số giấy tờ chứng minh khác.

Trong trường hợp các bạn đăng kí tại cổng thông tin Online, thì chỉ có cha mẹ của trẻ mới có thể đăng kí được. Hãy tải ứng dụng của dịch vụ Bokjoro và sử dụng dịch vụ này một cách nhanh chóng và tiện lợi

Đối với các trẻ đã qua 6 tuổi và không còn được nhận hỗ trợ cũng có thể nhận hỗ trợ lại cho đến hết 7 tuổi mà không cần phải có thủ tục đăng kí lại.

<한글 기사 18면, 중국어 24면, 태국어 12면>

강혜나 기자